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영주, 김애령, 조연숙, 손문금, 김유나, 조은영, 정인선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1037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여성 · 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연구책임자	서 영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애 령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조 연 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손 문 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 유 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조 은 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홍보팀장) 정 인 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1-3 연구절차도

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과정

- 2-1 민선 2-4기 여성분야과제 및 단위사업
- 2-2 민선 2-4기 여성가족분야 평가의 시사점
 - 1) 여성분야
 - 2) 가족·보육·저출산분야
 - 3) 아동·청소년분야

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환경분석

- 3-1 정책환경의 거시적 추세
- 3-2 이해관계자요구분석
 - 1) 서울시 여성 특성 및 여건전망
 - 2) 패널요구분석
- 3-3 SWOT분석

4.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방향과 전략

- 4-1 정책기본방향

5.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전략과제

- 5-1 성장하는 시민(Growth)
- 5-2 건강한 공동체(Well-being)
- 5-3 균형적인 사회(Bala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1-3 연구절차도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0년대 새로운 도약과 서울여성가족정책의 강화

- 1990년대 중반 제도화되기 시작한 서울시 여성정책은 2003년 민선3기에 들어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여성정책 종합계획인 「서울여성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2004년에는 북경세계여성대회(1995)의 행동강령이었던 '성 주류화' 전략(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을 도입하여 여성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였음
- 이후 2005년에는 여성정책이 가족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력 향상, 보육문제 해결 등 생활상의 요구와 연계된 구체적인 정책이 강화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됨
- 또한 최근 몇 년간 서울시는 시장개발의 가치를 여성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서 두면서, 2007년부터 전체 서울시 공간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이하 여행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음. 이는 과거 도시정책의 외재적 성장 위주의 하드시티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인 문화, 예술, 디자인, 감성을 중시하는 소프트 시티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서울시는 '여성 소프트 시티'로서의 전망을 제시하는 최초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 가족해체의 증후,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가 추진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때로는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으며, 정책의 체감도와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재점검해야할 시점에 놓임
- 또한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의 진전과 사회 각 부문의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정책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나 남성의 역할별을 조장한다는 역풍도 높아지는 등 여성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2010대의 새로운 여성가족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효과를 제고해야 하며, 동시에 시민적 지지를 확보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표)민선2~4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추진 개요

1989. 7. 31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2000~2002 (민선2기)	「서울여성정책 3개년 계획」 수립 여성정책의 지속적, 체계적인 추진 4가지 기본전략, 12개 과제 43개 세부사업 구성		
2003~2006 (민선3기)	「서울여성정책 4개년 계획」 수립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인적자원 지원 및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문화 확산, 소외여성과 아동의 복지 증진 등 5개 분야, 14개 과제, 40개 단위사업 구성		
2007~2010 (민선4기)	「여성가족정책 시정운영 4개년계획」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1동 1보육시설 설치 등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 구성	「女牽 프로젝트」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5개 중점과제, 90개 사업	「꿈나무 프로젝트」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즐겁게 배우는 서울, 더불어 함께하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4대 정책 12대 핵심과제 54개 사업

- 앞으로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산업 등에 대한 국가투자 증대와 강력한 저출산 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2010년대에는 한층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서울형 녹색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여성의 참여와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임. 또한 출산을 제고와 병행하여 서울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임
- 이에 2010년대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서울시 여성과 가족구성원의 정책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부응하는 3대 영역(성장영역, 웰빙영역, 균형영역) 및 20대 중점과제를 발굴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둠
-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대 영역의 20대 중점과제는 민선5기(2011-2014) 서울시가 향후 추진할 여성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보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서론

1-2. 연구의 방법

● 원내 세미나를 통한 방향 설정 및 새로운 영역 도출

- 연구방법으로는 원내 연구진(4인)과 외부 연구자(1인)로 팀을 구성하여 그간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성과 등을 검토하고, 현 단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음. 우선적으로 과제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프레임(영역)을 추출하는 등 수차례의 협의를 거쳤음
- 여성부 및 타 지자체 여성가족친화정책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지방정부 여성전담부서가 있는 뉴질랜드 사례와 OECD 등 선진국가의 여성가족정책 경향을 벤치마킹함

● 외부전문가와의 과제발굴 원탁회의 개최

- 과제의 방향과 영역을 설정한 이후에는 편의상 4개 분과(여성분과, 저출산보육가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복지분과)로 나누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과제(사업)를 도출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함(평균 3-4회 정도)
- 과제를 도출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마련함. ①신규 사업 중심, ②기존 사업의 개선점 발굴 및 구조 변경(리모델링), ③평가체계 마련 등 인프라 강화사업. 또한 모든 과제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곧바로 사업화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추진체계와 실행성을 지닌 과제를 제시하려고 노력함

● 중점과제와 단위사업 선정 워크숍 개최

- 이번 연구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던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중점과제와 단위사업을 분류하여 범주화함. 중점과제는 중범위이상의 포괄적인 목표와 사업 내용을 지니고 있으며, 하위에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비해 단위사업을 단일사업의 형태로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됨
- 중점과제는 시민의 공감대를 모으고, 모범 사례의 발굴이 가능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원내 워크숍 등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았음. 향후 중점과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피드백시스템 마련 등은 본 재단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서론

1-3. 연구절차도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수립절차〉

1단계	연구 방향 설정	○ 연구의 기본목차 도출 ○ 민선2~4기 여성가족정책 자료 분석 ○ 여성부 및 타 지자체 여성가족친화정책 분석 ○ OECD 등 선진국 주요도시(정부)의 여성가족정책 분석
2단계	과제발굴 원탁회의 개최	○ 과제발굴 기준 도출 ○ 외부전문가 선정 및 과제발굴 회의 개최 ○ 원내 과제점검 회의 개최
3단계	3대 전략 및 중점과제 집약 정리	○ 민선5기의 비전 및 새로운 추진전략 도출 ○ 중점과제 및 단위사업 선정 ○ 중점과제 세부사업내용 도출 ○ 추진체계 및 사업의 기대효과 도출
4단계	과제 적합성·실용성 최종 점검	○ 중점과제의 모범사례 발굴 가능성 점검 ○ 과제 간 연계성 및 현장적응성 수준 제고 ○ 20대 중점과제 66개 단위사업 최종확정

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과정

2-1 민선 2-4기 여성분야과제 및 단위사업

2-2 민선 2-4기 여성가족분야 평가의 시사점

1) 여성분야

2) 가족·보육·저출산분야

3) 아동·청소년분야

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과정

2-1. 민선 2-4기 여성분야 과제 및 단위 사업

● 민선2기(1999-2002)

영역	정책과제	단위사업
여성	여성정책 홍보 및 남녀평등 의식 제고	○ 여성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 여성주간행사 실시 및 지원 ○ 공무원 남녀평등의식 교육 ○ 성평등 의식 교육 ○ 여아출생 기념식수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서울여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여성 정치의식교육
	여성공무원 지원 및 육성	○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 여성창업지원센터개설 ○ 여성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여성단체 육성 및 사업지원 ○ 여성리더십 교육 ○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여성의 국제교류활동 지원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 사회교육기관 여성학강좌 지원 ○ 여성의 평생교육지원 ○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가족	여성의 건강·복지증진	○ 모자보건사업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자립지원
보육	보육시설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보육시설의 확충 ○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 시청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 ○ 장난감 도서관 운영
아동·청소년	아동안전과 소외아동복지 향상	○ 어린이 아동보호종합대책 추진 ○ 어린이 안전보호구역(School Zone)안전대책추진 ○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 추진 ○ 어린이 안전지킴이 발대식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지원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입양정보센터,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 ○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 ○ 결식아동급식지원 ○ 확대받는 아동보호 ○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

● 민선3기(2003-2006)

영역	정책과제	단위사업
여성	양성평등기반 및 문화 확산	○ 주요 시책사업 성인지적 평가 ○ 양성평등외식 함양을 위한 여성학 강좌 ○ 양성평등 문화 사업 추진
	남녀차별 관행 개선	○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강화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 위원회 여성참여제고 등 시정참여기회확대 ○ 관리직 확대 및 다양한 직무순환 보직 ○ 출산휴가, 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지도자 육성	○ 여성단체 육성 및 파트너십 강화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 여성포털사이트 구축 및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여성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 특화사업 추진 ○ (재)서울여성 운영 활성화 ○ 여성 CEO, 국제관계, IT전문가 양성교육 ○ 실버계층 전문일자리 창출 등 경제자립 지원
	여성창업지원 기반 구축	○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 여성기업박람회 개최 등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여성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예방 및 탈매춘 선도재활지원 ○ 무의탁 여성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 저소득 한부모 가정보호 ○ 건강한 가족문화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10대 가출·성매매 선도재활사업	○ 심야 길거리 상담 운영강화 ○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 테마여행 ○ 가출, 성매매 청소년 예방 및 선도재활 강화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 성폭력 여성장애인 보호·상담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가족	여성건강 의료 서비스 향상	○ 영유아 보호·출산여성 등 모자보건사업
	건강한 가정조성	○ 위기가정 지원 및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 복권기금 활용 위기가정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보호·지원
보육	보육기반구축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민간 어린이집 지원확대 ○ 보육시설 확충시 민간참여 유도 ○ 보육종사자 후생복지 증진 ○ 보육장비 및 프로그램 현대화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제 실시 ○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 장애아 보육확대 및 전문성 제고 ○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 방과 후 아동보육 확대

아동 · 청소년	아동복지 증진	○ 아동복지시설서비스수준향상 ○ 민간단체 참여의 결식아동지원 확대 ○ 학대아동 보호체계 확립
	어린이 안전의식 향상 및 환경개선	○ 어린이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시설 개선 ○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민선4기(2007-2010)

영역	정책과제	단위사업
여성	여성경제력 강화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구축과 취업·창업 확대 ○ 지역사회지원형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 내실화 ○ 여성취업 박람회 개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	○ 성인지 지표 설정 및 향상 ○ 전문분야 자원봉사단 육성·운영 ○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 성별분리통계 생산기반 구축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실시 ○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저출산	저출산 대책 추진	○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아이돌보미 운영
가족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보육	공보육기반강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	○ 1동 1보육시설 확충 ○ 공공기관 내 보육시설 설치 ○ 저소득시민의 육아부담 경감 ○ 장애아 보육확대 및 전문성 제고 ○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다양화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 직장보육시설 제공 적극 지도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 지원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능력개발 ○ 보육시설 상시평가체제 구축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기능확대
아동·청소년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 청소년 문화수련프로그램 수준 향상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 보호필요아동 건전육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아동급식 지원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 여행프로젝트(2007-2010)

영역	과제		단위사업
여행프로젝트 (2007-2010)	일있는 서울	30·40 일자리 창출	○ 맘프리너 창업스쿨 등 여성창업 지원 ○ 실버케어 여성직업 교육훈련 확대 ○ 맞춤형 여성직업교육 확대 ○ 여성일자리갖기 지원 프로젝트 개선 ○ 결혼이주여성 패션기술교육 ○ W-Gold job 주식회사
		창업·기업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창업 지원 강화 ○ SBA 여성기업 자원제도 운영 ○ 여성기업인 지식도우미 서비스 ○ 취득세 신고 여성납세자 지원서비스 ○ 여성이 행복한 꽃가게-女行花家
	넉넉한 서울	여성친화 프로그램	○ 서울문화 예술탐방 여성전용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친화적인 문화예술기회 확대 ○ 엄마와 함께 하는 Cooking Class ○ 여성행복더하기 천원의 행복
		여성의 정보화	○ 인터넷 방송 여성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제작 운영 ○ 여성중심 웹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터넷 방송 「아름다운 여성」 주제 UCC 공모전 ○ 맞춤형 여성정보방 홈페이지 구축 ○ 여성편의시설 정보마당 구축 ○ 여성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서울	도시설계	○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사업(마곡지구)시범 추진 ○ 주부 프로슈머제도 실행
		도시안전	○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기준 및 매뉴얼 제정·시행 ○ 야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하는 지하보차도 관리 ○ 여성을 위한 콜택시, 검침원 안심서비스 ○ 외국인 여성쇼핑객을 위한 쇼핑안전가드 운영
		도시환경	○ 육아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정보 SMS 문자서비스 제공 ○ 음식폐기를 배출처리방법 개선
		여성건강	○ 여성폭력피해자 무료진료지원, 폐경기 여성건강 프로젝트 ○ 여성건강증진타운 건립, 임신부 안심먹거리 프로젝트 ○ 여성결핵환자 희망 프로젝트
	돌보는 서울	보육	○ 양질의, 저렴한, 접근이 편한 보육시설 확대 ○ 유급육아/가족 휴가 확대-돌봄 대상자 지원 ○ 남성의 돌봄 휴가 참여 지원
		돌봄	○ 노인돌봄 서비스 시설 확장 및 접근성 향상 ○ 돌봄노동자 노동 경감 지원 ○ 한부모, 싱글맘, 동거자녀, 입양자녀 우선지원
	편리한 서울	교통 및 이동성	○ 안전, barrier, free한 교통시설 확보 ○ 노동시간, 돌봄 노동, 주거지 등 차별화된 서비스
		주거	○ 취약계층 여성의 질 좋고 안정된 주거지 제공 ○ 소득, 연령, 가구규모 등에 따른 복합적 주거지 ○ 여성의 주택소유, 재산권 및 대출권 확보

● 꿈나무 프로젝트(2008~2010)

영역	과제	단위사업
꿈나무 프로젝트 (2008~2010)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 정서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 ○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 ○ 어린이 비만관리 강화
	즐겁게 배우는 서울	○ 재미있는 놀이터 조성 ○ 상상력을 키우는 체험공간 확충 ○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확대
	더불어 함께하는 서울	○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	○ 책임있는 서울 꿈나무 ○ 서울 청소년 창의센터 신설

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과정

2-2 민선 2-4기 여성·가족분야 평가의 시사점

1) 여성분야

● 소득 3만불시대 서울여성의 재취업 성공 확대를 위한 인력개발정책의 실효성 제고

- 민선 2-4기 동안 서울시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51.7%('08년 기준)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서울여성은 여전히 육아·가사로 인해 경력단절이 심하며,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인적자본이 저평가되어, 주로 하위직종으로 취업하는 경향을 보임
 - ▷ 2008년 서울시 여성의 실업률은 3.6%로 전국 평균 2.8%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출산 및 육아의 시점인 30대를 기점으로 경력단절현상 심화
 - *서울여성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분포('08년) : 13.2%(30대) - 15.5%(30대) - 14.6%(40대)
 - * 4년제 대졸여성의 여성직업 훈련기관을 통한 재취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이동가능성을 높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성공요인 및 경로분석」, 2009)
- 서울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서울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정책 간 차별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산·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L자형 패턴(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

고졸이하의 저학력 여성들은 M자형으로 비교적 40대 중반 전후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는 반면,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은 L자형으로 지속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이게 됨

이는 고학력여성들의 재진입할 취업 조건이나 근로 여성이 이들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미루 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서울시 정책, 공간, 제도 등 모든 영역에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프로젝트 정착화

-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도시 공간에서 여성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해결하는 정책이자 여성의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여행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시여성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됨 (이하 중략..... 여행프로젝트 평가 반영)
 - ▷ 서울시 여행 프로젝트는 '08년 UN 여성지위위원회 52차 총회 병행 행사 및 제10차 세계여성대회 포럼을 통해 전세계에 소개되었고, 도시 여성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와 동시에 민선3기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민선3기 성인지적 정책기반 구축 사례

① 지자체 최초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서울시 성인지적 시장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실시

② 성별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구·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성별분리통계 마련 : 인구, 가족, 교육 등 10개 분야 17개 항목을 성별로 분리하여 활용

- 앞으로는 서울시 공간을 넘어서서 서울시의 주요 성인지적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시민 참여 및 정책 발굴 필요
- 그간 여행프로젝트는 동반자 자문단과 여행 프로슈머단의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정책 참여를 장려했으나, 성인지적 도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녀 모두의 참여와 정책 평가가 필요
- 서울시 성 주류화 정책은 고품격 정책으로서 서울시 모든 정책 과정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동시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도시개발에 대한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구축, 관련공무원의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필요



● 도시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도시여성의 생태적 민감성을 반영하는 녹색 친화적 여성거버넌스 사업 추진

- 빈곤, 재해, 기후변화 및 녹색생활 실천 등 다양한 21세기 글로벌 이슈에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대되고 있음. 특히 여성은 개발주의, 성장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경쟁주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환경 보전을 통한 육체·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음
- 그간 서울시는 쾌적하고 다양한 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녹지체계를 구축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민의 삶에서 건강과 자연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영역의 녹색화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과정에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주체로서 여성의 참여는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표〉녹색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가능 부분과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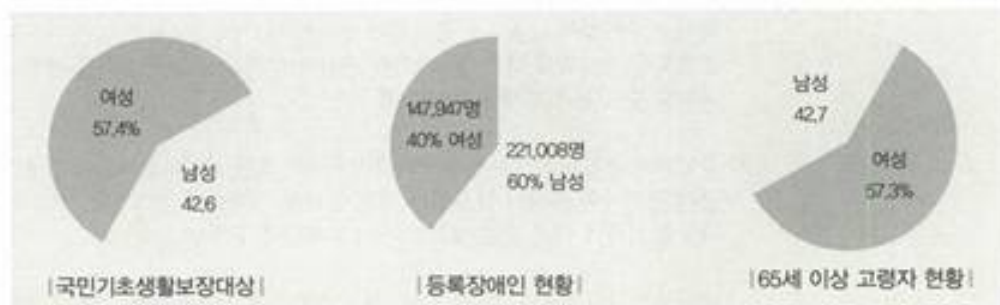
여성의 위치	참여방법	대상	관련 주제
시민	설득, 제안	중앙정부, 지자체	○ 생활영역의 녹색화(도시계획, 학교급식, 지역음식물사용 등)
시민	녹색 소비	기업	○ 친환경상품 ○ 친환경적 생산방식 요구
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설득, 제안	정부, 지자체	○ 환경보호 ○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 ○ 녹색 생활 양식
시민사회	설득	시민	○ 녹색 생활 양식
시민사회(여성환경단체 등)	정보의 형성, 전달	기업/시민	○ 녹색정보시스템 구축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5회 여성정책모임 (『여성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2009) 중 「녹색거버넌스와 여성참여」, p53.

- 앞으로 서울시의 녹색환경 거버넌스와 젠더 거버넌스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기업에 여성소비자의 의견 개진, 지역 여성·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친환경상품 소비운동 전개, 기업·시민사회·여성이 협력하여 친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 등을 전개할 필요.

● 장애, 고령, 빈곤, 이주 등 다양한 소수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각적 지원 정책 마련

-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포괄하고 있는 소외여성의 범주는 주로 폭력피해여성, 성매매피해여성, 무의탁 여성으로 소외여성의 이슈를 주로 폭력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매우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즉, 폭력피해 여성을 소외여성 복지증진의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면서, 여성가장, 장애여성, 여성노인과 같이 다양한 소수자 여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계를 지님
- 장애여성, 여성노인, 여성가장과 같은 소수자 여성들은 모두 장애, 고령, 빈곤이라는 차별요인과 함께 여성이라는 성차별적 요소를 함께 안고 있어, 중층적 차별 집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임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의 경우 여성이 57.4%, 남성 42.6%로 빈곤층 가운데 여성비율이 더 높음. 등록 여성장애인은 147,947명으로,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890,052명 중, 여성인구는 510,534명, 남성인구는 379,518명으로 여성인구가 전체의 57.3%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수자 여성들이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된 배경에는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한계가 있음. 즉,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기본계획'이나 '노인복지정책기본계획' 또한 성인지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책집행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여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2) 가족·보육·저출산 분야

● 분절적인 가족지원서비스와 장기적인 가족정책의 비전 부재

- 서울시의 가족정책 역시 중앙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상당히 분절적인 양상으로 전개됨
 - 조직구성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인 가족정책 추진체계가 가시화되지 않음. 여성·가족정책관을 주축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가족정책은 여성정책,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가운데 저출산대책담당관의 하위 팀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는 체제임.
 - 주요 가족구성원이기도 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이 각기 다른 위상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미약함
- 현재 서울시가 표방하는 구체적인 가족정책은 크게 출산장려 및 지원, 가족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전달체계가 분명하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의 대표적인 가족지원 사업은 주로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양육정책은 임신지원, 출산지원, 양육비용절감, 교통비 및 주택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자세한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가족지원 사업은 중앙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상응하여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서울시 위상이나 예산규모 대비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음
 - *한부모가족은 국비와 시비의 대칭방식으로 자녀양육비와 수업료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들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와 교통비 지급은 서울시비 100%로 충당되고 있음
-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는 부모교육, 가족심리검사, 가족전화상담, 우리가족 도란도란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것 역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해 아이돌보미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만의 고유성을 발현하기 어려움

- 향후 대상별로 분절화되어 있는 지원정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하여 가족정책의 묶음으로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확하게 부각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정책 미흡하고, 최근 정책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상황을 정책이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이주여성이 급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사회적 관심 방향과 영역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방향성 없이 표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정책 또한 시설보호지원이 정책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최근의 지역사회 중심의 탈시설화 지원 방향에 역행하며 장애가족, 미혼모(부)가족, 입양·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거의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면서, 개별 가족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 한 개별화 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

● 보육 정책 대상 아동의 확대 및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 필요

- 서울형 어린이 집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공립과 민간 시설 간 균형을 모색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 확장을 모색하여 왔음. 이는 시설 및 교사관련 인건비 지원, 취약 보육 확충 등을 통해 서비스 기관 분포 및 접근, 이용시간 등의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의 효과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률 35.2%, 유치원 이용률 15.5%, 미이용 아동 49.3%임(아동합계, 주민등록 아동통계, 보육시설이용아동, 유치원이동아동, 2007) 정책의 대상은 주로 보육 시설 아동에 한정되어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 발생, 시설 미이용아동, 시설아동,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과정 등으로 보육 정책 영역 확대 필요
- 또한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가족 배경에 대한 민감성, 아동의 일상생활 및 성인과 양질의 관계, 놀이·체험활동 등 긍정적 발달지원 및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 등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필요 있음
- 국고보조금 포함 서울시 보육예산은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공공재정의 운영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요청됨

● 한정적인 저출산 정책의 대상과 출산양육친화문화 조성 미흡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보편적 지원에 의한 다자녀 가정 양육 수당제 도입 및 시행으로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정책대상도 확대하여 왔음. 그러나 여전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민의 정책 체감도 및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고용 불안, 결혼 비용 부담,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혼지원정책이 미흡하며 만혼화에 따른 고령 임신 및 출산의 증가는 서울시 모성 보건 및 인구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만혼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및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지 못하였음
- 서울형 어린이집 추진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제고되었으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이 큼. 자녀가 있는 가정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확산이 미흡한 실정

3) 아동·청소년 분야

● 현재 소외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일반 아동·청소년으로 정책대상 확대 필요

- 아동 정책은 주로 안전 및 소외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일반 아동에 대한 정책 발굴은 미흡한 실정임. 주요 정책들은 아동안전과 소외아동복지 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등으로 제한되어 왔으며 세부단위사업도 안전, 안전의식, 아동복지서비스의 증진에 한정되어 이에 대한 보완 사업이 필요함
- 청소년 정책의 안전, 건강, 여가 등 세부적인 정책 발굴이 요청됨.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청소년전용 여가문화공간에 대한 고려 및 '창의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학교교육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함

● 정책이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과제 확대 필요

- 아동정책은 모든 아동의 안전 및 아동권리 증진,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건전한 놀이와 학습공간의 확보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 후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이를 위한 정책과제의 방향으로 아동 안전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놀이와 학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여가와 학습이 안전한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필요함
- 향후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근접하고 밀착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2009년 추진된 청소년 건강대검 '쉬는 시간' 등의 사업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사업으로 평가됨
-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수련관'과 '시설' 중심에서 '학교'와 '지도사' 중심으로 전환되어 청소년 밀착적인 방식으로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 활동기회는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따라서, 구 차원이 아니라 동단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청소년전용공간, 지역사회의 '청소년 사랑방' 설치가 필요
- 청소년분야 사회적 일자리 개발 등 청소년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개발 필요

●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과 전달에 있어서 참여와 협력의 활성화 모색

-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시민),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역사회(시민)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은 지역사회의 자원(복지시설, 문화 및 예술공간, 공공시설 등)을 근간으로 해야 함을 의미함
- 단체는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뿐 아니라, 건강,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NGO(비정부 기구)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실현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기업은 물적 자원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과 미래사회의 주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음

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환경분석

3-1 정책환경의 거시적 추세

3-2 이해관계자요구분석

1) 서울시 여성 특성 및 여건전망

2) 패널요구분석

3-3 SWOT분석

3.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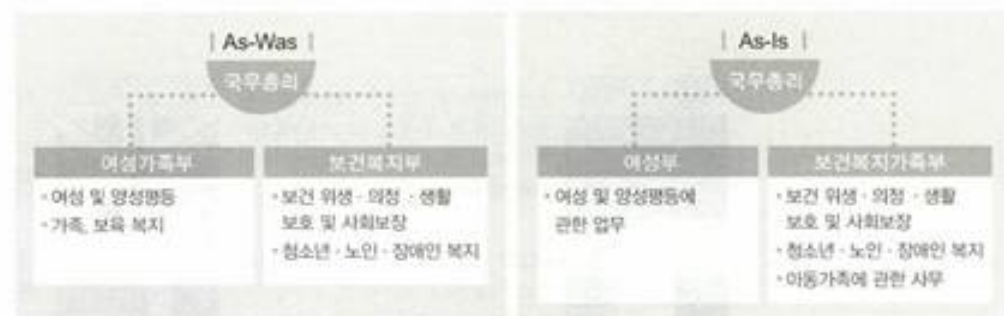
3-1 정책환경의 거시적 추세

● 서울시의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 확대

- 여성정책이 과거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와 의식 개선 정책에서 다수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여성 집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여성정책에 대한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음
-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상 및 범위와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 여성 복지와 여성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이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권리자로 변화하고 있음. 더불어 정책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 여성으로 확대되고 범위 또한 빈곤과 소외 문제에서 여성의 자립과 경제 활동 참여로 확대되는 추세임
- 여성부의 축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커지고 있음. 실용정부의 입각에 의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부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역할에서 타기관과 지방 정부의 정책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역할로, 지방자치단체는 실천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역할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자치구의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여행 프로젝트 사업의 현장 실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 '여행' 사업의 자치구 일선으로의 확산의 한계로 생활채널형 여성정책의 의미가 충분히 살려지지 못한 한계 노정
-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작은 정부 지향 원칙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서울시는 정책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기 위해 제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상상력의 발휘와 정책 홍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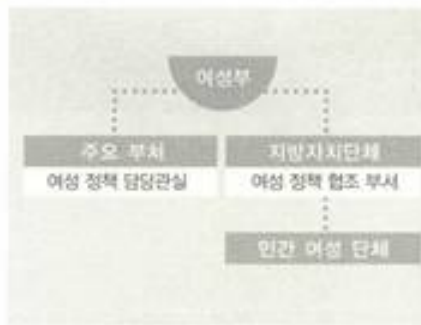
● 여성정책 환경의 주요 이슈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 강화
 - 여성부의 조직개편과 예산 축소 등 중앙 정부의 기능 약화로 인해 여성정책이 약화되었지만, 실용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복지 정책이 수혜 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 부재를 초래한다는 배경에서 여성가족부의 가족과 보육에 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여성정책 기능 자체가 약화됨



출처 : 2008~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부 2008년 12월)

- 여성부의 많은 역할이 타 부처나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지자체의 여성 가족 정책에 대한 역할, 즉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증대함



정책 집행 권한	세부내용
축소	○ 정책 입법기능 약화 ○ 정부부처, 지자체가 성평등관점 정책을 지향하도록 총괄, 조정 기능강화
확대	○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권한 확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 권한이 확대되어 민간단체의 참여 역할 확대

○ 여성 복지와 정책에 대한 대상 및 범위의 변화

- 여성 복지와 여성 정책에 있어 인식과 대상, 범위,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지원과 연구, 교육 뿐 아니라 기존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성인지를 반영한 정책의 시행과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주요변화			변화내용
인식	정책 수혜자	정책 관리자	○ 여성은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로서 정책 시행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굳혀감
대상	취약 계층	일반 여성	○ 정책의 대상이 요보호 여성 내지 취약계층 여성에서 일반여성으로 확대
범위	빈곤, 소외문제	여성자활 및 자립기반 마련	○ 빈곤 및 소외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 여성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 복지 정책이 활발히 시행
내용	복지 정책	성인지 반영, 보육, 가족정책	○ 단순 여성 복지정책에서 성인지가 반영된 정책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보육 및 가족, 리더십 교육 등으로 변함

○ 성인지 예산 결산 의무화의 본격화

- 중앙정부는 2000년 성인지 예산결산을 의무화하여 예산 편성 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질 예정이며 성별영향평가가 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 확산될 것임
- 행정의 감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NGO 및 시민회 등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확대될 예정임



EU
2015년까지 모든 EU국가가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성인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United Kingdom
재무부와 성인지 관련 NGO가 협력하여 성인지예산분석 자료를 발행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이 재정집행을 할 때에는 성별 영향을 포함한 주요 지출효과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France
2000년 이후 정부예산안 부록으로 성별분석보고서를 작성, 정기적으로 정부예산과 양성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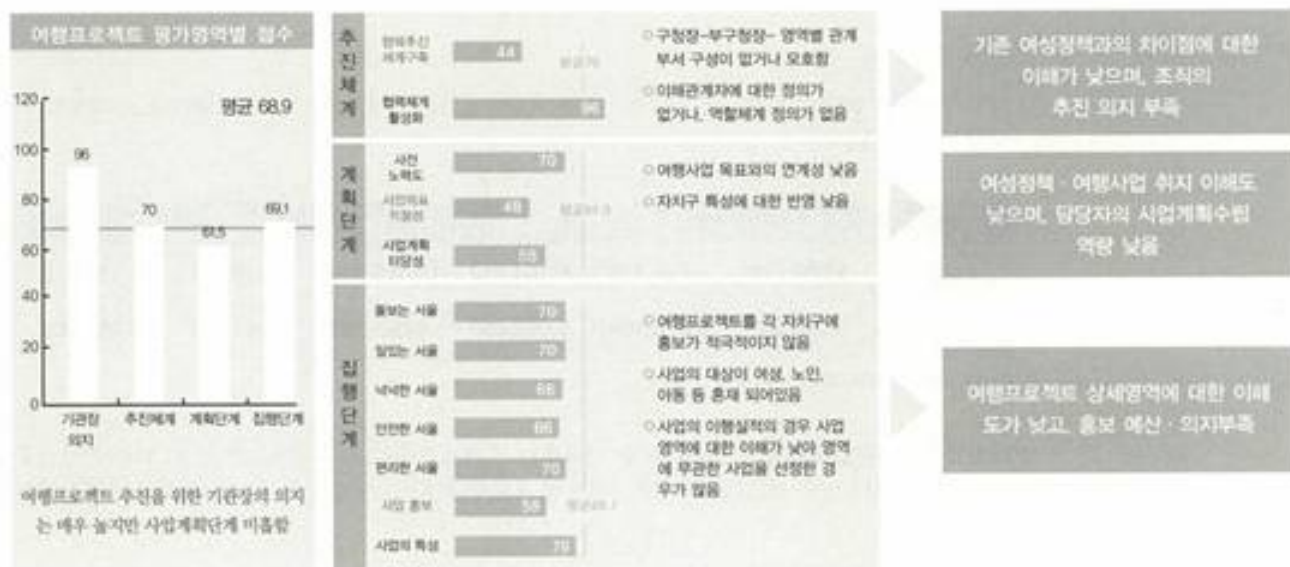


Sweden
매년 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의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지원배분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자료원 : 재정사업 성별영향 고려 '성인지 예산 - 결산' 2010년 도입대한민국 정책모임, 2006. 9. 3차

○ 자치구 여행 프로젝트의 추진력 미흡

- 민선 4기 역점 여성정책 사업인 '여행' 프로젝트는 생활민착형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중요한,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여행 프로젝트의 평가 결과 기관장의 추진 의지는 높으나, 프로젝트 계획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여성정책 담당자와 구정이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여성정책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음
- 구민에 여행을 알리는 홍보 예산과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 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의 추구

- 공공부문의 행정에 있어 최근 정부 기조가 작은정부 지향을 원칙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효율성 추구를 강조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혁신 기조는 현 정부의 '실용정부' 추구 및 민선 4기 서울 시장에서의 '창의 행정' 추구 등으로 이어짐
- 특히, 환경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과 가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행정과 고객만족 행정과 같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등장함

지속가능경영 환경요인		정부에 대한 요구	
환경적 측면	○ 교토의정서 발효 2012년 이후 한국도 온실가스 의무절감 이행국가 편입 예상 - 온실가스 절감 및 환경보호에 대한 NGO요구 증대 ○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 EU, RoHS, REACH 본격시행 - 중국도 EU수준으로 환경규제 강화		1 지방정부 평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환경적/사회적 위험과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 지양 재정·환경·윤리행정 준수지표의 공개
	○ 지속가능경영 성과 정보 요구 증대 - 지속가능성과 수익률의 비례 - 조직의 지속가능성 평가 확산		2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강조 민·관·학·연 협력 및 사회공헌 공동 추진
경제적 측면	○ 행정의 사회적 책무성 요구 - 투명경영, 윤리경영 요구 증대 - 공·사 조직의 사회공헌활동 대중화		3 청렴기준 강화 및 윤리경영 체제구축 요구 행정과정의 청렴성·효율성·고객지향성 강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부패감시 강화
사회적 측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화 2010년 ISO26000 제정 예정 - 기업의 사회책임활동 정보 요구 증대 -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음		

3.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환경 분석

3-2.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1) 서울시 여성특성 및 여건전망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요구 증가 및 수요 차별화

● 서울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 서울의 인구는 2008년 10,200,827명이며 이 중 여성이 5,139,018명, 남성이 5,061,809명으로 여성의 인구가 약간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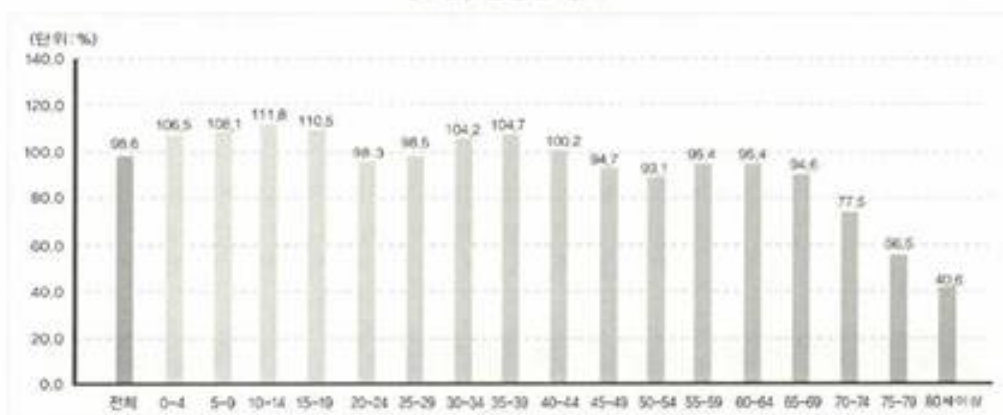
〈표〉서울시 성별 총 인구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5,089,178	5,098,476	5,104,852	5,119,059	5,129,522	5,139,018
남성	5,084,908	5,074,686	5,062,492	5,062,107	5,063,188	5,061,809

Source : 통계청(2003~2008), 「주민등록인구통계」

- 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성비는 2008년 서울시의 성비는 98.35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음. 연령별 성비를 살펴보면 저연령대에서는 남성인구, 고연령대에서는 여성인구가 많음

〔그림〕연령별 성비



Source : 서울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여성정책환경의 주요이슈

-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서울은 전국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2008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19이나 서울은 1.01로 부산 0.98 다음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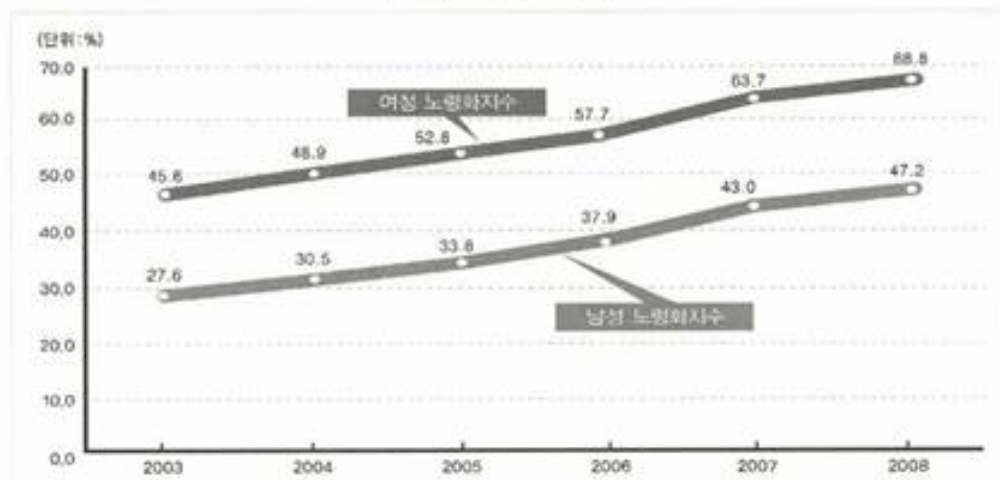
〈표〉합계출산율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1.18	1.15	1.08	1.12	1.25	1.19
서울특별시	1.00	1.00	0.92	0.97	1.06	1.01

Source : 통계청(2003~2008), 「사건구분 합계출산율」

-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8년 기준으로 57.6으로 서울은 노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음. 여성의 노령화지수는 68.8로 전년도 보다 5.1만큼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노령화지수는 47.2로 전년도보다 4.2만큼 증가하였음. 여성의 노령화지수는 남성보다 높고 증가 속도 또한 더 빠름

[그림] 성별 노령화지수



Source : 여성가족재단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필요

-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9년 50.0%로 2006년 52.7%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음. 전국평균 49.5%(2008)보다는 높으나 OECD 국가수준 61.4%(2008)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실정임
-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09년도 부산 45.7%, 대구 48.4%, 대전 46.2%, 울산 44.5%보다는 높으나 인천 50.6%보다는 낮음. 서울시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농촌지역을 제외한 시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높은 편임(통계청, 2009)
- OECD국가와 비교하면 서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0.0%는 OECD국가의 평균61.4%(200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세계의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교하면 한국보다 낮은국가는 터키(28.7%), 멕시코(43.4%) 등 2개국에 불과함

〈표〉경제활동참여율

시도별	성별	항목	2006	2007	2008	2009
서울시	계	15세이상 인구(천명)	8,163	8,212	8,280	8,342
		경제활동인구(천명)	5,172	5,182	5,091	5,095
		비경제활동인구(천명)	2,991	3,030	3,189	3,248
		경제활동참가율(%)	63.4	63.1	61.5	61.1
		실업률(%)	4.3	3.9	3.8	4.2
		고용률(%)	60.6	60.6	59.1	58.5
	남자	15세이상 인구(천명)	3,958	3,984	4,023	4,051
		경제활동인구(천명)	2,954	2,975	2,946	2,950
		비경제활동인구(천명)	1,004	1,009	1,078	1,102
		경제활동참가율(%)	74.6	74.7	73.2	72.8
		실업률(%)	4.9	4.2	4.6	4.7
		고용률(%)	71	71.6	69.9	69.4
	여자	15세이상 인구(천명)	4,205	4,228	4,257	4,291
		경제활동인구(천명)	2,218	2,207	2,145	2,145
		비경제활동인구(천명)	1,987	2,021	2,112	2,146
		경제활동참가율(%)	52.7	52.2	50.4	50.0
		실업률(%)	3.6	3.6	2.8	3.6
		고용률(%)	50.8	50.3	49	48.2

Source : 통계청(2006~2009), 「지역별 고용조사」
 주1)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주2)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 100
 주3)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표〉OECD주요국가 여성 경제활동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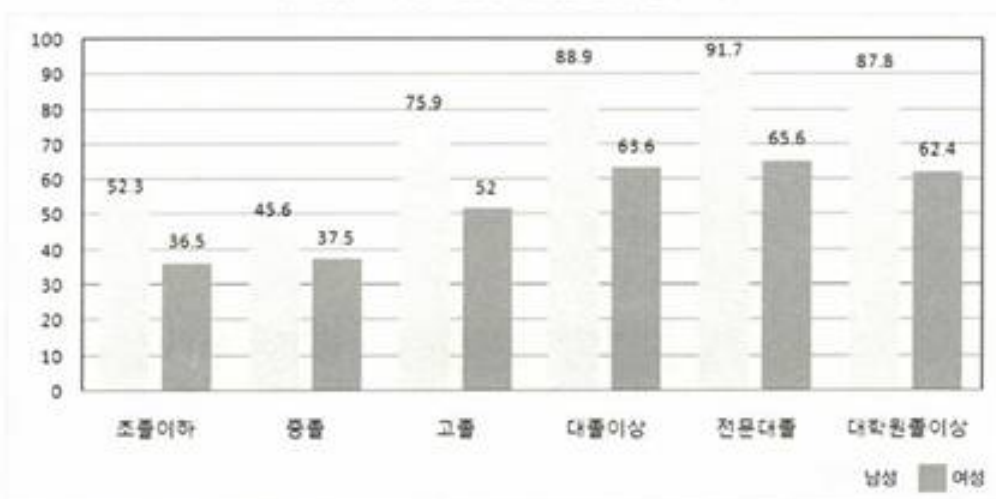
구분	2008	2005	2002
한국	54.7%	54.5%	53.5%
일본	62.2%	60.8%	59.7%
미국	69.3%	69.2%	70.1%
OECD평균	61.4%	60.4%	59.6%

Source : OECD(2008), 2008 Employment Outlook(여성부자료 재인용, 한국)

● 여성의 경제활동 수요 차별화

- 모든 교육정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낮으며 중졸의 학력에서 성별격차가 8.1%로 가장 낮으며, 전문대졸의 학력에서 성별격차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전문대졸이 65.6%로 가장 높고 초졸이하가 36.5%로 가장 낮음, 고등교육이상의 학력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82.5%(2006 기준)에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임(보건복지가족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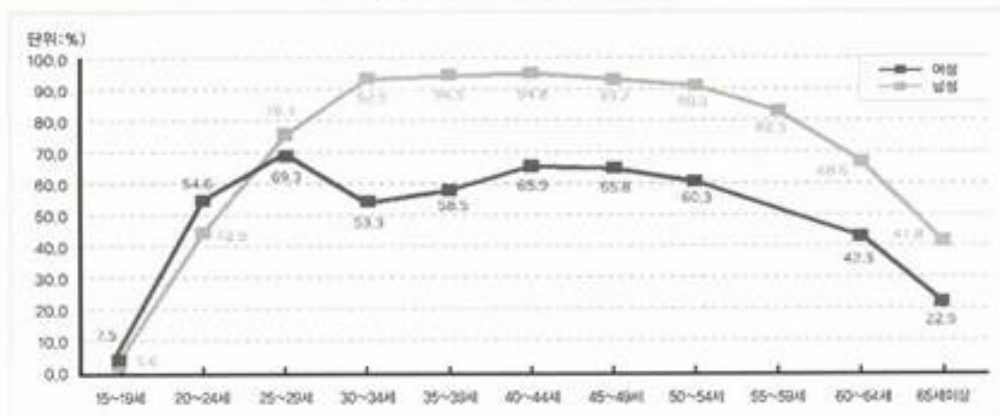
[그림] 교육정도별 경제활동 참가율(2009)



Source : 통계청(2009), 통계정보시스템(KOSIS)

-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경우 30~34세에서 53.3%로 하락하다 다시 완만히 상승하는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음.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자녀가 성장한 후 다시 40대에 경제활동에 재진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중년층의 경제활동의 참가율은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고용안정과 재취업의 가능성 및 인적자원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능력훈련을 제공하여 미래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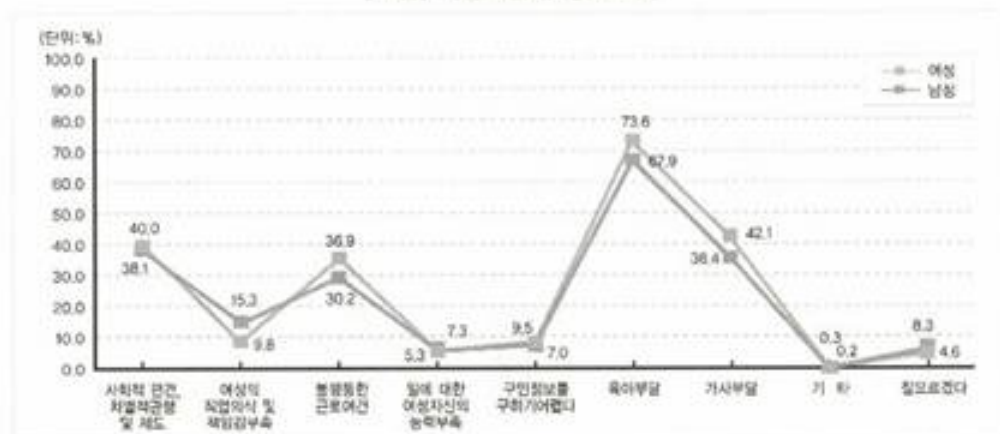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 일-가족 양립을 위한 보육수요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수요가 증가하면서 일-가족양립문제가 심화될 것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남녀 모두(남성 67.9%, 여성 73.6%)가 육아문제를 꼽고 있음.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가족 양립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이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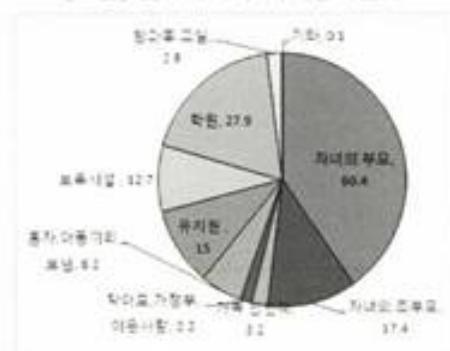
[그림]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시(2007)의 0~5세 보육대상의 아동수는 530,922명이며 이 중 여아는 257,080명, 남아는 273,842명으로 성비는 106.5일. 이 중 영아에 해당하는 0~1세의 아동수는 177,302명이고, 영아를 제외한 2~5세의 취학전 아동수는 353,620명이며 보육의 대상이 되는 6~11세의 아동수는 673,118명임(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9)
- 서울시의 만 10세 이하의 자녀양육실태(복수응답)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으며, 가족이 돌보는 경우까지 합한다면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81%임

[그림] 만10세이하 자녀양육실태



Source : 통계청(2005), 「사회통계조사」

-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음. 자녀 돌봄과 사회생활의 병행의 어려움이 두 번째의 응답으로 보육부담 및 돌봄의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의 요인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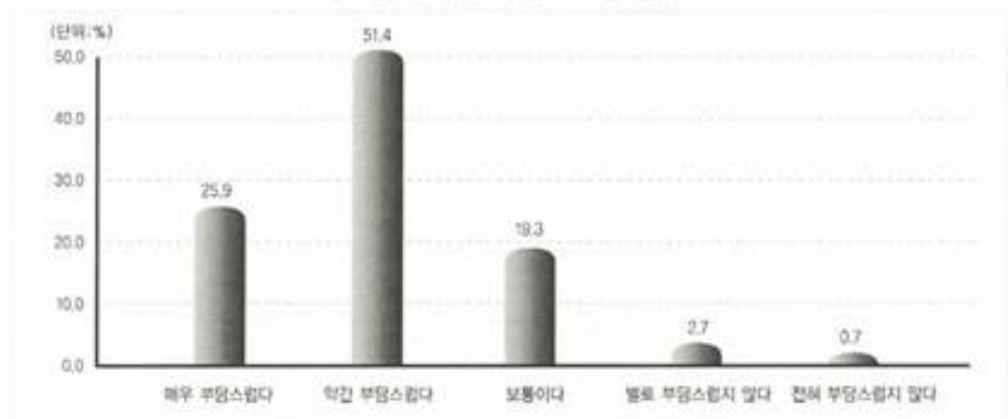
(표)자녀양육이 어려운 점(복수응답)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 부족	성적 또는 학습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교폭력 문제	정서, 행동지도의 어려움	방과후지도 등 자녀 돌봄과 사회 생활 병행의 어려움	기타
30 ~ 39 세	92.4	37.1	17.1	7.8	21.9	38.6	0.9
40 ~ 49 세	89.8	30.8	20.6	6.2	18.2	37.3	0.8
50 ~ 59 세	87.0	30.5	20.2	7.4	14.6	31.9	1.1
60 세 이 상	80.2	31.9	17.3	5.6	19.4	30.2	1.1
65 세 이 상	80.4	27.8	18.6	6.9	16.6	33.0	0.8

Source : 통계청(2007), 「사회통계조사」

-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확대될수록 보육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료의 지원 확대 및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민들의 보육료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5~39세 이하가 가장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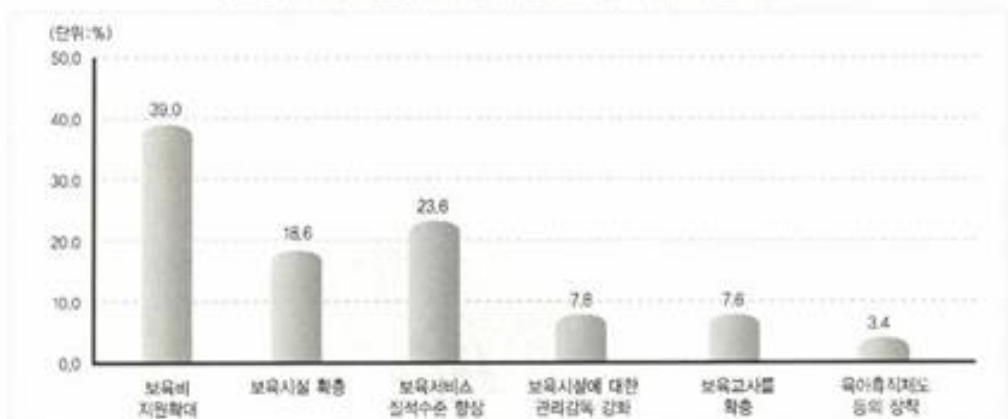
[그림] 보육료 부담에 대한 인식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지원확대(39%),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적수준향상(23.6%), 보육시설확충(18.6%)의 순이었음

[그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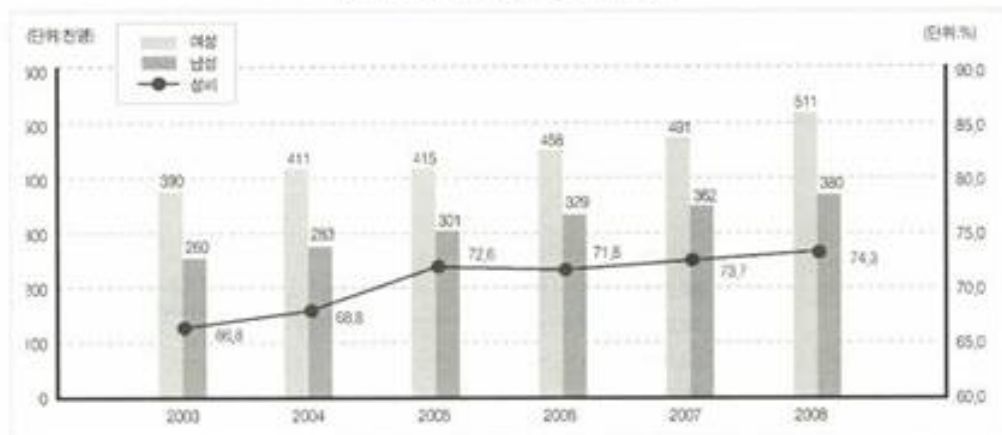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3) 여성 내 다양성 증가 및 양극화 심화

● 여성노인의 증가

-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890,052명중 여성인구는 510,534명, 남성인구는 379,518명으로 여성인구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9)
- 2003년 이후 고령인구의 성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74.3으로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보다 많음

[그림] 65세 이상 고령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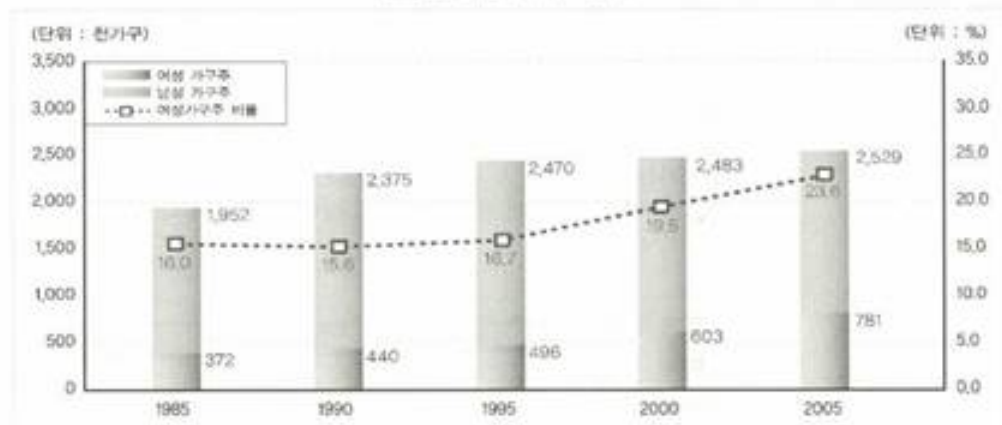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가구(여성 가구주)증가

- 서울의 2005년 총 가구수는 3,341,352가구이며 이 중 여성가구주의 가구는 780,573가구이며, 남성가구주 가구는 2,529,317가구임. 전체가구 중 여성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23.6%이며 2000년도에 비해 4.1%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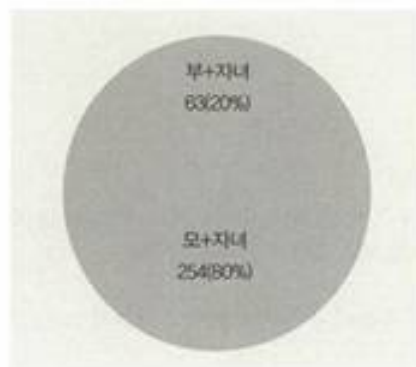
[그림] 여성가구주 비율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한부모가구는 317,607가구 중 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은 63,445가구이며,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54,162가구로서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가 전체의 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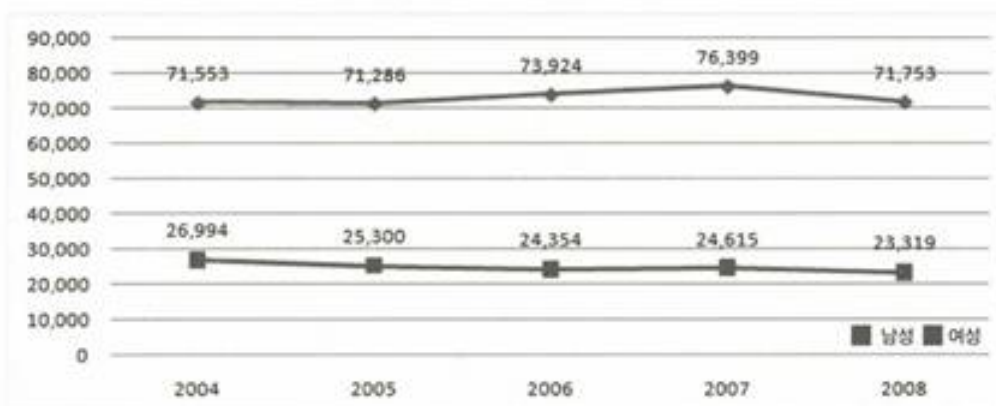
[그림] 한부모 가구 현황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시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여성가구주와 한부모가구는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구주와 한부모가구는 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여성가구주 및 한부모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함

[그림] 서울시 혼인수 및 이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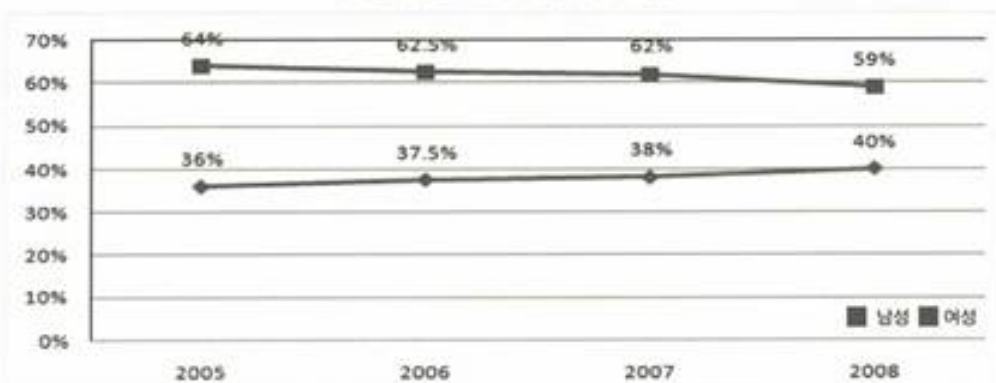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2009), 「인구통계 통계연보」

● 여성노인의 증가

- 서울시 여성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 107,007명에서 2008년 147,6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증가율을 보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출현비율이 높아지고 장애등록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임

증가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소득보장, 건강관리 강화,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그림] 서울시 성별 등록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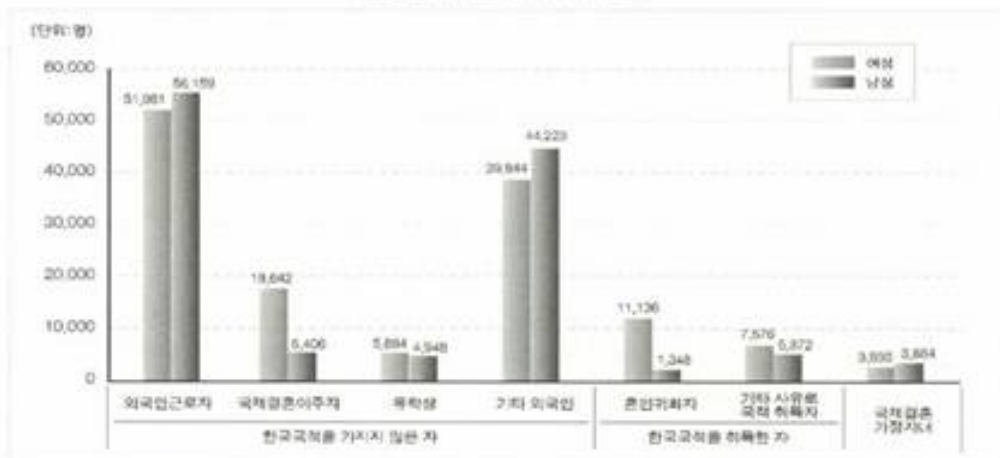


Source: 서울시(2009)

● 다문화가족의 증가

- 자본주의 질서의 확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증가 및 결혼이민자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가족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00,019명이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29.2%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108,140명으로 12.1%로 가장 많으며 기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외국인 및 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이 121,320명, 여성이 159,495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9)

[그림] 다문화가족 가구현황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여성노동가구, 한부모가구, 여성장애인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서울시의 소수자 여성의 증가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요가 예상되며 이들에 대해서 심인지적 접근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2) 패널 요구 분석

(1) 아동·청소년¹⁾

● 패널조사응답자 중 서울아동·청소년의 특징

- 아동·청소년 패널의 서울시 응답자의 특징은 성별은 여자 45%, 남자 55%로 남자의 비율이 높으며, 조사대상자는 모두 학생임

● 학업에 대한 높은 부담감

- 서울시의 아동·청소년은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8.2%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 35.56%가 그렇다고 응답,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문에 44.75%가 그렇다고 응답함. 이는 서울시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의 진로활동 필요

-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의 적성 및 소질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23%이며, 직업의 정보부족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1.79%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적성발굴 및 진로교육 및 활동이 필요함
- 장래희망을 결정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계기 없이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24.1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결정하였다는 응답은 20.24%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 교육 및 활동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들의 직업준비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수행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12%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진로 직업 활동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도우며 된 정도에 대해서는 전국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뢰도 있는 진로활동이 요청됨

1) 아동·청소년요구분석의 기초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널조사 2차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조사는 전국 아동·청소년 9~24세 2,844명 중 서울시 아동·청소년 413명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

● 패널조사응답자 중 서울 아동·청소년의 특징

-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의 적성 및 소질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23%이며, 직업의 정보 부족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1.79%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적성발굴 및 진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함
- 장래희망을 결정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계기 없이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24.1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영향으로 결정하였다는 응답은 20.24%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활동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들의 직업준비와 관련하여 직업훈련 수행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12%에 불과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진로 직업 활동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도우며 된 정도에 대해서는 전국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신뢰도 있는 진로활동이 요청됨

● 올바른 인터넷활용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컴퓨터 이용시간은 1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35.9%, 2시간 23.3%, 3시간 13.8%이며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7.5%임. 특히 평균 4시간 이상 컴퓨터 사용을 하는 아동·청소년은 컴퓨터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도·교육이 필요함
-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허위로 인터넷 게시판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험,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사용 경험 '있다'가 각 3.2%, 6.1%를 차지함. 같은 맥락에서 지난 1년간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한 경험, 성이나 나이 속이기 여부에 대해서는 23%, 18%가 있다고 응답함.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활용을 적절하지 못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올바른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자아형성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 요구

- 아동·청소년의 자아관과 관련하여 스스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률은 35.6%인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은 15.3%로 나타남. 또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응답은 34.2%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청소년은 약 1/3에 이른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도 15%이상을 넘고 있음
- 자아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9%로 나타남. 또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응답자가 14.8%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한 자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보임. 건전한 자아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특히 지역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2) 여성·가족

● 패널조사응답자 중 서울여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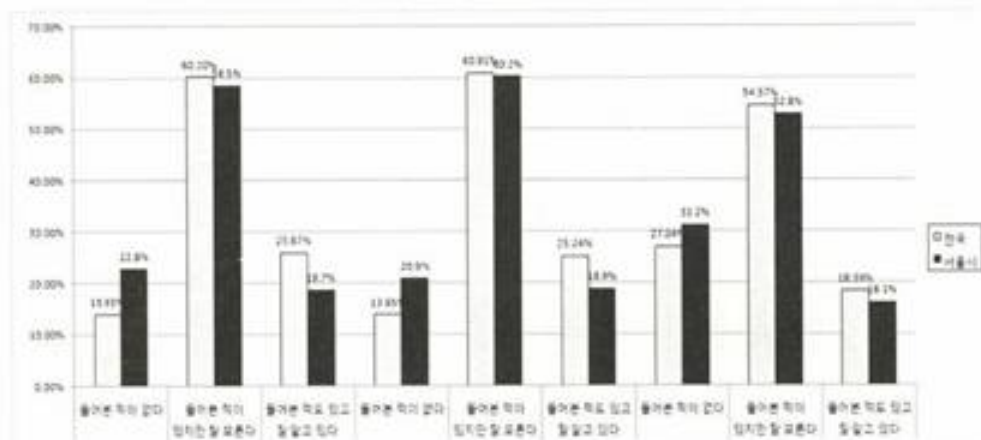
- 서울시는 20대 여성의 인구비율(26.7%)이 전국(23.6%)보다 높고,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여성의 인구비율(36.4%)이 전국(27.6%)보다 높으며, 미혼여성의 인구비율(25%)이 전국(19.1%)보다 높고, 여성가구주의 비율(18.7%)이 전국(13.3%)보다 높음

2) 여성과 가족현황에 대한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패널조사 2차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조사는 19세~64세 의 전국여성 10,013명, 서울시 여성 1,126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모성보호제도의 인식확산 필요

- 서울시 여성은 직장 내의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도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전국보다 낮음. 육아휴직의 경우 18.9%(전국 25.2%), 산전·후휴가 18.7%(전국 25.9%), 부성휴가 16.1%(전국 18.4%)만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제도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조사시점에서부터 지난 1년간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대상자 중 40.7%가 산전후 휴가를 신청했으며, 육아휴직은 22.2%만이 신청을 했다고 응답함

[그림] 모성보호제도 인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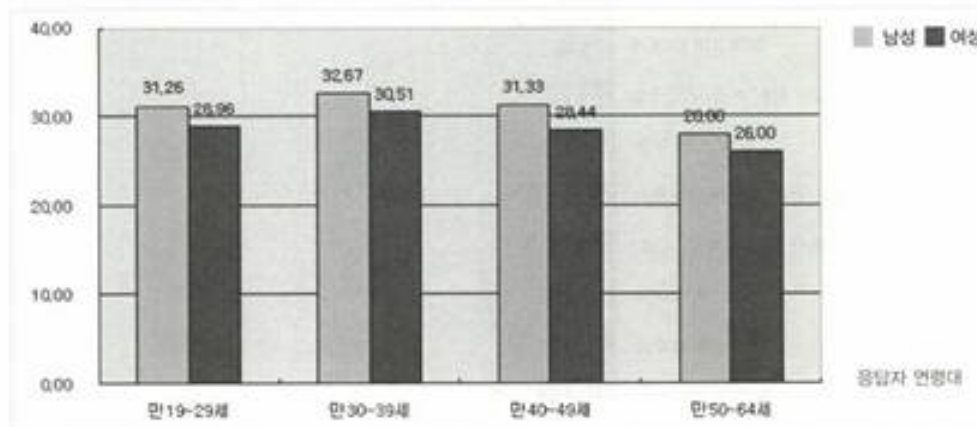


Sourc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2009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 서울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낮아짐.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20대 81.6%, 30대 68.8%, 40대 51.0%임. 결혼적령연령은 여성 29.24세, 남성 31.53세로 응답하여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 29.30세, 남성 31.72세임
-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적령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결혼의 만혼화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결혼적령연령



● 여성과 남성의 가정 내의 노동 분담의 평등화 필요

- 가정 안에서 평일 남성의 가사노동평균시간은 20.4분(전국 22.3분)이고 여성은 248.3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1배나 높음. 또한 남성들은 평일에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2%로 나타남

-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186.9분, 남성은 18.8분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 일은 여성이 책임지고 있음

〈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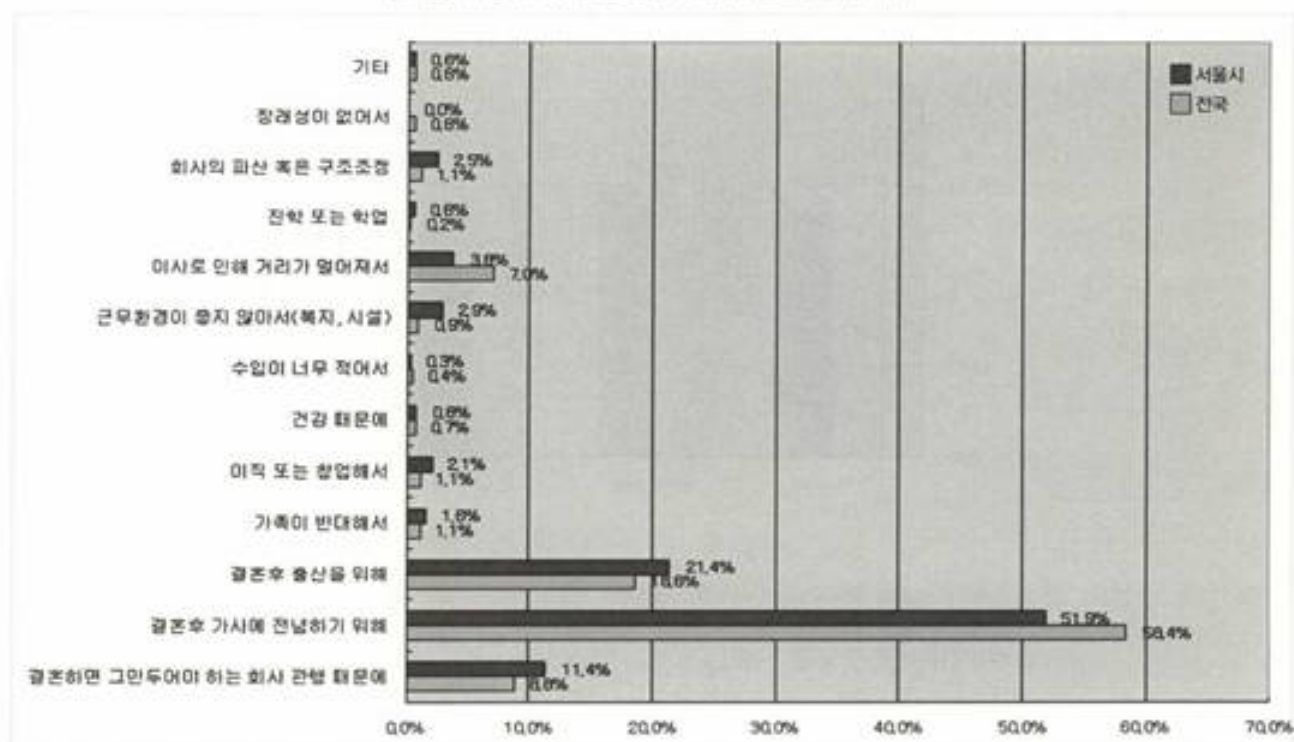
평일	본인			남편		
	빈도	비율(%)	가중치(%)	빈도	비율(%)	가중치(%)
전혀 하지 않음	32	3.6	3.9	550	68.8	70.2
4시간 미만	465	52.2	54.0	242	30.3	29.0
4~8시간 미만	242	27.2	26.9	7	0.9	0.8
8~12시간 미만	62	7.0	6.3	0	0.0	0.0
12시간 이상	89	10.0	8.9	0	0.0	0.0
계	890	100.0	100.0	799	100.0	100.0
평균(분)		289.97			20.40	

-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높음. 자녀 돌봄과 사회 생활의 병행의 어려움이 두번째의 응답으로 보육 부담 및 돌봄의 부담이 여성의 경력단절의 요인이 되고 있음

●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성의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결혼 이후에 하던 일을 그만둔 비율이 24.0%,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하던 일을 그만 둔 비율은 8.7%로 나타남
- 첫 결혼 후에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51.9%, '결혼 후 출산을 위해서' 21.4%, '결혼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회사관행 때문에' 11.4%로 나타남. 또한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자녀양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56.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9.3%로 나타남. 이는 여전히 가사 및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함
- 서울시 비취업 여성의 선호 근로형태는 62.3%가 전일제 근로이며, 37.7%가 시간제 근로로 나타나는데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이유는 40%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이며, 20%는 가사일 때문으로 나타남

[그림] 여성이 첫 결혼 전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3.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환경 분석

3-3 SWOT 분석

● 기존 여성·가족정책 추진상의 외부 환경 및 내부 추진체계 평가

○ 외부환경 특성

- 여성부 축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집행력 강화, 다수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으로의 요구 변화, 양성평등 의식 및 가족문화 확산과 여성복지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집단의 다양화로 인한 정책의 다양화 및 복잡화 추세
- 정부의 기초가 상용성, 작은정부를 추구, 단기 과제 위주의 이행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적 관점 및 제도적 체계화 기반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맞춤보육에 대한 지원 요구 및 사회 약자 계층 배려 요구 확대

○ 내부추진체계 특성

- 시장 방향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시 및 자치단체장의 지지, 자치구 등과의 정책 연계 추진체계 강화, 활발한 정책 홍보, '여성친화도시' 외래에 대한 국제적 선점 및 네트워크 교두보 확보 등
- 종합분야의 자문그룹의 용립 부족, 정책추진의 포괄적·장기적 시각 부족, 자치구 실무공무원의 역량 부족, 일반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한계 등

● 향후 여성·가족정책 환경의 기회-위협 요인 및 강-약점 분석

- 서울시의 향후 여성·가족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환경의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 및 서울시의 행정 추진체계상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기회 요인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녹색생활, 빈곤해소 등 21세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녹색건강과 환경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맞벌이가구 증가와 지역사회와 공동체 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을 개정 및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을 제정, 다문화 사회로의 이동, 아동·청소년 안전과 건강의 정책이슈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위협 요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여성경력단절과 일자리 저평가가 심각한 수준이고, 성인지 정책 체감도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수자 여성을 정책대상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의 심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저조, 가족친화 경영에 대한 기업참여 저조의 현상이 문제되고 있음

강점 요인

서울시 내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확대 의지가 크며, 우수한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가 정착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정책의 국내외 주도력이 형성되고 있음. 또한 '여형 프로젝트'를 통한 여성친화적 도시 설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약점 요인

여성정책에 비해 가족정책의 방향성이 다소 모호하며, 성주류화 정책의 추진이 소극적인 한편, 각종 정책 대상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취약계층 위주이며 아동·청소년 정책 역시 소외 집단 위주임. 또한 건강 증진 인프라가 취약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동화주의적·신가족중심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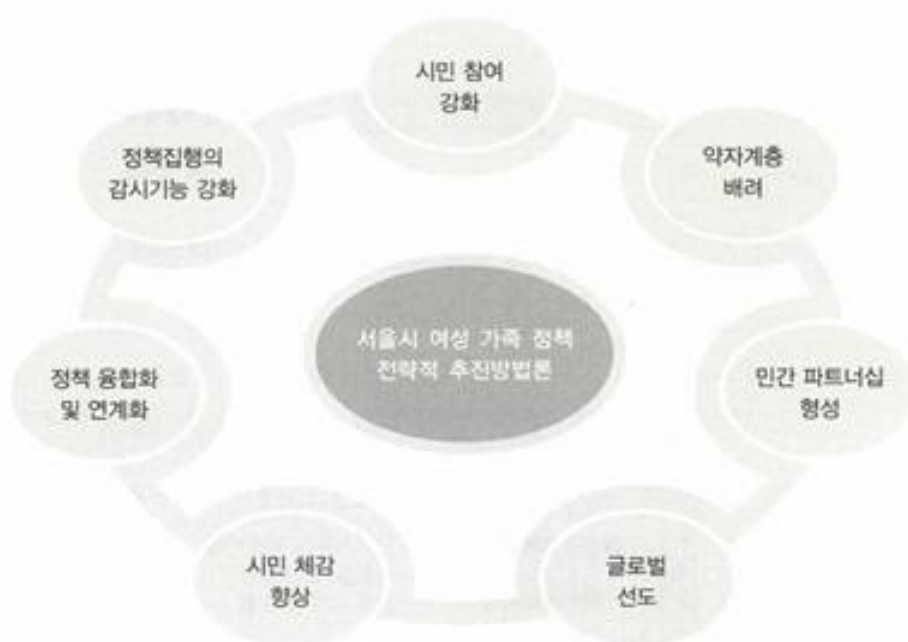
		강점	약점
		S1. 보육정책 확대 의지 S2. 우수한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S3. 여성친화도시정책 국내 외 주도 S4. 여성친화적 도시설계 노력 S5. (여성)시민사회 정책참여	W1. 가족정책 방향성 모호 W2. 저소득·취약계층 위주의 한정적 저출산 정책 W3. 성주류화정책 소극적 추진 W4. 건강증진인프라 취약 W5. 동화주의적·신가족중심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W6. 소외아동·청소년 중심 정책
기회	O1. 기후변화와 녹색생활실천, 빈곤 등 21C 글로벌이슈에 여성역할 강조 O2. 녹색(건강과 환경)정책 필요성 대두 O3. 맞벌이가구 증가 O4. 지역사회와 공동체 강조 O5.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 개정 및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 관한법률 제정 O6. 다문화사회로의 이동 O7. 아동·청소년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정책이슈 등장	강점-기회 전략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강점을 이용	약점-기회 전략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회를 창출
		SO1. 녹색(건강과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 SO2. 지역환경개선에 가족과 여성참여 증대 SO3.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 서비스 강화 SO4. 친환경녹색도시	WO1.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WO2. 건강증진인프라 구축 WO3.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위협	T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자리 T2. 여성경력단절 및 일자리 저평가 심각 T3. 성인지 정책 체감도 제고 요구 T4. 다양한 소수자 여성을 정책 대상화 T5. 저출산현상 심화 T6.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율 저조 T7.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참여 저조	강점-위협 전략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	약점-위협 전략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
		ST1. 도시안전성 제고 ST2. 여성인력개발 ST3. 여성경제활동참여 증진	WT1. 성주류화 관련 제도 안착 WT2.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WT3. 일-가족양립 사회문화 조성

○ 향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전략적 방향성

- 먼저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외적으로는 세계 대도시 여성가족정책의 이슈와 방향, 중앙정부 정책 변화와 시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면서 민선4기의 우수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정책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점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고 민선 4기와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요구됨. 또한 대내적으로는 정책 입안과 추진체계의 역량을 보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함
- 여성가족 전문가와 연구기관 뿐 아니라 행정·도시설계·법률·의료·문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확보, 활용하고 각종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협력과 관여를 높여 정책 추진 상의 전문성과 논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고 협력하며 세계 도시에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례의 발굴과 제시를 통해 '여성·가족 정책에서 선진적인 서울시정'의 지속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요구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반영하는 전문 채널과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함
-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강점-기회 전략: 녹색(건강과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의 강화, 지역환경개선에 가족과 여성 참여 증대, 보육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
- 약점-기회 전략: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건강 증진 인프라의 구축,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등
- 강점-위협 전략: 도시안전성 제고, 여성인력개발, 여성경제활동 참여증진 등
- 약점-위협 전략: 상주류와 관련 제도 안착,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일-가족 양립 사회문화조성 등

● 향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전략적 추진 방법론



○ 시민 참여 강화

- 민선4기 여행 프로젝트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자치구 시민들로 행정된 여행 포럼단 운영 등 시민 참여형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시민을 정책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동시 가능하게 함. 그러나 선진국형 열린 행정의 수준으로 이르기에는 역부족한 면이 많았음
-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시민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개최, 시민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시민추진위원회, 시민활동단, 시민감리단 등의 가동을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 정책 집행의 감시기능 강화

- 새로운 정책이 매년 도출되고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정책과 제도가 수립 시의 의도와 목적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강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시책성 사업의 경우 당국에서 의도한 방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전신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시장은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못지않게 그 정상 이행 여부와 정책효과성에 대해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정책개발에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정착에 이르게 하는 관리계획이 중요함
- 감시를 위해 평가만 하는 것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역기능을 낳을 수도 있으므로 정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교육, 사례 공유, 컨설팅 등 지원체계의 가동이 요구됨

[2009년 현재 서울시여성정책관 산하기관의 평가 업무]



[여성가족 주요 영역별 평가·지원 체계 구상]

	지표개발 및 평가	세미나/워크샵	우수사례공유	컨설팅(외부전문가)
여 성	여성발전기금	여성단체 대상 워크샵 (회계 등)	시설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진행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진행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시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실무 워크샵 진행		
	여성복지시설			
아 동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설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등 교류사업 진행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진행
	아동복지시설			
저 출 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의 수요파악 후 교육연수원에서 신규 교육사업 개발	우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운영 매뉴얼 진행	경영컨설팅진단단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수행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건강지원센터			
노 인	치매센터			
청 소 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쉼터 및 공부방			

○ 소외계층 배려

- 민선 4기 정책에 대한 일부 평가 중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 방전의 이면에 경제 능력 부족, 가족 해체, 범죄 피해, 집단 이기심, 국제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의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여성 비정규직, 저소득층 문제, 장애 여성 등 심빈곤층 문제와 성폭력방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강력 성범죄 증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적 보완 등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개인, 지역,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사회적 약자와 소수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 배분 및 효율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나 정책의 대상과 내용의 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권리 배려는 선진사회의 책도임을 감안하여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 정책 융합화 및 연계화

- 다른 어떤 분야보다 여성과 가족 분야는 시민 생활의 종합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다양한 타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됨. 경제·문화·교육·복지정책 분야와 공동 정책개발 및 집행, 자원 확보 등이 그것임
- 여성부나 보건복지가족부 이외 정부 중앙부처나 지자체, 서울시 내부의 타실국 등과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함

○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 최근 기업은 사회공헌의 수준을 상당히 높여나가고 있음. 기업 자원은 기술과 자본, 속도 차원에서 우수하여 정책과 적절히 결합될 경우 상당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음. 다만, 효율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영향력도 크므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더 유익하고 풍부한 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
- 분할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의 후원 감소, 정부 지원금의 축소 및 지급자격 강화로³⁾ 여성단체들이 사업 축소와 그로 인한 사회적 기능 위축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NGO의 거버넌스 체계 붕괴도 가능함⁴⁾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협력사업 마련으로 활로 모색이 필요함

○ 시민 제감 지수 향상

-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제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시민이 효용해 주지 않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중요함
- 정책의 개발단계, 추진과정단계, 평가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분석과 반응 분석을 과학적으로 실시해야 함. 시민들이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알고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여론 조사와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추진정책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이해도 제고, 사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선도 및 특성화

- 민선 4기 '여령프로젝트'는 도시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허브도시로서의 서울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s)의 공유와 벤치마킹 등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증대됨
- 향후 국제도시 네트워크 정책 및 추진 노하우를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한편, 국제도시 네트워크 수준을 긴밀히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등 국제 협력의 내실을 꾀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 대도시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저출산·노령화, 건강과 휴식 질의 제고, 하수도수와 관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정책과 사업의 개발에 민간부문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3) 2008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첫째, 3년 이상 연속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민간단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중단, 식감 결정, 둘째, 현재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는 2009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2008~2010) 의무 제출이 결정되었으며, 2009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사위, 집회 참여 시민단체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결정됨.

4) '여성부 축소에 따른 여성단체의 정부지원 감소 현황', 여성신문 (2009. 4.15)

4.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방향과
전략

4-1 정책기본방향

4.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전략

4-1 정책 기본 방향

비 전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



| 새로운 정책 시스템 |

전 략

성장하는 시민
(Growth)

건강한 공동체
(Well-being)

균형적인 사회
(Balance)

핵심가치

자원, 성장, 희망

핵심인재양성
미래의 투자
성장의 기반

건강, 녹색, 안전

건강한 삶
녹색환경
안전한 공간

조화, 참여, 공존

일과 가정의 양립
역동적 거버넌스
다양성의 공존

20대
중점과제

- ① 5대 권역 서울여성 경력지원벨트 구축
- ② 지역사회 열린 배움터 만들기
- ③ 서울형 청소년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젝트
- ④ 서울형 양육환경표준화 프로젝트
- ⑤ 서울 희망동이 갖기 프로젝트
- ⑥ 두드림 프로젝트 :아동수당
- ⑦ 청소년 진로지도시스템 구축

- ① 여성정신건강 SOS 프로젝트
- ② 서울여성녹색연대 프로젝트
- ③ 지역사회 「푸른나무 가꾸기」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프로젝트
- ④ 친환경서울형어린이집
- ⑤ 새로운 가족 프로젝트
- ⑥ 장애여성건강증진 프로젝트
- ⑦ 서울여성가족정책통 합품질 관리체계구축

- ① 서울 젠(GEM)센터
- ② 서울 워킹맘 지원 프로젝트
- ③ 가족지역 해피 투게더 프로젝트
- ④ 대디 앤 홈퍼니 행복 쑥쑥 프로젝트
- ⑤ 모자이크 프로젝트
- ⑥ 여성친화도시 국제협력 네트워크강화

66개
단위사업

서울시 경력 개발 평가 센터 신설 등 27개 단위 사업

여성우울증 및 정신건강 자기진단 Kit개발 등 16개 단위사업

워킹맘 온라인 정보 시스템 구축 등 23개 단위사업

● 비전 : 여성·가족친화도시 서울

- 그간 서울시에서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이 도시정책의 모든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제도과 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작용했으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
- 또한 서울시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관행이 극복되고 도시발전의 주체로 인식되면서 주요정책의 추진체계와 구조, 내용이 성별 요구에 민감한 추세로 전환
- 또한 도시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가족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이 요청됨에 따라, 이제 여성가족친화도시환경조성은 서울시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게 됨
- 2010년대 서울시는 서울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와 가족을 이루는 시민들의 꿈과 희망, 화합을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면서, 가족구성원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도록 하는 토발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장(Growth), 웰빙(well-being), 균형(balance)의 가치

- 이제까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은 태동과 발전의 역사를 각기 달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옴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인류건강의 위협 중대 등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은 공통의 지향과 함께 긴밀한 유대를 통한 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해야 함
-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의 핵심기조를 관통하는 가치는 '성장(growth)', '웰빙(well-being)', '균형(balance)' 임

● 성장(Growth) :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가치로서의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성장

- 여성인력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적 주체로서, 여성인력의 성장은 서울시 정책의 중점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 우리 사회가 향후 3만불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이고, 생산성 제고는 숙련된 인력의 투입을 기점으로 함
 - 향후 경제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생애주기별 사건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과 이탈 이후 노동시장 복귀의 어려움 등은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 되어 있었음, 이러한 지표는 자연증가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서울시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성별분업구조를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의 성장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됨
 -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아동 정책은 참여적 행태를 벗어나 아동의 인권과 권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함
 - 청소년 정책은 보편적인 활동정책에서 출발하였으나,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통합하여 지나치게 보편적인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 집중
 - 현재는 이와 같이 정책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동일한 법적 기반을 갖고 동일추진체계로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

- 따라서 향후 통합된 아동·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목적을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목표인 미래세대 성장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지원 체계의 새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즉, 새로운 아동·청소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이념은 “아동·청소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가족의 양적성장, 즉 출산율 제고가 전제되어야 함

- 저출산 현상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그 사회의 성장률을 침식시키는 원인이 됨
- 새로운 생산인구를 출산하는 것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성장을 건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족정책의 방향은 단기적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출산·육아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함
-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료·교육비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선진형 저출산 극복책을 마련해야 함 것임

● 웰빙(Well-being) : 새로운 시대 가치로서의 녹색환경과 건강, 복지

○ 웰빙트렌드(Well-being trend)는 물질문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건강, 장수 등에 대한 인류의 소망은 영원한 것으로 이를 지향하는 웰빙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기 쉬운 속성을 지님
- 특히,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웰빙트렌드는 더욱 확산될 것임
- 환경오염의 심화, 질병의 발생,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패턴은 점차 보편화되고, 웰빙이 내포하고 있는 친환경, 친환경의 가치개념은 지속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웰빙도시와 웰빙소사이터로 빠르게 이동 중임

- 웰빙도시란 현재 많은 도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태도시개념을 뛰어 넘어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
- 서울시는 도시 건설의 지향을 친환경성에 두고, 녹지 등 생태적 개념들을 인프라로 이해하고 건강효과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토지이용 및 도시건축 등에 적용하고 있음
- 웰빙소사이터란 개인의 행복추구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즉, 사회봉사, 사회적책임 등 정신적 측면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임
- 서울시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 시민의참여와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는 웰빙소사이터로 빠르게 이동 중임

○ 고령화 시대, 사회적관심과 핵심적 가치는 웰빙으로 집중될 것임

- 우리나라는 2028년경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됨
- 고령화시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웰빙’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대변하는 가치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반면 경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음)

○ 웰빙의 기본 가치인 친환경성, 친건강성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논의의 중심 가치로 대두됨

-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구에서의 웰빙의 역사는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함
-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노인인구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여성건강증진은 여성정책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대두됨
- 또한 여성고용률제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은 미래사회 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

○ 개인적 웰빙 중심에서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웰빙의 중요성 강조

- 우리 사회에서의 ‘웰빙’ 담론은 복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웰빙을 추구하기 위한 소비적 관점에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향후에는 서구와 일본 등 앞서 웰빙 담론이 형성된 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개념에서 사회전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임

● 균형(Balance) :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균형과 공존

-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할 균형,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포함한 전반적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 증가
 - 맞벌이 가구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가구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과 남성의 역할 균형이 언급됨
 -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개인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다양한, 따라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서 다양성이 동등한 가치로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
 - 다문화사회 활성화가 글로벌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원동력임
 - 세계주요도시들은 다문화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음
 - 서울은 외국이주민을 국내로 받아들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문화가 동등한 가치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서울의 외국인 인구는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인 100만명 정도로 본격적인 다문화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향후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배려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기초 전환이 요구됨

5.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전략과제

5-1 성장하는 시민(Growth)
5-2 건강한 공동체(Well-being)
5-3 균형적인 사회(Balance)

5.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5-1 Growth

● 7대 중점과제

전략	정책대상	영역	정책 과제	단위사업
Growth	여성	핵심인재 양성	5대 권역 서울여성 경력지원벨트 구축	서울시 여성경력개발평가센터 신설 권역별 1개소 여성경력개발센터 설치 권역내 여성경력개발특성화센터 설치 전문직 여성 취업특화 '서울여성인재센터' 신설
	아동 청소년	미래의 투자	지역사회 열린배움터 만들기	「서울형 어린이체험센터」 설치 「창의체험센터」 설치·운영 「창의체험지도 전문인력」 양성·배치
	아동 청소년	미래의 투자	서울형 청소년 글로벌리더육성 프로젝트	「청소년특별원탁회의」 정기 추진 「글로벌 청소년봉사단」 발족 및 봉사활동 추진 「서울청소년카드제」 실시
	보육	성장의 기반	서울형 양육환경표준화 프로젝트	서울형 표준 양육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운영
	저출산	성장의 기반	서울 희망동이 갖기 프로젝트	「만혼부부·불임부부 임신출산지원 사업」 실시 「빠른 출산우대제」 추진
	보육	성장의 기반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아동수당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아동수당
	아동 청소년	미래의 투자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구축	전문계 고교 청소년인턴십 및 취업연계지원사업 청소년 창업지원사업 청소년 고용종합시스템 「꿈꾸는 학교」

● 단위사업

전략	영역	정책대상	단위사업
Growth	핵심 인재 양성	여성	서울시 여성경력개발평가센터 산설 권역별 1개소 여성경력개발센터 설치 권역내 여성경력개발특성화센터 설치 전문직 여성 취업특화 '서울여성인재센터' 신설 세계환경도시 파견 청년여성인턴제도 서울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여성공무원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미래의 투자	아동 청소년	「서울형 어린이체험센터」 설치 「창의체험센터」 설치·운영 「창의체험지도 전문인력」 양성·배치 「청소년특별원탁회의」 정기추진 「글로벌 청소년봉사단」 발족 및 봉사활동 추진 「서울청소년카드제」 실시 전문계 고교 청소년 인턴십 및 취업연계지원사업 청소년 창업지원사업 청소년 고용종합시스템 「꿈꾸는 학교」
	성장의 기반	보육	서울형 표준 양육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운영 권역별 거점 어린이집 운영 「지역 아동 보육지원단」 구성·운영 온라인 전문가멘토링 육아사랑방 구성·운영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아동수당
		저출산	「만혼부부·불임부부 임신출산지원 사업」 실시 「빠른 출산 우대제」 추진 미혼남녀 '우리결혼합시다'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서울
		가족	희망나눔가족 프로젝트 (입양·위탁가족지원)

5대 권역 서울여성 경력지원벨트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 특성화 방안 연구」(2009)는 제3차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산업구조를 다음과 같이 5개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있음

〈표〉 권역별 해당 자치구 분포 및 특화산업

권역구분	해당 자치구	특화산업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특수인쇄, 출판, 홍보물 제작, 금융 및 보험업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중랑구	의료패션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사업서비스업,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자정보기기

자료: 조연숙 외(2009), 서울시 지역(권역)별 여성인력개발특성화 방안 연구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2007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5대 권역별 학력분포를 보면 동남권역은 대졸이상의 여성인적자원의 고학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표〉 권역별 여성인적자원 학력분포

(단위명, %)

구분	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학이상
전체	4,660,085	19.4	11.2	32.3	36.1
도심권	444,285	21.2	13.2	31.0	34.6
동북권	1,173,510	21.4	14.8	34.8	30.1
동남권	1,075,053	16.2	10.1	29.1	44.7
서북권	1,038,334	20.1	12.1	33.2	34.8
서남권	925,903	19.9	13.0	32.9	34.1

자료: 통계청(2005), 인구주택 총조사(통보고서 199-230)

* 서울시 여성인구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여성은 높은 수준의 경력개발을 원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욕구가 높은 것이 특징

2) 추진방향

- 현행 서울여성의 경력발전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향 마련
- 5대 권역의 여성인력 요구도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자 밀착 취업정보 제공
- 특히 고학력 서울여성의 직업세계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직종개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전담하는 센터 설치

3) 사업내용

1 서울시 여성경력개발 평가센터 설치(2011~)

● 사업개요

- 동 센터는 경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교육훈련기관(사회교육기관 등 포함)의 주요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관련 DB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기능을 수행

● 추진단계

- 1차적으로 서울시의 '서울여성능력개발원' 이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조정·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부설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후 5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평가센터 설치 검토

〈표〉 서울시 권역별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

권역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기타 자치구 소속
총계	5	15	34
도심권		종로센터 용산센터	봉제여성지원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중구여성회관 용산문화회관 성북여성회관, 성북여성교실
동북권		서초센터 송파센터	서초여성회관, 문화센터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송파구 문화회관 외 3개소 구민회관 외 4개소
동남권	여성능력개발원(광진구) 북부발전센터(노원구)	강북센터 노원센터 동대문센터 중랑센터 구로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건강지원센터(광진구)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노원구) 도봉여성센터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서북권	남부발전센터(금천구)	구로센터 금천센터 동작센터 관악센터	구로문화원 금천문화원, 여성교실, 실구여성회 영등포문화원 관악여성교실, 신림여성교실
서남권	중부발전센터(마포구) 서부발전센터(양천구)	은평센터 마포/신촌센터 강서센터	여성복지센터 여성자원금고 여성교실

자료: 동보고서 87쪽

2 권역별 1개소 여성경력개발센터 설치(2012~)

● 사업개요

- 현재 권역별로 설치되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서, 남, 북, 중부의 4개 여성발전센터(동남권은 없음)는 전문직업 교육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비중이 약 70%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교육훈련 이전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강화 프로그램 및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이들 기관의 명칭을 여성경력개발센터로 변경하고 초기단계의 의식훈련부터 취업, 창업 시작단계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수요자 위주의 정보제공 등에 주력할 필요

〈그림〉 (가칭) 경력개발센터 주요기능



3 권역내 여성경력개발 특성화 센터 설치(2012~)

● 사업개요

- 서울시 소재 현행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문직종 훈련기능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특성 및 지역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훈련센터로 육성하는 사업임. 특히 권역별로 고령여성, 재직여성, 장애인여성 등 대상별 특화훈련프로그램 실시모색 함

4 전문직 여성 취업특화 '서울여성 인재센터' 신설

● 사업개요

- 현재 전국 20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커리어 개발 관련 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 고학력여성 직업 기능 강화
 -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여성 인재 육성사업을 전문대학과 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추진

● 주요 기능

- 과거 전문직 취업경험자, 재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1:1 취업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지역 특화 직종 취업 지원 및 전문직종 및 남성집중 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 지원
- 특화직종 및 전문직종별 '일자리 협력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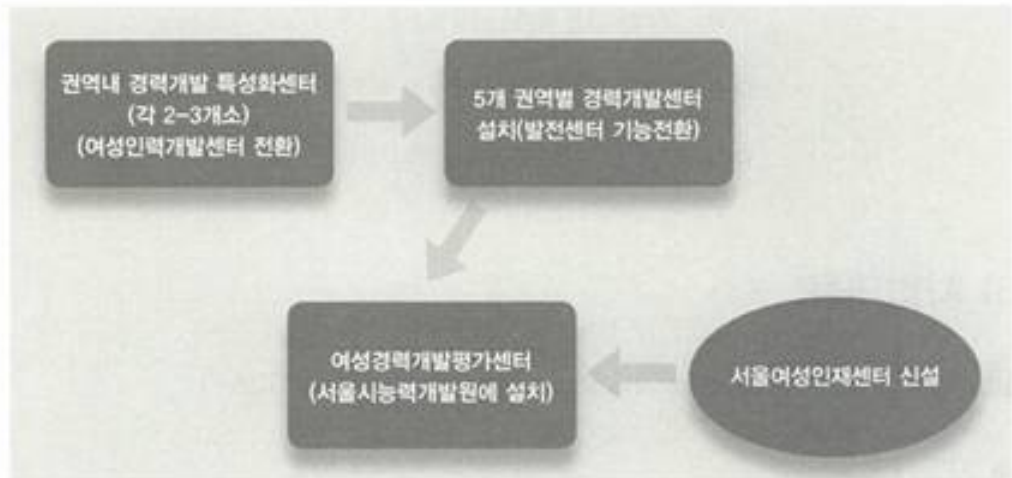
〈가정〉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여성인재센터를 설치하면?

- 도시연구 특성화 대학인 시립대학교의 성격을 반영하여 〈가정〉서울시 전략산업 여성과정, 여성친화도시 디자인 전문가 과정, 여성친화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가 과정 등을 개설할 수 있음
- 직업, 직종별 커리어 상담을 제공하고 서울시 다른 권역의 여성능력개발기관과의 협력망도 구축할 수 있음



4) 추진체계

〈그림〉 권역별 서울여성 경력개발 지원벨트 모형



지역사회 열린배움터 만들기

1) 현황 및 필요성

-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9, 1) 결과에 따르면, 6-8세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87.8%, 취미와 기능교실에 대한 요구는 90.1%으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6-8세 아동들은 다양한 문화활동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통계청(2008)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고민상담 대상은 친구가 53.6%, 부모가 21.9%로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고민상담 및 대화시간이 낮은 수준이며,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 및 부모와 자녀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장소의 신설과 확충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지역사회 시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아동·청소년 전용 창의·체험학습공간 확보
- 학교 창의·체험활동의 모델개발 및 확산
- 학교에 창의·체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배치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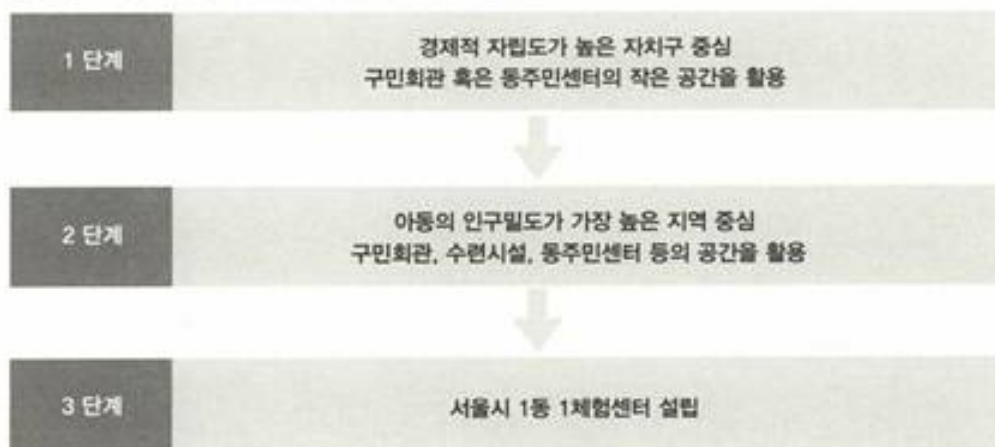
1 「서울형 어린이체험센터(Children's Museum)」 설치 (2011~)

● 사업개요

- 서울형 어린이체험센터는 아동과 부모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활동, 과학활동, 미술활동, 동화구연, 블록 등 놀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1동 1체험센터 설치 운영

● 추진단계

- 단계별로 서울시에 동마다 시립 어린이체험센터 설립



2 「창의·체험센터」 설치·운영 (2011~)

● 사업개요

- 청소년 창의·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조성 및 창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주요업무

- ① 창의·체험활동 장소 개발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시설을 학교 창의·체험활동 장소로 개발
- ②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 동아리,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 체육관, 수련관, 수련원, 기타 체험활동 등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개발 및 모형개발, 정보제공
- ③ 창의·체험 프로그램 인증
 - 활동기록부(milage) 제작 및 지원(서울청소년카드와 연계방안 마련) 및 창의·체험 프로그램 인증

3 「창의·체험지도전문인력」 양성·배치 (2011~)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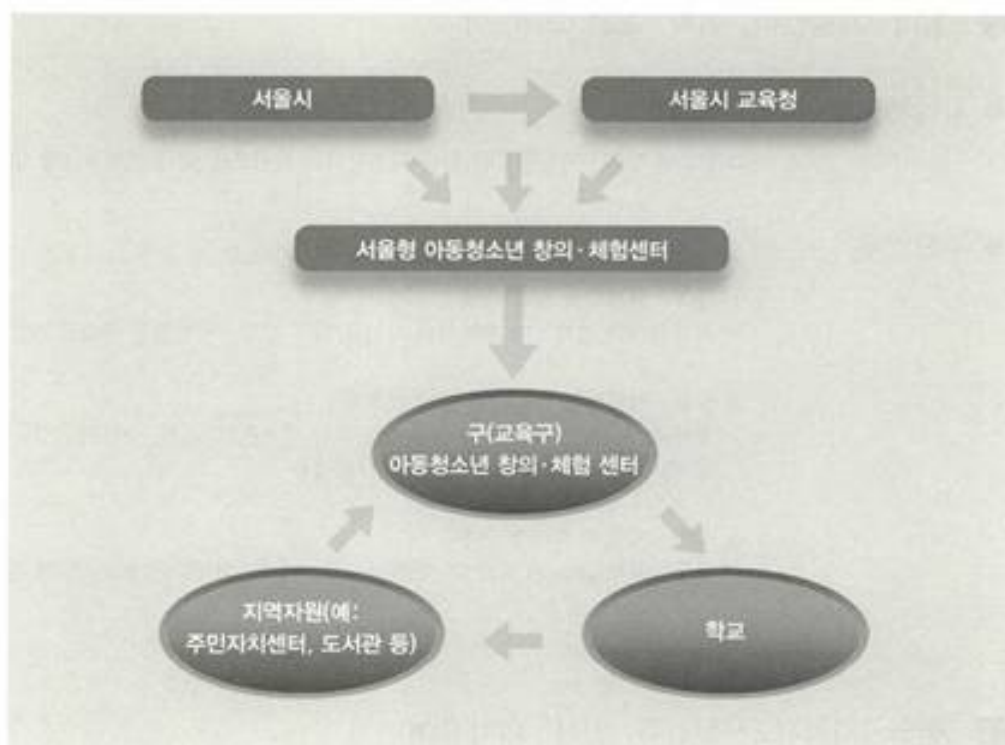
- 단계적으로 시범학교 및 시범센터에 배치하여 확산하며 교육청(또는 구청)에는 창의·체험지도전문인력 코디네이터를 두어 청소년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

창의·체험지도전문인력이란?

- 자원봉사자의 자격이 아닌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유급 인력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여가활용을 위한 창의·체험지도자로 창의·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워크숍, 컨설팅 등의 학교 창의체험활동 촉진자의 역할 수행
-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학력 퇴직교사 및 전문적인 유류 노동력 활용

4) 추진체계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청소년담당관 및 노동부, 서울시 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 협조체제 구축
- 유아교육·보육전문가, 아동관련 NGO, 청소년수련관 등의 협조체제 구축
- 아동관련 산업체 및 건축·실내디자인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5) 기대효과

- 지역사회 자원을 아동 및 청소년의 배움터로 만들어 학습환경으로 개조
-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스스로 하게 함
- 지역사회 공공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시설을 아동·청소년에게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

서울형 청소년 글로벌리더육성 프로젝트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기에는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정치·경제, 환경 및 인간에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 서울시(2008) 조사에 연구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참여위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기구의 확대는 아동권리 중 참여권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임

2) 추진방향

- 글로벌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갖춘 글로벌 서울시민 육성
- 작은 일상에서부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민주시민 육성
-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

3) 사업내용

1 「청소년 특별원탁회의」 정기 추진(2011~)

● 사업개요

- 서울시정의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한 '서울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 서울시정평가단' 구성 운영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청소년대표 참여 의무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보장

청소년 특별 원탁회의 방안

• 서울시정의 청소년 참여방안

① 서울청소년특별회의

- 서울시의 청소년 대표들(서울시 중고등학생회 대표, 서울시 대학생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 등)의 서울시 청소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환경에 대한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의회와의 대화 주도

② 청소년 서울시정평가단

-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평가, 평가결과와 환류로 청소년 참여의식 고취

• 학교내 청소년 참여방안

① 학교운영회의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② 학생자치활동 시범학교 지정 시범사업 실시

- 1개지역 10개교 지정(2011) → 1개 지역 100개교 지정(2012~)

2 「글로벌 청소년봉사단」 발족 및 봉사활동 추진 (2011~)

● 사업개요

-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건강한 서울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구촌 빈곤지역의 봉사활동 및 국내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빈곤아동 봉사활동을 지원해 줌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을 갖춘 글로벌 시민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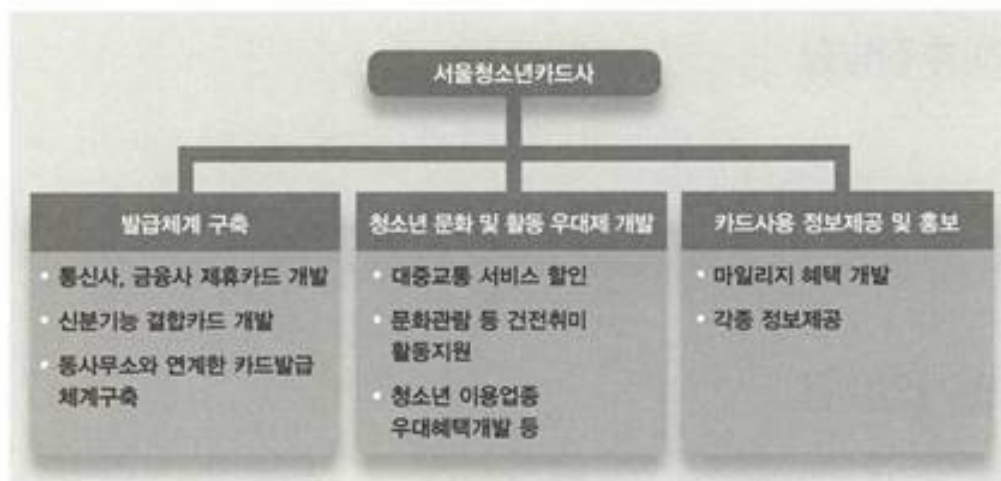
글로벌 청소년봉사단 활동(예)

- 동남아, 중국 등 빈곤지역의 Work Camp를 지원하여 지구촌 빈곤지역 봉사사업
-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
- 자계아동센터와 연계한 빈곤지역 아동봉사사업

3 『서울청소년 카드제』 실시 (2011~)

● 추진방식

- '서울청소년카드사' 를 설립하여 카드발급체계 구축 및 청소년문화 및 활동 우대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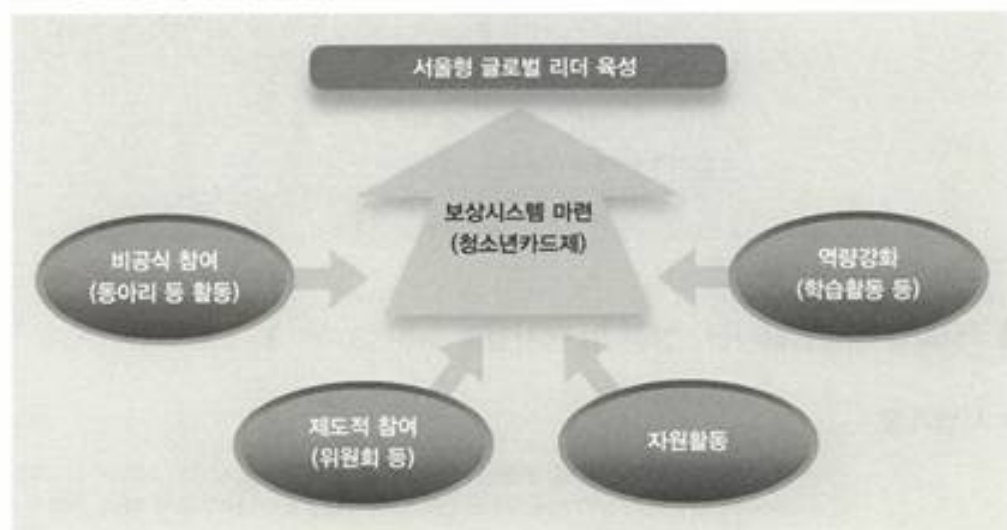
서울청소년카드제란?

- 청소년의 신분증 기능 및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청소년 전용카드로 문화시설 및 교통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카드임

4) 추진체계

- 청소년의 각종위원회 등의 제도적 참여 및 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참여를 통한 리더 육성

- 보상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활동 유도



5) 기대효과

- 시민사회에서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시민으로써의 교육과 배움의 기회 제공
- 글로벌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한 진정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청소년중의 동일연령 학생과 비학생의 차별 해소 및 청소년카드를 통해 복지혜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복지수혜의 노출 예방

서울형 양육환경 표준화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수요에 기반한 서울시맞춤보육 공급방안 연구」(서울여성재단, 2007)에 따르면,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는 첫째,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53.1%, 둘째,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 강화' 25.0%로 양질의 어린이집과 보육도우미에 대한 요구가 큼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사업으로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인력 전문성 및 보육과정 관련 지표 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인증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비영리가정 보육서비스 및 영리 베이비시터 회사의 40시간 이상 교육의무화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관리 및 아동 안전기준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 수립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영유아의 일상생활의 주무대인 가정, 어린이집의 양육환경 표준화
 - 표준화된 보육, 가정육아 지원, 실외놀이터 환경제공으로 아동발달의 동등한 기회보장
 - 지속적인 관리로 일정수준 이상의 양육지원 서비스 수준 보장

3) 사업내용

1 서울형 표준 양육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제도 실시 (2011~)

● 사업개요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지표 개선 및 민간 베이비시터 인증모형 개발을 통한 운영
- ①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지표 개발 및 운영
 - 현재의 인증지표에 친환경, 보육과정의 내실화 등의 지표 추가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시설, 보육시설 기능별 평가지표 체계 다각화
 - 어린이집 경영 및 보육과정 운영 관련 컨설팅 기능 강화

현 평가인증		개선안	
평가영역	하위영역	평가영역	하위영역
		구조적 환경	교사대 아동 비율, 교직원의 교육과 자격 등
맞춤보육	맞춤형 보육서비스		
안심보육	시설안전	안심보육	실내외 시설안전, 친환경
	급식, 위생		위생, 친환경 식재료
클린운영	회계의 투명성	클린운영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권한
	운영위원회		
보육인력	전문인력	보육 프로그램	조력
		지속평가	주기적 평가

② 민간 베이비시터 인증모형 개발 및 운영

- 국가가 설치한 기구 이외에 일리, 비영리 베이비시터 제공 사업체는 규정으로 정한 제 기준을 갖추어 인증후 등록하도록하여 가정육아지원서비스의 최소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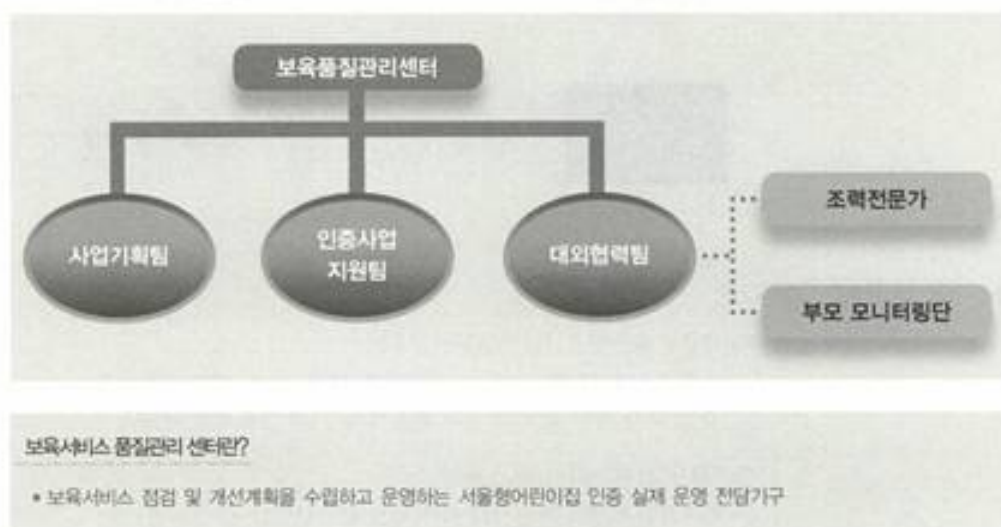
인증 영역	내용
사업자	자본금
베이비시터 자격	베이비시터 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시간당 표준요금	합리적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베이비시터 제공서비스 내

- 2년 주기로 인증여부 갱신
- 인증여부와 사업제 상세요건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가정육아지원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2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센터」 운영 (2012~)

● 운영방식

- 사업기획 및 지속적인 인증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대외협력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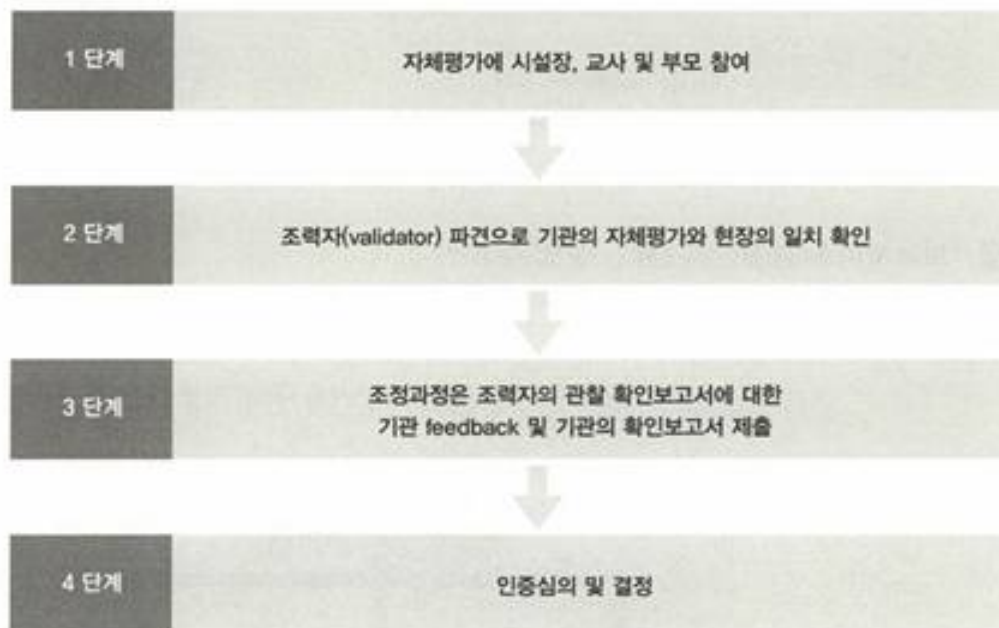


● 사업기획팀 주요기능

- 시설장 및 교사의 인증지표 숙지, 조력 담당자들에게 조력과정 운영을 위한 자체교육
- 조력을 요구한 시설에 인증영역의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조력담당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 및 지원
- 보육시설과 지역 전문자원(기관, 전문가 등)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활용
- 인증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 인증사업지원팀 주요기능

- ① 인증심사기준 체계 재정립 및 기준안 개발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시설, 보육시설 기능별 평가지표 체계 다양화
 - 시설여건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평가영역별 가중치 도출
 - 친환경, 보육과정의 내실화 등의 지표 부가
 -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 등으로 세분화
 - 등급간격 세분화를 통한 서비스질 개선에 역점
- ② 인증 심사기준 명확화 및 평가방식 합리화



● 대외협력팀 주요기능

- ① 서울형 공인인증 「조력전문가」 운영
 - 조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심리, 위생, 안전, 회계영역 전문가 유입
 - 주부, 은퇴 노인 및 관련 영역 전문가 등 지역 자원활용 활성화
- ② 「부모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상태 진단 부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 년 1-2회의 주기적인 점검

4) 기대효과

- 어린이집, 가정, 실외 놀이터에서 표준화된 양육환경 조성 및 시설평가를 통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강화
- 비용지원과 서비스수준 연계로 사전적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 관리감독 역량 확대 및 부모참여 통한 부모 empowerment

서울 희망둥이 갖기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우리 사회에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여성의 만혼화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한 상태임. 여성이 30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 60%정도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30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의 3명 중 1명이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혼화 현상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의 불임진단 비용으로 특히 만혼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2) 추진방향

- 모성보호 인프라 강화를 통해 만혼 및 불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유도
- 빠른 결혼 유도로 건강한 임신·출산지원

3) 사업내용

1 「만혼부부·불임부부 임신출산지원 사업」 실시(2011~)

● 운영방식

- 만혼부부(여성 기준 평균 초혼연령 29세 이상의 부부)와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의료지원 및 건강교육지원으로 나뉘어 운영함



① 만혼부부·불임부부 의료지원

- 만혼부부대상: 산전진찰검사 시 본인비용 경감, 만혼화 부부가 낳은 신생아 산모 보건의료지원 강화
- 불임부부대상: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및 인공수정 시술비용 지원 확대

* (현)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 대상 3회 불임시술비용 지원→점차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불임시술비 지원횟수 확대

② 만혼부부·불임부부 건강교육지원

- 만혼부부대상: 생식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 유도
- 불임부부대상: 건강한 임신 준비 및 불임 초기치료를 위한 교육

2 「빠른 출산 우대제(Speed Premium)」 추진 (2011~)

빠른 출산 우대제(Speed Premium)이란?

- 만 19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연령이 빠를수록 육아휴직 급여 혹은 양육수당급여 추가 상향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① 터울이 짧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예를들면 30개월 내 추가 자녀출산) 육아휴직 급여 및 양육수당 상향 지원
 - 서울시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 ② 평균결혼연령보다 낮은 부부에게 결혼부담 감면
 - 신혼부부 주택마련 자금 대출 지원(대출금리 등 우대 적용)
 - 신혼부부 결혼비용 저리로 융자
 - 서울시 소유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 예약장소 협찬

3) 추진체계

- 서울시 저출산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건강증진담당관의 정책의 기본방향, 예산지원 및 사업 총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의 서울시 소관 연구기관의 정책수립 및 평가환류
- 서울시 소재 보건소 및 서울소재 산부인과, 아동청소년과의 만혼·불임부부 사업진행
- 서울시 출산양육협의회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운동본부의 사업진행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사업추진 관련 자문제공

4) 기대효과

- 만혼·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모성건강 증진
- 만혼·불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통한 출산률 회복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아동수당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정부에서는 보편적 형태로 아동양육을 지원해주는 직접적 현금지원은 없으나 일부취약계층(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입양아동수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 현금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 서울시의 아동관련 수당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는 단지 출산률 제고 차원이 아닌 양육비 지원으로 유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빈곤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아동친화적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아동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이 아닌 산편성을 재편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 경제적 도움이 특히 필요한 저소득층 및 비근로소득 가정에 우선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는 소득연계형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함
- 아동수당은 관계없이 가정내의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수당액을 지급하여 아동수당을 보편화함

3) 사업내용

1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 아동수당 시범 실시 및 운영(2011~)

아동수당제도란?

- 현대 복지국가의 주요한 보편적 제도 중 하나로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이라고도 불림
- 아동수당제도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보편주의형,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경제적 보충급여가 필요한 층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아동의 수와 출생순위에 따라 수급액에 차이를 두는 출산장려형으로 구분됨
- OECD 30개 중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국은 15개국이며, 피고용자에게만 지급하는 고용연계형 아동수당 도입국은 2개국임

● 운영방식

- 서울시의 보편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일정액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아동수당으로 지급함
- 지급내용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월 5만원⁵⁾의 급여액 지급
- 선정대상 : ① 0세부터 의무교육학령인 16세⁶⁾까지 아동수당 지급
② 16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소득분위 상위 80%미만을 대상으로 함⁷⁾

5) 한국어성개발원의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월 5만원 수준은 다른 제도에서의 급여수준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금액으로 사회적 저향을 최소화하여 수행할 수 있음

6) 동일 연구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는 의무교육학령인 16세까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7) 동일 연구에 따르면 80%미만으로 한 이유는 중산층을 포함하기 위해서이며, 이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함(한국여성개발원, 2006)

- 지급대상 : 어머니(자녀의 모 부재 시에는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
- 단, 저소득층에게 우선 실시 후 점차별로 점진적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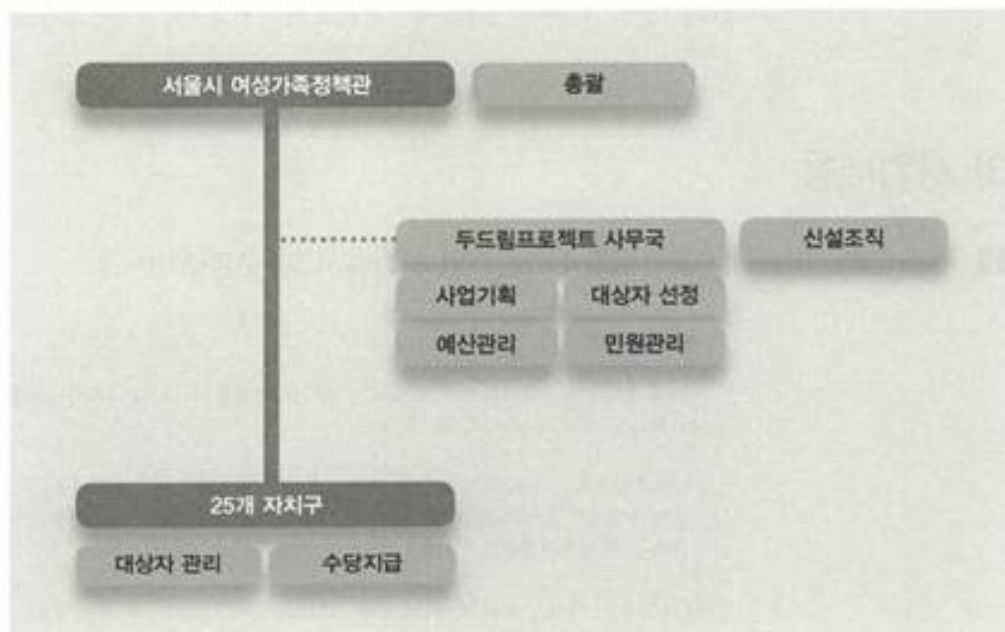


● 운영예산(예산)

- 예산소요예산은 8,744억원이며 이는 서울시 2009년 사업예산의 약 1/18의 수준임('09년 서울시 총 사업예산 16조 4,637억원)

* 산출내역 : 1,457,461명(서울시 16세 이하 아동 1,821,827명의 80%) × 50,000원 × 12월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현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함에 따라 지원의 형평성 확보 및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비용부담 경감
- 서울시의 성공적 추진결과가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의 모델로서 기능,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가능

청소년 진로지도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필요성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직업 고민은 2002년 6.9%에서 2006년 29.6%로 증가하였으며 진로와 직업교과 선택은 일반계고 49.6%, 전문계고 39.4%로 대학진학률이 낮은 전문계고의 경우가 더 낮은 실정임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2007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률은 21.0%로 나타나며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의 종사직업은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며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식당, 주유소, 대형할인 마트 등으로 서비스 중심의 단순노동이 대부분임
- 청소년노동 평가절하, 노동조건 악화, 저임금 고학파 등은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진로지도와 직업지도가 병행되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

2) 추진방향

-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근로욕구와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이 만날 수 있는 지원정책 개발
-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가치있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
- 1:1 멘토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직업모델링 제시 및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총체적 고용지원전략 마련

3) 사업내용

1 전문계 고교 청소년인턴십 및 취업연계지원 사업(2011~)

● 사업개요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할 청소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 추진절차

- 참여 전문계 고교와 기업 및 사업장(일반기업, IT업체, 의료기관, 복지기관) 발굴선정 후 학교선발 및 관리,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학교와 기업간의 협약 체결 및 산-학간 지도자 협력 체결

취업연계지원모형

- 참여기업 연계 및 직업훈련 지원모형
 - 대상자 : 전문계 고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선발
 - 지원내용 :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준비교육, 사업장과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진로 및 직업 훈련
- 연계기업 현장실습(인턴제) 지원
 - 대상자 : 전문계 고교 재학생
 - 지원내용 : 실질적인 직업체험 및 취업연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중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창업 지원 사업(2011~)

● 사업개요

-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19~29세의 NET 청소년 또는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Biz School 운영, 창업지원을 통한 청소년분야 사회적 일자리 개발사업

● 지원내용

- 창업교육(약 1년간, 매주 35시간 학업에 참여), 보수 지급, 창업교육 이수 후 창업시 창업자금 대여

● 추진방식

- 서울시 청소년정책담당관과 아동·청소년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자문을 통해 모델 발굴 및 서울시 청소년창업보육센터 설치후 운영주체 공모

3 청소년 고용 종합시스템 『꿈꾸는 학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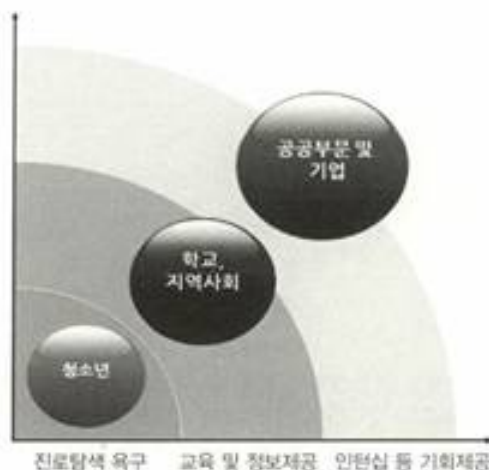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출, 성매매보호시설 청소년, 범죄청소년, 학업중단, 빈곤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

『꿈꾸는 학교』의 고용시스템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 청소년 대상 지원
 - 교육프로그램 제공 : 기본적인 소양교육부터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준비교육
 - 활동비 지원 : 교육받는 동안 의복, 식사, 교통비 등 지원
 - 직장연계 : 직업개발자의 개인별 상담 후 직장과 연계한 후 지속적인 추적관리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청소년 실업률 감소 효과
- 청소년의 경제역량 강화 및 일찍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책역량 마련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으로 위기청소년의 범죄자·사회복지대상자로 전락할 경우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세계 환경도시 파견 청년여성인턴제도

1) 현황 및 필요성

- 그간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제공 서비스는 주 대상층이 주부 및 창업·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0대의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제한적임
- 특히 영어와 관련 실무 전문성을 겸비해야 접근할 수 있는 국제업무에 서울 청년층의 진출을 촉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 청년인턴제도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음. 199년에 환경부는 국제환경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턴십) 14명 파견, 여성부는 UN여성지위위원회 등에 국제전문여성인턴 15명 파견

2) 추진방향

- 서울과 유사한 환경친화적·여성친화적 도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도시(일명 '세계여성·환경도시')의 환경정책과 여성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 새롭게 채워한 세계여성·환경도시의 환경규제 사례, 여성정책 기획들을 서울시에 정책 제언하는 역할 수행

3) 사업내용

● 서울시 지원사항

- 인턴십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세계여성·환경도시의 환경여성정책 관련 행정부서와의 사전 협조체계 구축
- 대표적 세계 여성·환경도시(동경, 브라질, 프라이브루그, 핀란드 등)의 환경여성정책 정부기구, 친환경기업, 환경·여성관련 공익기구 등에서 활동기회 제공(6개월 이내 채류비용 등 지원)
- 기타 유엔환경계획(UNEP), 여성관련 국제회의 등 국제기구로의 인턴 진출시 경비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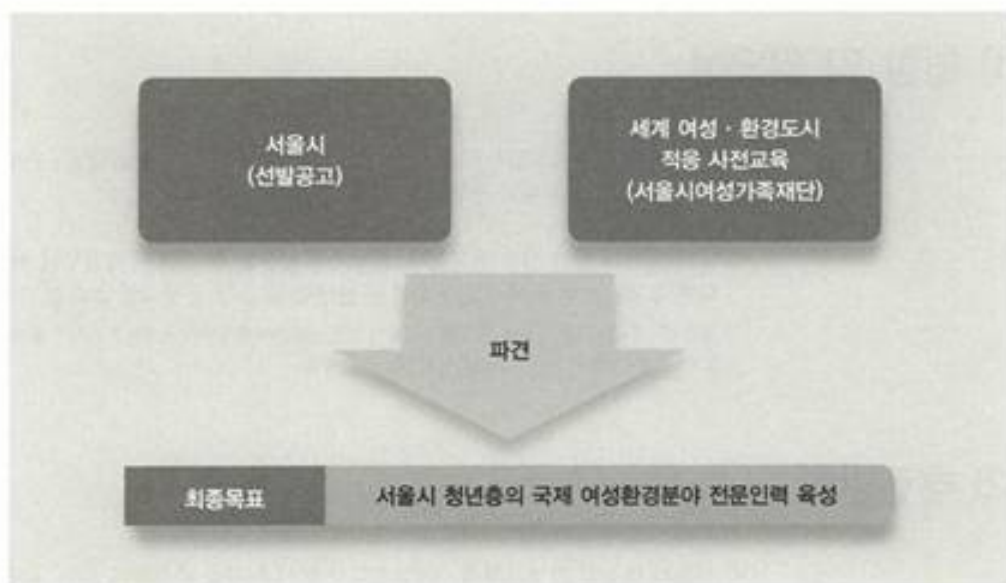
● 자격요건

- 모집 당해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포함)으로 영어 능통자(20~30여명 내외)
- 국제여성·환경분야 적용 사전교육 실시(4~6주)
- * 모집인원 중 30%는 반드시 여성으로 충원

● 청년여성인턴 역량 강화 및 사후관리

- 분기별 활동보고회 실시 및 기수로 인턴 대상의 네트워킹 지원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서울 청년층의 미래 환경전문가로의 진출기회 제공 및 서울시 환경정책의 수준 제고

서울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가신인도에 비해 저조한 국제성평등지수(GEM, GGI)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관리직 진출 확대 등 유무형의 유리천장을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함

* 여성권한지수(GEM) 61위/109개국('06), 성격차지수(GGI) 115위/134개국('06)
 - GEM 지표별 순위 : 여성의원 68위, 여성행정관리직 102위, 여성전문직 89위, 남녀소득비 70위
 - GGI 지표별 순위 : 경제참여와 기회 113위, 교육적 성취 109위, 건강과 생존 80위, 정치권한 104위

- 서울시청 및 각 시군구청, 서울시 공사 및 시군구 산하 공사[※] 등 서울시 전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 필요

*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투자한 6개 기관 :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농수산물공사, SH공사, 도시철도공사
 ※ 중앙정부의 여성관리직(5급이상) 비율은 2002년 5.5%에서 2007년에 8.4%로 증가, 이에 비해 서울시 여성공무원 관리직 비율은 2002년 4.3%에서 2007년 6.6%로 증가에 그침

〈표〉 서울시 5급 이상 성별 공무원 비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4.2	4.3	5.0	5.5	9.7	10.2	6.6
남성	95.8	95.7	95.0	94.5	90.3	89.8	93.4

2) 추진방향

- 서울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 서울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운영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 산하 공기업 경영평가시에 여성임원 비율 반영

3) 사업내용

- 서울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운영계획 수립 (2012~)
 - 서울시청 및 시군구청 실국별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현황 및 서울시 및 각 시군구의 공사·공단 등 공기업 여성 임원 현황 주기의 파악
 - 서울시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관리직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여성관리자를 위한 멘토링제도 운영

4) 기대효과

- 공공기관으로의 여성진출(채용)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여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경력발전의 기회 제공
- 사회 전반의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이 양성평등 임용기관으로 선도적인 구심체 역할 수행

여성공무원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6.6%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5년 9.7%, 2006년 10.2%인 것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추세임
-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이 낮아지는 원인분석과 함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승진목표제의 도입과 함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및 고위직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추진방향

- 여성공무원의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6급 이하 여성공무원과 5급 이상 여성공무원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mentoring) 운영

3) 사업내용

● 추진목표



- 서울시 여성공무원 및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

● 여성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안)

	여성리더십 향상교육	여성리더 양성교육
대상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관리자 등	서울시 6급 이하 여성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등
교육기간	연 2회 운영, 총 8회 교육	연 2회 운영, 총 8회 교육
인원	20명	20명 내외
내용	여성정책, 성인지정책, 스피치교육, 갈등 해결능력 향상교육 등	여성정책, 성인지정책, 스피치교육 등

4) 기대효과

-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확대로 정책의 성평등성 제고
- 공공부문에서 여성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 및 사기업 부문에 확산하여 여성리더를 확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권역별 거점 어린이 집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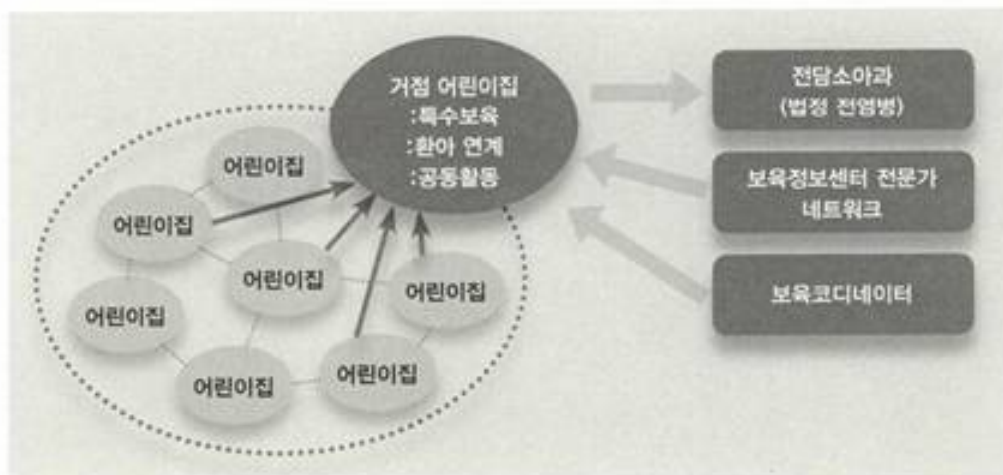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양한 보육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38개 시간연장 보육시설, 68개 24시간 보육시설, 37개의 휴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용률은 높지 않음. 수요에 있어서도 시간제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의사간 격차 큼. 따라서 서비스 중복 방지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취약보육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실태 조사연구」(서문희, 2007)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수요는 계층간 차이가 있음. 야간 보육, 아픈 자녀보육, 휴일보육 등의 보육수요와 소득수준은 반비례 관계임

2)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간 연계성 증진

3) 사업내용

- ① 네트워크 구성(2010~) : 1개구를 3~4개 권역화 하여 80인 이상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권역별 거점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거나 지역내 8~10개 내외의 보육시설로 구성→ 거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일 구내 어린이집간 협력체 구성
예) ('10) 10개 → ('11) 25개 → ('12) 100개 Network
-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교사 간 동료 장학 활성화, 교재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교사역량 제고, 통학버스 공동활용 등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
- ③ 법정 전염병환아 보육위한 지역 전담소아과 지정 및 연계로 맞벌이가족 특별한 보육수요 충족



4) 기대효과

- 영유아 서비스의 연계성과 통합성 증진
- 거점 어린이집 권역내 어린이집의 특수보육(야간 보육, 휴일 보육) 수요 대행하여 특수보육에 대한 산발적 보육 수요에 대한 개별 어린이집의 부담은 완화하고 부모육구 충족

지역 아동보육지원단 구성 ·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미취학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률 35.2%, 유치원 이용률 15.5%, 미이용 아동 49.3%(아동합계, 주민등록아동통계, 보육시설이용아동(2007.6. 6세이상 방과후 아동 포함), 유치원이용아동, 2007). 보육 정책의 대상은 주로 보육시설 아동에 한정되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 발생
- 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양육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조기에 발굴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
- 보건소 등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진단 서비스가 제공되나, 정서장애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로서비스 연계 미흡함, 특히, 영유아기 복합정서표현장애, 관계맺기 및 의사소통장애 등이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개입 필요

2) 추진방향

-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기관 및 서비스, 전문가, 부모가 서로 연계해서 아동과 부모에게 일관성 있는 포괄적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3) 사업내용

1 보육정보센터 보육지원 연계망 구축 및 운영(2011~)

● 구축방식

- 지역내 대학, 아동발달관련 전문가, 가족상담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 및 가족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운영방식

- 어린이집 보육과정 조력지원단으로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발달장애 조기발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의 전문가 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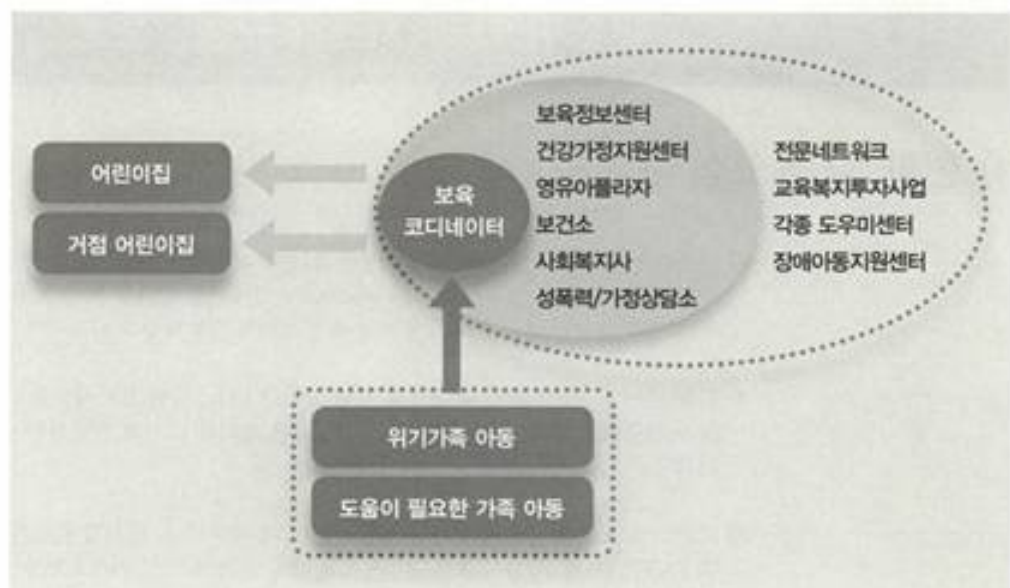
2 구청별 보육코디네이터 배치(2011~)

보육 코디네이터?

- 서비스 지원계획을 개발해 보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센터, 가정 등 모든 형태에서 어떠한 아동이라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발굴하여 지원하는 인력

● 운영방식

- ① 개별 구청상담실에 상주하며, 전문가 1인과 보육코디네이터가 팀으로 활동하여 지역 내 각종 보육서비스관련 센터 및 기관,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성
- ②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물적 후원조직과 시스템 구축 및 어린이집 사업 지원
- ③ 보육에 있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ex.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방임아동 등)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프로그램 및 조력자 연계 등을 지원, 위기가정 아동 서비스 연계



3 찾아가는 육아 서비스(2011~)

● 운영방식

- 아동놀이치료 지원 및 영·유아플라자 놀이그림 운영

아동놀이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언어·인지·사회·정서발달 수준 진단 및 놀이치료 연계를 통한 언어·사회·정서발달 지원 프로그램
- 가정 및 어린이집 놀이치료사 파견 서비스

영·유아플라자 놀이그림 운영

- 장난감교실 또는 놀이교실 상시 운영
-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조부모가 아동과 함께 방문하여 놀이활동을 통해 장난감 및 교구활용방법과 상호작용방법 학습

4) 기대효과

- 영유아 서비스에 전문가와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
- 취약계층아동(빈곤계층, 취약계층, 사실아동, 다문화), 위기아동(가정폭력, 해체가정 등) 등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사업수행

온라인 전문가 멘토링 육아사랑방 구성·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보육포털시스템의 접속자 수는 150만명에 이르며 1,500건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상담전수는 770건에 그치며 상담내용 역시 보육시설 입소대기 순번이나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임
- 보육 및 어린이집 관련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가 영유아·아동을 양육하면서 갖는 어려움을 공인된 정보제공처에서 쉽고 빠른 해결을 통해 실질적 양육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2) 추진방향

- 양질의 정보제공
- 쌍방향 정보생산

3) 사업내용

- ① 개별상담을 통한 문제사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상담서비스 제공
 - 양육환경, 유아의 문제행동 및 부모 양육태도 등에 대한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
- ② 지식나눔터 기능 생성
 - 자녀양육 관련 어려움, 적절한 교재교구 선택, 문화책읽기 등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커뮤니티 형성
- ③ 가정양육관련 통합적 정보전달 체계화
 - 임신, 출산, 보육시설 서비스,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분야별 정보제공
 - 영유아 월령별 영양, 건강, 안전, 신체발달, 정서발달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온라인 육아상담 서비스
 - 시설 이용, 가정양육 서비스 이용, 기타 영유아 관련 공공기관 이용자의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등 포털서비스의 쌍방향성 강화

4) 기대효과

-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한 부모양육 지원
- 육아경험을 나누고 지원하는 육아지원 문화 형성

미혼남녀 '우리결혼합시다' 지원사업

1) 현황 및 필요성

- 2007년 서울시 거주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9세, 남성 31.5세로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은 거의 비슷하나(전국 남성평균 31.3세), 여성은 약 1세 정도가 더 높은 양상을 보임(전국 여성평균 28.1세)
 - 서울시 거주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녀의 결혼연령은 여성 28.5세, 남성 31.4세로 현재 서울시 평균 초혼연령과 비슷한 수준
- 서울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지 않은 상태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미혼여성 30.7%, 미혼남성 25.8%
- 서울시 거주자 초혼연령은 여성의 경우 특히 높은 양상을 보이며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음
 - 서울시 미혼남녀의 결혼촉진을 위해서는 청년실업 해소 등 청년의 자립지원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함양, 신세대에 맞는 가족문화 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 추진방향

- 청년 결혼촉진을 통한 젊은세대 가족형성 활성화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

3) 사업내용

- 서울시 거주 대학생 대상 결혼 및 가족관계, 소통과 대화교실 등 강의, 미혼남녀 대상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한 다양한 만남의 장 제공
 - 서울시가 서울시소셜 대학과 협약을 통해 '결혼과 가족', '남녀의 소통과 대화' 등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할. 관련 교과목 수강자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 등
- TV 등에서 싱글라이프를 부추기는 장면 배제

4) 추진체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택공급과 등 관련 부서 : 정책의 기본방향, 예산지원 및 사업총괄
- 서울시 소관 정책 연구기관 (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 사업구상 및 평가환류
- 서울소재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방송사 등 언론매체 업체 : 사업 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 사업추진 관련 자문 제공

5) 기대효과

-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 젊은 부부들의 건강한 결혼생활 유도
-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을 통한 결혼 촉진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서울

1) 현황 및 필요성

- 과거 수십년간 출산억제정책 추진으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회 곳곳에 아직도 비인센티브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임.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함
- 현재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 정책의 대부분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세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반가정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출산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대하고 있다는 전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국민들의 자녀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함

2) 사업내용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2011~)

- ① 공공요금 감면: 전기·수도세, 난방비, 하수도,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용을 자녀수에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감면
- ② 다자녀가정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요금(지하철, 버스 등) 면제 및 감면
- ③ 다자녀가정 서울시립대학 진학시 학비 면제

2 학교 입학, 취업, 승진 시 등 사회적 인센티브 제공(2011~)

- ① 다자녀가정 서울시립 대학 진학시 가점 부여
- ② 서울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입사시 다출산가족 자녀 우대
- ③ 서울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승진시 가점 부과
- ④ 서울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둘째아이 이상 출산시 1년씩 정년 연장

3) 추진체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정책의 기본방향, 예산지원 및 사업총괄
- 서울시 소관 정책 연구기관 (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정책수립 및 평가환류
- 서울시가스공사, 한국전력, 서울메트로,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사업추진
-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추진 관련 자문 제공

4) 기대효과

- 자녀가 많은 가정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환경 조성

희망나눔가족 프로젝트(입양·위탁가족 지원사업)

1)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서울시는 입양·위탁가족을 위한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유일하게 강남구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0세부터 만 12세까지 1인당 월30만원, 13~17세까지 1인당 월30만원의 양육비를 확대 지급하고 있음
- 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지원범위: 상담원 인건비,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국내입양기관 : 년 2,354만 5,000원/개소당 (시비 100%)
- 장애아동양육보조금 : 월 55만 1,000원/인 (국비 40%, 시비 60%)
- 장애아동의료비 : 년 252만원/인 (국비 40%, 시비 60%)
- 입양아동 양육 수당 : 월 10만원/인 (국비 40%, 시비 60%)
- 입양수수료 : 220만원/인 (국비 40%, 시비 60%)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위탁아동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 1,270명임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7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 입양·위탁부모들의 현실적 양육경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부족한 경제적 지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추진방향

- 입양·위탁가족 양육비 지원수준의 현실화
- 입양·위탁가족 강화된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사후관리
- 입양·위탁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3) 사업내용

1 입양장려금 도입 및 입양지원금 확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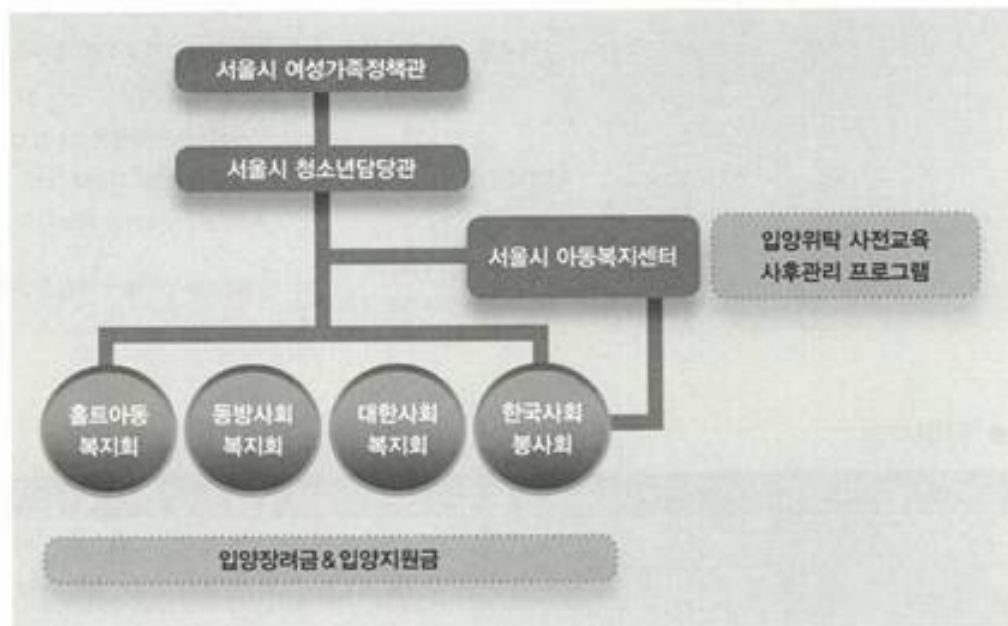
- 서울시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 수준의 '입양장려금' 지급
 - * 참고 : 출산 축하금은 자치구에 따라 5만원~3000만원까지 지급
- 입양지원금은 현행 13세 미만에게만 지급에서 단계적으로 18세까지로 상향조정

2 입양·위탁 사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2011~)

● 사업개요

- 입양·위탁 사전교육 강화
 - 입양부모뿐 아니라 가족전체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
 - 기존 자녀의 유무, 자녀의 학령기(초·중·고교), 자녀의 성별 고려 특화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립 아동복지센터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입양·위탁관련 기관에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서울시립 아동복지센터에서 서울시에 대한 사후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
 - 입양·위탁관련 정기상담, 친가족찾기 서비스, 가족갈등해결 서비스 등과 같은 공통 사후관리 서비스와 국내 및 국외입양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입양·위탁의 활성화
- 파양 등 입양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방
- 입양·위탁가족의 삶의 질 증진 및 만족도 제고

5.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5-2. Well-being

● 7대 중점과제

전략	정책대상	영역	정책과제	단위사업
Well-being	여성	건강한 삶	여성정신건강 SOS프로젝트	여성우울증 및 정신질환 자기진단 Kit 개발 우울증 고위험군 여성 긴급지원(SOS)센터 개설
	여성	녹색환경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아동·청소년	건강한 삶	지역사회 『푸른나무가꾸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프로젝트	아동인성향상센터 설치 청소년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청소년폭력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보육	안전한 공간	친환경 서울형 어린이집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리모델링 건강 식재료 공급센터 설치
	가족	건강한 삶	새로운 가족 프로젝트	맘애틀 프로젝트 : 미혼모(부)멘토링 사업 우리할머니 프로젝트: 한부모 가족-독거노인 연계프로젝트 장애가족의 새로운 가족 '엄·지·단' (엄마지원단)
	여성	건강한 삶	장애여성 건강증진 프로젝트	『장애여성 친화병원』 시범사업 실시 및 비상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친화 거점보건소』 시범사업 실시 지역별 『장애여성 체력단련센터』 시범사업 실시
	여성	안전한 공간	서울여성가족정책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서울여성가족정책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 단위사업

전략	영역	정책대상	단위사업
Well-being	건강한 삶	여성	여성우울증 및 정신질환 자기진단 Kit 개발 우울증 고위험군 여성 긴급지원(SOS)센터 개설
		여성	『장애여성 친화병원』 시범사업 실시 및 비상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친화 거점보건소』 시범사업 실시 지역별 『장애여성 체력단련센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청소년	아동 인성향상센터 설치 청소년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청소년 폭력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가족	맘애틀 프로젝트 : 미혼모(부) 멘토링 사업 우리할머니 프로젝트: 한부모 가족-독거노인 연계 프로젝트 장애가족의 새로운 가족 '엄·지·단' (엄마지원단)
	녹색환경	여성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안전한 공간	보육	서울형 표준 양육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운영
		여성	서울여성가족정책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여성정신건강 SOS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5)결과에 따르면 여성우울증은 22.8%로 남성 1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15세에서 44세 여성이 겪는 각종 질환의 질병부담 중에 1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우울증으로 나타남
 - * 특히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율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우울증은 자기자신 및 가족(특히 자녀살해)과 지역 주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주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조기치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 자살충동은 여성이 68.5%, 남성이 31.5%, 자살시도는 여성이 76.2%, 남성이 23.8%로 나타남(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 주부우울증의 경우 연령대 및 취업여부 등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이 요구됨

2) 추진방향

-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특화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성별 특유의(gender-specific) 정서적인 증상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기존의 통상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에서 탈피, 여성우울증의 조기예방 및 치유가능한 질환으로서의 인식 제고
 - * 현재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 등은 전국에 산재한 156개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인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광역형 3개소, 표준형 153개소)

3) 사업내용

1 서울시 여성정신건강의 날 제정(2011~)

● 사업개요

- 서울시 여성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규칙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 여성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여성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기념일을 제정

● 주요 내용

- 서울시 관내 지역 해당병원에서 우울증 무료 자가진단테스트 실시, 우울증 예방법 무료특강 실시, 우울증 극복사례 발표, (가칭)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캠페인, '여성노인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생애주기별 여성의 정신건강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개설 등

2 「여성정신건강 SOS센터」 설립 및 운영(2012 ~)

● 사업개요

- 우울증 등 각종 여성정신건강을 알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치료를 위한 여성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

① 「여성정신건강진단도구」 개발

- 여성의 정신건강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신건강진단 도구 개발

② 상시상담 시스템 마련

-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충동 등과 관련하여 전문상담사 배치 및 상담서비스(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제공
- 인터넷을 통한 자가진단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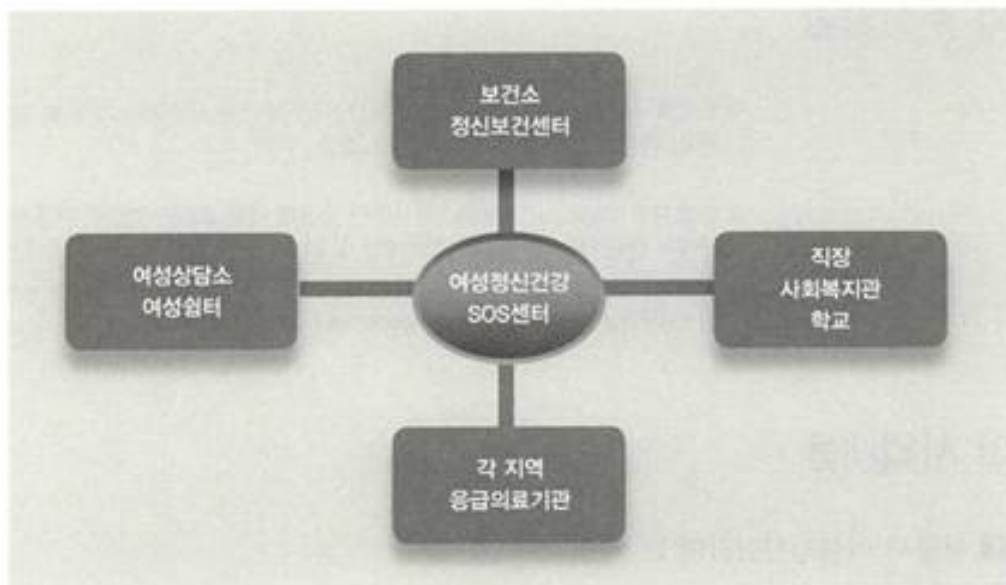
③ 위기에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살시도자나 자살고위험자 등의 위기개입서비스 마련
- 보건소 및 여성정신건강 SOS센터, 응급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여성상담소, 사회복지관, 기업체 인사담당 등과의 협력

④ 서울여성시민을 위한 성인여성 정신건강증진 캠페인

4) 추진체계

○ 여성정신건강 SOS센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대효과

○ 서울시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직장 및 지역사회의 건강성 제고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녹색성장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
- 녹색성장정책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및 민간부문과 파트너십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여성들이 풀뿌리 여성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여성 녹색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추진방향

-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녹색성장정책과 여성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는 펀더기버넌스의 실천방향 제시
- 여성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GO-NGO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의 요구를 시장에 적극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3) 사업내용

1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추진(2012~)

● 사업개요

-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능 및 녹색연대를 위한 지원망을 구성하여 녹색여성정책이 여성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두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① 녹색성장 관련 연구사업
 - 중앙정부 녹색성장정책 및 서울시 녹색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 및 활동을 분석
 - 국내외 녹색성장관련 거버넌스 사례수집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여성 녹색연대의 활동방향 및 사업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녹색연대운영단의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 ② 서울여성 녹색연대 구성
 - 도·농간 친환경 여성 생산자-소비자 연대팀, 그린 네트워크, 서울여성 녹색연대 알라미 등을 구성

서울여성녹색연대 구성 및 운영

① 도·농간 친환경 여성생산자-소비자 연대팀

- **역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여성농민과 친환경 먹거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상호연결해 주는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 담당
- **사례** '우리텃밭 제철꾸러미 사업'

상주 봉강리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은 '우리텃밭 제철꾸러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상주 봉강리에 거주하는 여성농민들이 우리 텃밭 회원으로 가입한 도시 소비자들에게 월 10만원의 받고 직접 텃밭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매주 1회 전달하는 판매사업이다.

상주여성농민회원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부터인데 매주 화요일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포장해서 보내면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은 수요일에 이를 받고 있다. 8월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도시 소비자들은 45명에 불과하지만 친환경적인 농사방법으로 키운 농산물'이어서 녹색도시 만들기사업에 여성이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되고 있다.

④ 그린 네트워크지원팀

- **역할**: 재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녹색가게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 사례 녹색가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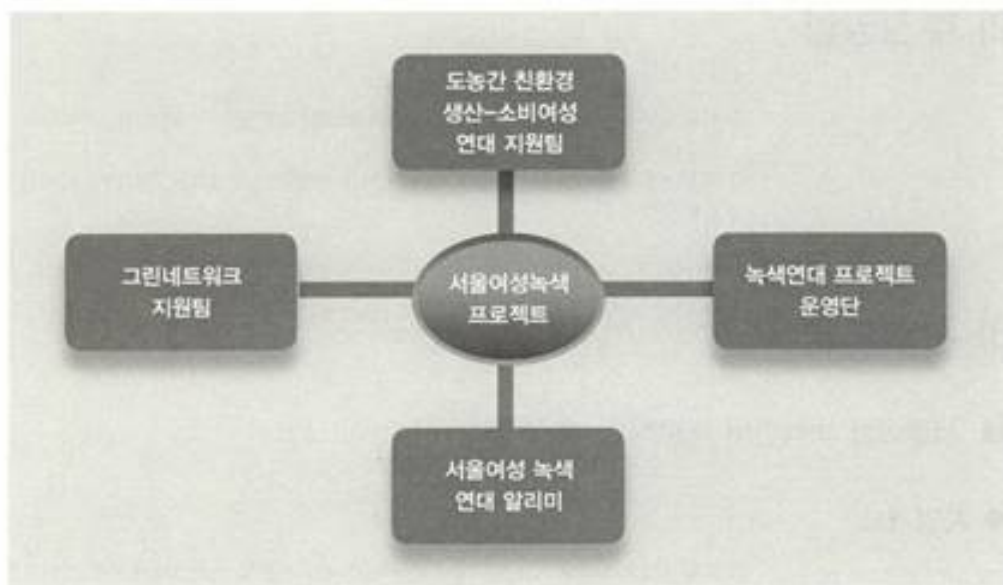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는 각 지역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전국 36곳에서 운영하는 녹색가게인데 대표가 여성이고 회원들의 다수 역시 여성이다.

이 협의회는 주로 기부받은 의류 등을 판매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되살림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품 활용방법, 물자를 되살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⑤ 서울여성 녹색연대 알리미팀

- **역할**: 여성 네트워크지원팀은 서울여성 녹색연대 프로젝트를 일반서울시민에게 적극 홍보, 또한 시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관심이 있거나 재활용품을 구매·판매시 필요한 정보제공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녹색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녹색성장정책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기여
- 녹색성장정책이 여성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두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젠더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 통합 발전에 기여
- 녹색성장정책에 여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GO-NGO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푸른나무 가꾸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아동의 정신질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전국 16개 시도의 7~19세 학령기아동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7만 9,000여명으로 인구 100명 당 2.58명으로 가장 낮은 전남 1.41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함
- ADHD 발병현황을 보면,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17%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우울, 불안, 자살 등과 더불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로 인해 치료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ADHD질환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5~20%나 되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 행동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이미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고 있음. 현재 2006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유적 대안학교 형태로 국립서울병원의 '참다울학교'가 ADHD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전문적 환경이 조성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없는 상황임
- 또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특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조사(2007)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이 위험한 사용자가 14.4%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가 심각
- 이외에도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집단 괴롭힘으로 줄었으나 협박·금품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폭력은 청소년의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모든 폭력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족, 학교,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함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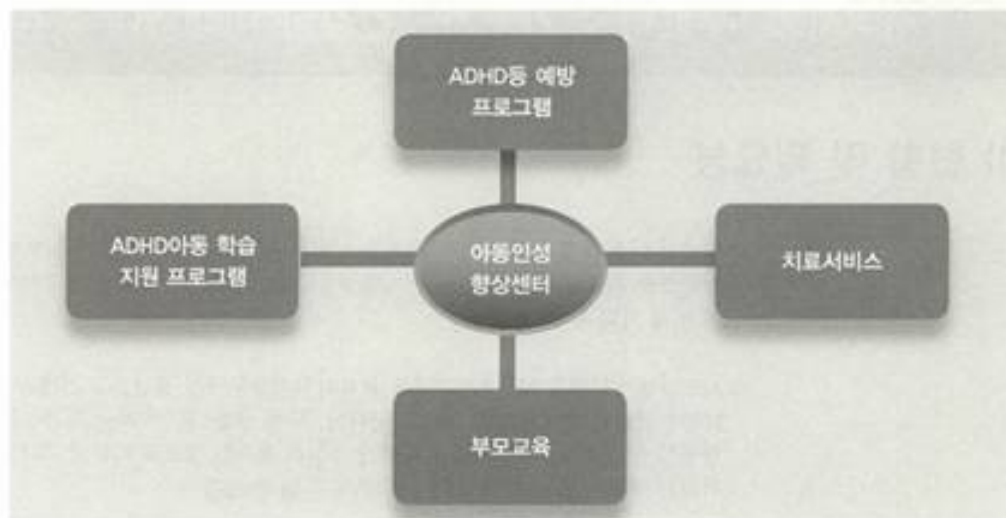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정신병 유병률에 대한 실태조사
- 아동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전문센터 설립
- 청소년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활성화

3) 사업내용

1 「아동인성향상센터」 설치(2011~)

● 사업개요

- ADHD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령기 전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one-stop 건강센터 설립하여 아동의 건전한 정서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함



『아동인성향상센터』 운영 프로그램

- ① ADHD 예방프로그램 : 아동의 정신질환, 특히 ADHD예방 프로그램 실시
- ② ADHD 아동학습지원 프로그램 : ADHD 아동의 상당수가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학습지원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 ③ 부모교육 프로그램 : 아동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모 교육 실시
- ④ 치료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공적 치료서비스 제공 및 부모의 치료비 절감

2 청소년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2011~)

● 추진방식

-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상담센터의 수를 증가하고 전문 청소년상담사의 보강 및 모든 학교급에 학교상담사 배치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함

『청소년 자살예방 멘토링』 프로그램(예시)

- ① 청소년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또래상담 역할강화 및 전문상담사의 멘토링 프로그램 관리
- ②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 인근 대학의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의 1:1 멘토-멘티관계 형성 지원
- ③ 부모-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부모의 상담역할 강화

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2011~)

● 사업개요

- 기존 서울시립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여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하거나 전문센터를 설치하여 폭력가·피해 청소년을 일정기간동안 심층상담 및 치료함으로써 회복 후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치료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 운영내용

- 폭력예방교육실시, 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건전한 청소년기 활동모델을 발굴하고, 놀이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비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이용절차

- 학교 및 지역사회(아동·청소년) ▶ 권역별 혹은 거점센터 방문(진단 및 교육, 심층면접 및 상담)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후점검 및 관리

4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설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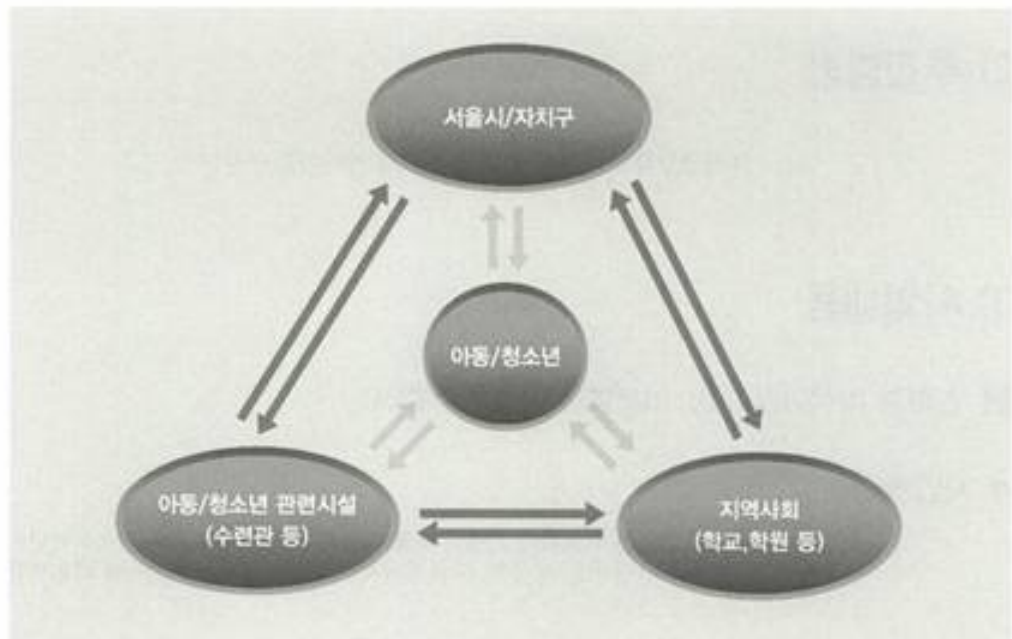
● 추진방법

- 권역별·거점별로 아동·청소년시설(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를 지정하거나 전문센터 설치, 심각한 중독아동·청소년의 치료를 위한 상시적인 '기숙형 치료학교' 설치·운영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운영예시

- 이용절차 : 인터넷중독 증상에 대한 진단 →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 사후진단 및 지속적인 관리
- 제공서비스 : 진단 및 상담서비스, 교육 및 치료서비스, 아동·청소년 및 가족캠프 운영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

친환경 서울형 어린이집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는 2008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예방교육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친환경 어린이집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실천 지침 없음
- 어린이·청소년 알레르기 질환 국제역학조사에 따르면, 95년 어린이 천식유병률은 5.7%이나 2000년에는 7.0%로 증가, 아토피 피부염 역시 95년 15.3%이나 2000년 24.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어린이 집은 매월 월별식단표를 가정에 발송하며, 어린이집 현관의 식단계시판에 식단을 게시하고 서울시지침에 의해 급·간식 보존대를 설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서울시 안심보육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다량의 인스턴트식품이 아동의 급·간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건강한 성장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기 자연친화적 입맛형성 및 급·간식 관련 안전성 증대 필요

2) 추진방향

- 자연친화적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 어린이집 구성

3) 사업내용

1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2011~)

● 사업개요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녹색어린이집의 모델을 개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 및 우수 평가시설의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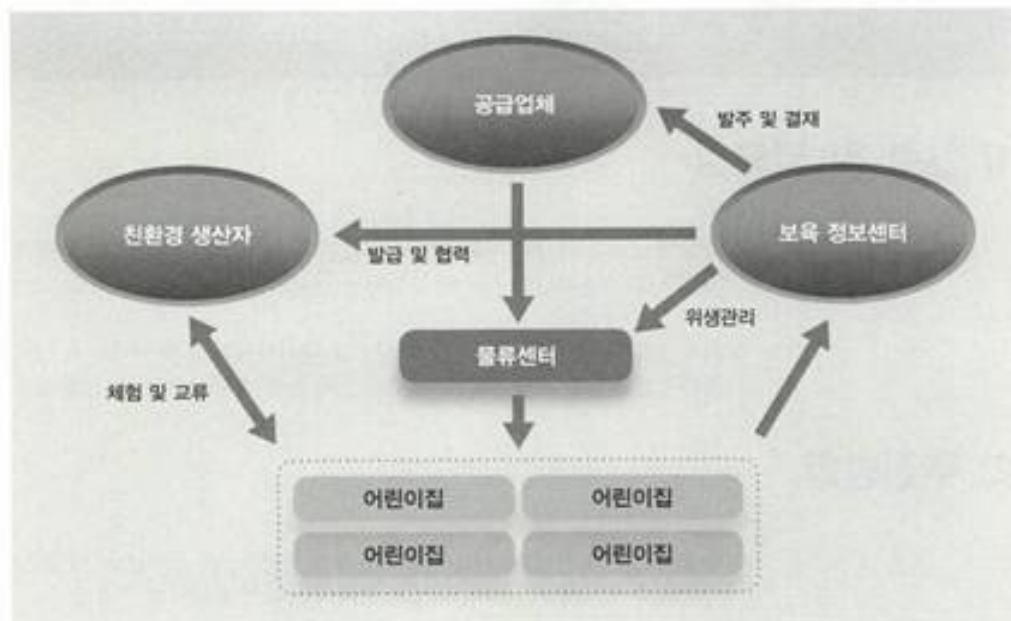
● 사업내용

- ①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표준모델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개발
 - 친환경·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태양광발전 및 빗물 활용시설, 천연가스 냉난방시설을 갖춘 환경교육장으로서 녹색 어린이집 모델 개발
 - 자연통풍, 자연채광, 황포벽돌 또는 재활용블럭 사용, 친환경 소변기, 친환경 페인트, 빗물 재활용시설 또는 생활용 상수정급, 외부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소비재 절약, 건물내 녹지공간조성 등의 영역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 ② 우수평가 어린이집에 녹색 리모델링 지원
 - 보육서비스 품질관리센터 인증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거점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어린이집 등에 리모델링 우선권 부여

2 「건강 식재료 공급센터」 설치 (2011~)

● 운영방식

-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영양급식식단 제공 및 친환경 식재료 구매, 당일사용 식재, 당일 입고원칙에 따른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매일 아침 구단위 식재료 배달서비스 제공



● 운영내용

① 보육정보센터

- 배원 영양사가 작성한 연령별 급식식단 3~5종 제공 및 식단별 아동 1인당 급식단가 제시
- 중앙 구매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 구매 및 식재료 전문업체 유동업체 선정
- 공급 및 물류업체 위생관리(결전적으로 생산자까지 확장)
- 지역연계협력 시범사업 실시

「지역연계협력사업」 예시

- 농가 간 연계 또는 협동조직과 지역보육정보센터간 1센터 1촌 시범사업
-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유기농산물 염가공급으로 급식재료의 다양화
- 아동의 농작물 채취과정 체험학습 기회

② 물류센터

- 급식의 당일사용식재 매일 아침 구단위로 배달서비스

4) 기대효과

- 어린이집 환경 개선
- 집단급식시 부실급식 및 급식 관련 사고 예방

새로운 가족(New Family)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다양한 소수자 여성과 가족(미혼모(부), 한부모, 여성노인, 장애모)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괄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이 미흡함
- 특히 소수자 여성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정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정서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개발이 저조한 상황임

2) 추진방향

- 다양한 소수자 여성과 가족(미혼모, 한부모, 여성노인, 장애모)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미의 사회적 가족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함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 한부모가족, 장애여성의 가족의 자녀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및 자질 형성을 도모하고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함

3) 사업내용

1) 맘애크(Mom & Mom) 프로젝트 : 미혼모(부) 멘토링 사업(2011~)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멘토 자원봉사자가 미혼모(부) 여성의 출산, 자녀양육 및 정서지원을 통해 미혼모(부)를 지원

멘토 자원봉사자란?

- 출산 및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여성
- 교육내용 : 출산지원교육, 자녀양육방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멘토 역할
- 주요역할 : 미혼모 여성의 정서적 지원부터 부모훈련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생의 롤모델 역할
- 지원방식 : 미혼모의 임신단계에서 출산후까지 1대1 멘토링 제공
- 활동기간 : 최소 6개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출산후 최대 3년까지 관계지속

2) 「우리 할머니 프로젝트(한부모가족-독거노인 연계프로그램)」 시범실시 및 운영 (2011~)

● 추진방식

- 지역사회내 한부모가족과 독거여성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보호자, 자녀, 그리고 독거노인의 교류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연계프로그램(예시) : 문화공연 및 나들이 등 정기적인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 안부전화 드리기, 위기사항 비상망 구축, 우수가족 선발 시상 및 사례 공유 등

3) 장애가족의 새로운 가족 「엄·지·단 (엄마지원단)」 시범사업 실시(2011~)

● 추진방식

- 장애모의 비장애자녀가 적절한 단계적 아동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엄·지·단' 을 파견하여 장애모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부모역할을 지원함

● 엄·지·단 역할 및 지원내용(예시)

장애유형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엄지단 역할	아동발달 학습보조교사	체험활동 지원	언어발달 지원
지원내용	• 자녀를 출산한 후 독립적인 양육 어려움 •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자능발달과 사회발달 지원 필요 • 영·유아기부터 적절한 자능발달과 사회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보조 교사를 집으로 파견하여 지원	• 부모의 이동제한으로 자녀의 야외활동과 문화체험 활동 어려움 • 자녀들이 다양한 야외활동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필요 •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원 인력 파견	• 건청자녀 양육시 가장 큰 어려움은 건청자녀의 언어발달임 • 부모-자녀간 소통단절을 막기 위해 수화가 가능한 언어발달 지원인력 파견 • 부모-자녀간 소통을 지원하고,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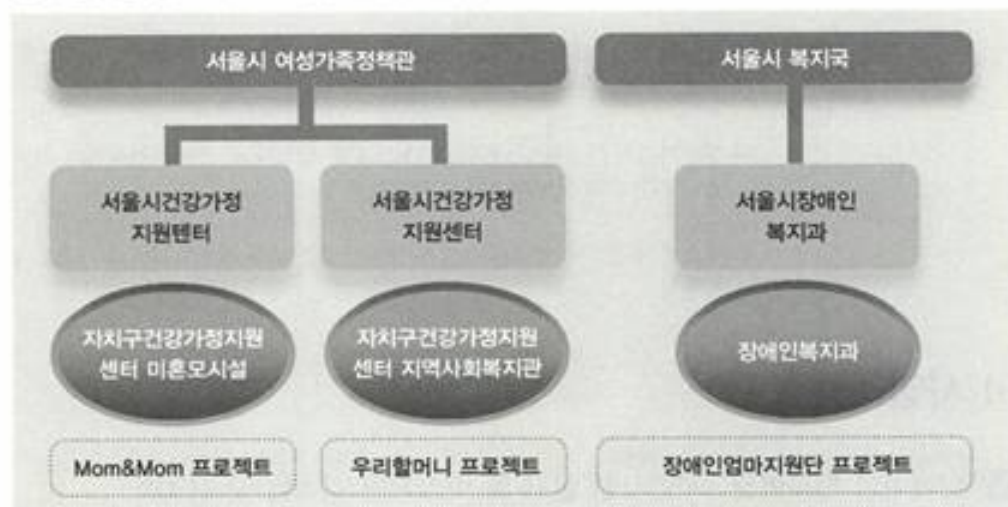
엄·지·단(엄마지원단)이란?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모성역할 지원 및 장애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4) 추진체계

■ 총괄주체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국

- Mom & Mom 프로젝트 및 우리할머니 프로젝트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시설(미혼모시설, 종합사회복지관)로 보급
- 장애인엄마지원단 프로젝트 : 현행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전달체계 활용



5) 기대효과

- 전문적이면서도 지지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 형성 및 소수자 여성·가족 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밀착형·맞춤형 복지 실현

장애여성 건강증진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여성은 일반적으로 장애남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식하고 있음.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치 못함'과 '매우 건강치 못함'에 장애여성의 70.1%, 장애남성의 57.9%가 응답하여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명, %)

항목	장애인		항목	일반국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매우건강	1.6	3.4	매우건강	5.2	9.7
건강한 편임	28.3	38.7	건강한 편임	31.2	39.9
건강치 못함	45.4	41.2	보통	41.5	37.3
매우 건강치 못함	24.7	16.7	건강치 못함	18.7	10.9
매우 건강치 못함			매우 건강치 못함	3.3	2.2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자료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 통계청(2003), 사회통계조사를 재구성함

- 이처럼 장애여성의 건강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의료체계 및 체육시설 등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접근성은 매우 저조함. 따라서 장애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시급함

2) 추진방향

- 장애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고, 의료전문가 집단의 장애여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등 장애여성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함
-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는 병원모델을 확산하고, 공공보건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함
- 평소 건강관리에 애로점이 많은 장애여성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건강·체육시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함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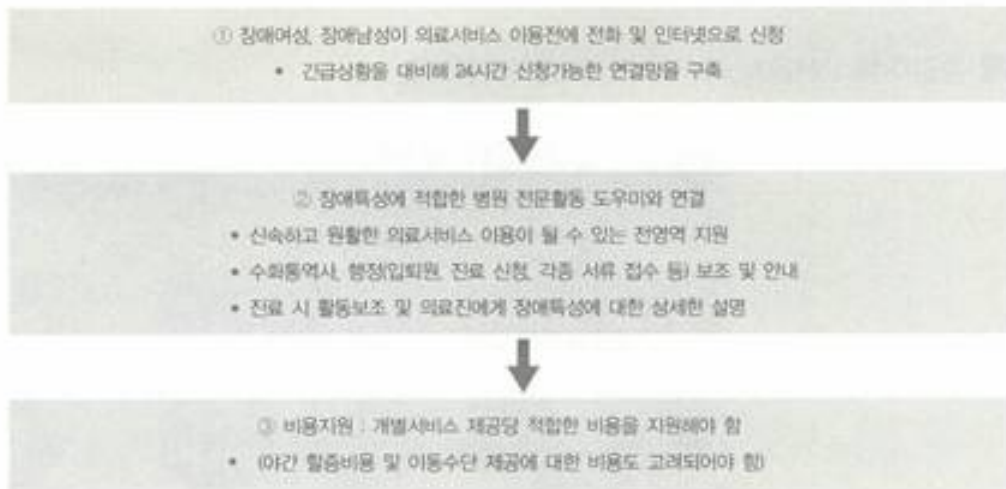
1 「장애여성 친화병원」 시범사업 실시 및 비상지원 시스템 구축(2011~)

- 선정방식 : 관련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병원 및 여성병원을 대상으로 장애여성 치료 실적 및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권역별 1개소 지정
- 장애여성 활동지원도우미 제도 도입 및 비상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 활동지원도우미 제도란?

- 자원봉사자의 자격이 아닌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유급 인력
- 전문교육의 내용: 장애유형별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
- 주요역할: 내원 장애여성 치료분야 상담 및 심리적 지원, 의료진과의 연계 등

〈표〉 장애여성 친화병원 비상지원 시스템 모형도



○ 친화병원 내 장애편의시설을 갖춘 전용병실 설치

- * 병실 설치방식 : (1)인) 서울시의 시설비 지원, (2)인) 세계해력 등 인센티브 제공, (3)인) 장애인식과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의료인력수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2 「장애여성친화 거점보건소」 시범사업 실시(2011~)

● 추진방식 및 주요역할

- 서울시 권역별로 1개소 보건소를 지정하여 장애여성 전문상담원 교육 실시 및 권역내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여성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예시) : 장애여성 의료권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장애아아 및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의료전문가의 장애 인식과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

○ 거점보건소를 축으로 다양한 장애여성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 장애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내 장애여성이 이용가능한 의료서비스 기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란?

- 장애여성이 자신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장애여성을 위한 「장애여성 전문건강센터」 설치(2013~)

3 「장애여성 체력단련센터」 시범사업 실시(2011~)

●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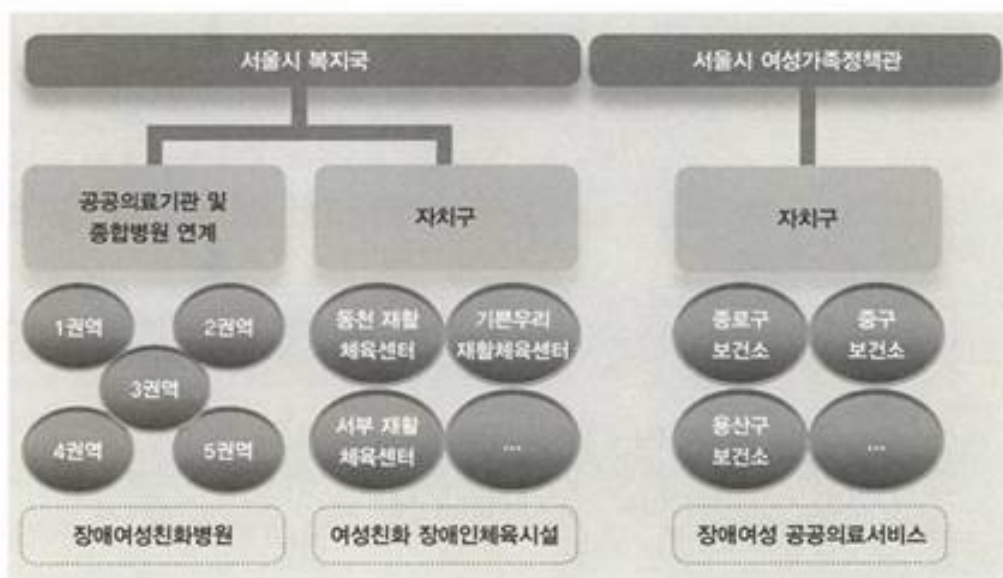
- 기존 구기종목 위주의 장애인재활체육센터를 장애여성에 대한 실질적 체력단련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의 심리적, 육체적 치유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 노원구, 은평구 등 서울시 소재 장애인재활체육센터 6개소를 여성친화 장애인체육시설로 지정 운영, 장애여성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정기 셔틀버스 운영

○ 동 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전문지도자 양성 및 전문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욕구에 부응하는 소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생활체육 전문지도자의 재교육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전문지도자 확보
- 과학적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직면 과제

4) 추진체계

■ 총괄주체 : 서울시 복지국 및 여성가족정책관



5) 기대효과

- 장애여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향상으로 장애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장애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인구 확대

서울 여성가족정책 통합품질 관리체계 구축

1) 추진배경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
- 정책 품질 유지 및 관리 체계화
- 서울 시민의 신뢰 및 정책 만족도 제고

-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서비스 질관리
- 서울시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정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서울시 평가 사후관리 강화로 여성가족시설의 자발적 질 향상노력
- 평가 및 인증시설에 대한 체계화 필요
- 서울시민의 선택권 증진과 연결된 평가 활용 방법 모색
- 서울형 여성·가족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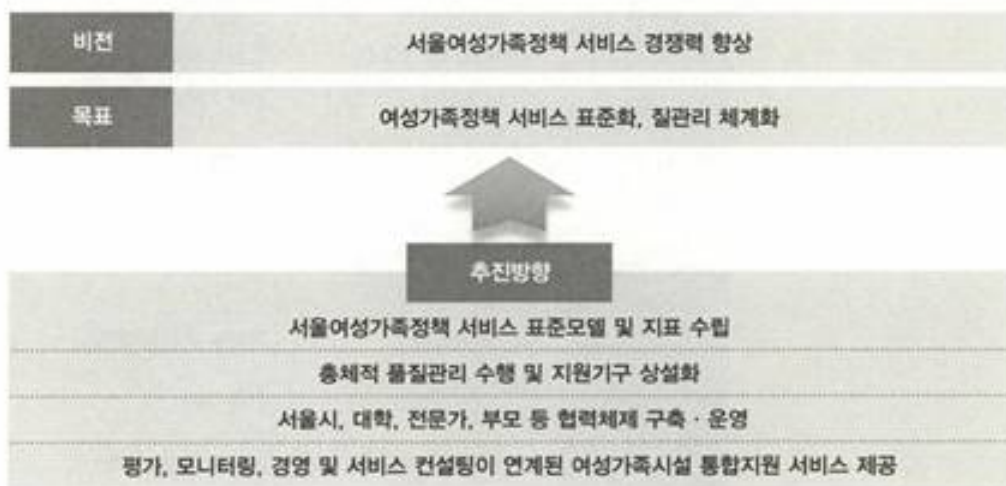
2) 평가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시설(개소수)	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 주최
보육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비서울형어린이집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333개소)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	여성가족재단
	아동 (49개소) (아동복지시설, 아동자립시설 등)	시설평가	복지재단
	청소년시설 (120개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공부방)	시설평가	한국청소년연구원 등 위탁
여성	자치구 여성정책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발전기금 (55개단체, 9억1천6백)	기금 평가	여성가족재단
	여성인력개발기관(20개소)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여행시설평가	여행시설 현장 평가·인증	여성가족재단
가족	서울시간강가정지원센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미 실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소)		미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국비+시비 : 4개소 • 시비+구비 : 2개소	전국 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미 실시

● 문제점

-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상시 평가체계 구축 미비
 - 양질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의 기대 증대되고 있으나 질관리 체계화 및 제도화수준 낮음
 -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임시운영체제로 인한 평가전문성 결여
 - 인증 미참여시설(2,57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질관리 미흡
- 아동청소년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및 모니터링 미흡
 - 평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질관리 및 미흡시설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기능보강 노력 필요
 - 아동시설에 대한 평가지속성 및 전문성 한계
 - 서울형 지역아동센터 등의 표준모델 부재
- 여성정책 컨설팅·평가 환류방안 부재 및 이행 효율화방안 미흡
 - 평가 환류방안 미흡으로 인한 이행 효율화방안 한계 노정
 - 여성정책수립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신규지표 지속 개발 필요
 - 서울시 정책파트너로서의 여성단체와 연대감 형성 한계
 - 서울시 인증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 산재
- 서울시 가족정책전달체계로서의 서울시 가족지원시설에 대한 인지도 확보 및 통합 평가체계 방안 부재
 - 상재한 각 센터의 프로그램 나열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체감도 낮음
 -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가족정책전달체계로서의 면모 확보에 미흡

3) 목적 및 추진방향



4) 세부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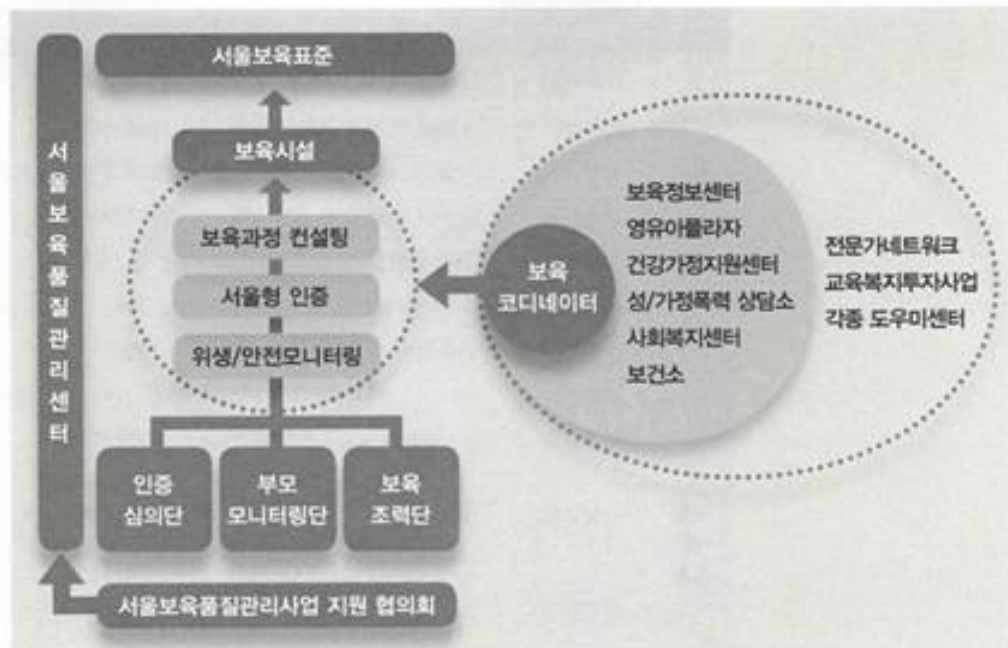
〈보육정책〉

1 사업 내용

● 서울보육 품질관리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보육관리 체계 확립

〈그림〉 서울보육품질관리센터 운영



○ 주요 사업내용

- 서울지역 보육시설 평가사업 연계 및 운영 지원
- 서비스 품질 표준지표 개발, 측정, 평가, 인증 및 지원
- 평가단 및 심의위원 등의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 조리, 종사자 교육 등 인증시설의 질적수준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공인 인증 지침서 및 각종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부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 내실화
- 인증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 보육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지속 발굴

● 서울 보육 표준 모델 개발

○ 서울 보육 표준 수립

- 녹색 친화적 보육환경의 구성, 아동·교사 간 영질의 관계, 놀이·자연체험활동 등 긍정적 발달지원 및 역량개발 도모하는 서울 보육 서비스 표준화
- 보육과정의 질,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합리적인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확보
- 측정지표(인)

영역	지표 및 내용
투입	인력(투입, 연속고용, 팀워크, 교육), 조직(교사회의, 운영위원회, 지역네트워크), 예산 집행
과정	보육과정(구성, 연계성, 융통성), 친환경, 관리(안전, 영양, 건강)
결과	만족도(교사, 부모), 참여도, 공헌도

● 서울형 어린이 집 인증 공신력 제고

- 서울 어린이집 인증지표는 서울형 어린이집의 질적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평가기준을 제공 하고, 객관성과 변별력을 갖춘 평가도구로서 기능해야 함

○ 인증지표 체계화

- 친환경, 보육교사 전문성, 표준보육과정 연계성 등의 서울형 지표 부가

	현 평가인증		개선안	
	평가영역	하위영역	평가영역	하위영역
중앙 정부 평가 인증	보육환경	보육시설환경, 보육활동자료	맞춤보육	보육시설환경, 보육활동자료
	운영관리	시설운영 및 보육인력 관리	운영관리	시설운영 및 보육인력 관리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수립과 활동 운영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수립과 활동 운영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교사 상호작용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교사 상호작용
	건강과영양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간식	건강과영양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간식
	안전	실내외 시설안전, 영유아보호	안전	실내외 시설안전, 영유아보호
	협력	가족협력 및 지역사회 협조	협력	가족협력 및 지역사회 협조
서울 형 인증	보육인력	전문인력	보육인력	교사교육, 근무시간, 직장만족도
	맞춤보육	맞춤형 보육 서비스	맞춤보육	맞춤보육 인프라
	안심보육	시설안전 급식, 위생	안심보육	녹색친화시설·환경 구성 아동 위생습관, 친환경 식재료
	클린운영	시설안전 급식, 위생	클린운영	동일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권한
			보육 프로그램	자율장학,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네트워크 범위, 기능

○ 합리적인 인증심사 기준안 개발

- 정부인증비 지원시설과 미시설, 보육시설 기능별 평가지표체계 다양화
- 시설여건 및 서비스수준을 고려 한 평가영역별 가중치 도출
- 필수항목, 평가항목, 가산항목 등으로 세분화
- 등급간의 세분화를 통한 서비스질 개선에 역점

○ 인증 심사기준 명확화 및 평가방식 합리화

- 제1단계 보육표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에 시설장, 교사 및 부모 참여
 - * 자체평가 기간동안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육 및 영유아 자원기관 및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가능, 교육훈련비 지원
- 제2단계 조력자(validator) 과건으로 기관의 자체평가 심사 및 개선방안 건설됨
 - * 조력자 자격: 유아교육, 아동발달, 기타 관련학과를 전공자이며 의사소통 기술 가진 전문가, 영유아 프로그램 관리 경험, 인증절차 훈련받은 자
 - * 조력자 활동 영역: 기관장 면담 및 심도 있는 토론, 교실 관찰 및 관찰 확인보고서 제출
- 제3단계 조정과정은 조력자의 관찰 확인보고서에 대한 기관 feedback 및 기관의 확인보고서 제출
- 제4단계 인증심의 및 결정
 - *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1~3년으로 차등
 - * 인증 유보인 경우 조력자에 의한 사후지도, 일정기간 경과후 재인증

● 서울 보육 표준화 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체계화

○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 통한 조력단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모든 보육시설은 2년 주기로 조력단에 의한 서비스 질 평가 및 컨설팅 받음
- 지역내 대학, 아동발달관련 전문가, 가족상담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아동 및 가족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 조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아동심리, 치료, 안전, 회계영역 전문가 유입으로 장애아 보육, 발달장애 조기 발견,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조력영역 확대
- 평가과정 및 평가 후 추적 관리 등 세분화된 조력 프로그램 개발 및 조력 완성화
- 보육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서비스 질 향상 활동에 대한 교육 정례화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체계화

- 서울시 모든 보육시설은 2년 주기로 모니터링단에 의한 기본안전 및 위생 관련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받음
- 주부, 은퇴교사 및 시설장 등의 상시적 자원 활용
- 교육 정례화로 평가기준 일관성 유지

● 정보 연계 및 정보 유통망 확장

○ 조력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서울 보육 표준관련 정보와 자료개발 및 지원

○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보육시설 및 보육과정에 대한 질 평가결과 등의 폭넓은 정보 제공

○ 보육코디네이터 직무 지원

- 지역내 각종 보육서비스 관련센터 및 기관, 전문가 등과 연결하여 보육시설 사업 지원하는 보육코디네이터 직무 지원

2 추진 체계

● 추진 방식

○ 서울시 보육정책관 기본계획, 예산 및 사업총괄

○ 여성 및 보육관련 법인·단체에 업무위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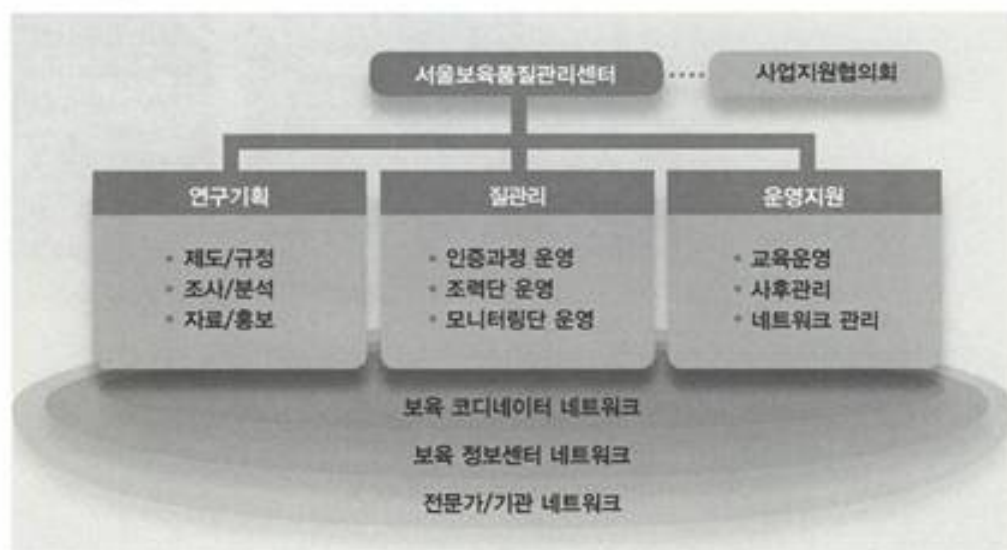
● 추진 체제

○ 조력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서울 보육 표준관련 정보와 자료개발 및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사업총괄, 사업관리 및 감독, 사업평가 등
- 사업지원 협의회
 - 구성 : 위원장(서울시 보육담당관), 서울시 보육평가팀, 서울보육정보센터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기능 : 연도별 사업계획 자문, 사업간 연계방안 모

○ 품질관리센터

- 구성 : 3팀(연구기획, 질관리, 운영지원), 3개 지원단(인증심의회위원단, 조력단, 모니터링단)
- 기능 : 보육 품질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등 사업운영에 관한 지원기능 및 연구 수행



4) 세부사업 내용

〈아동청소년 정책〉

● 지역아동센터 만족도 제고 및 상시 평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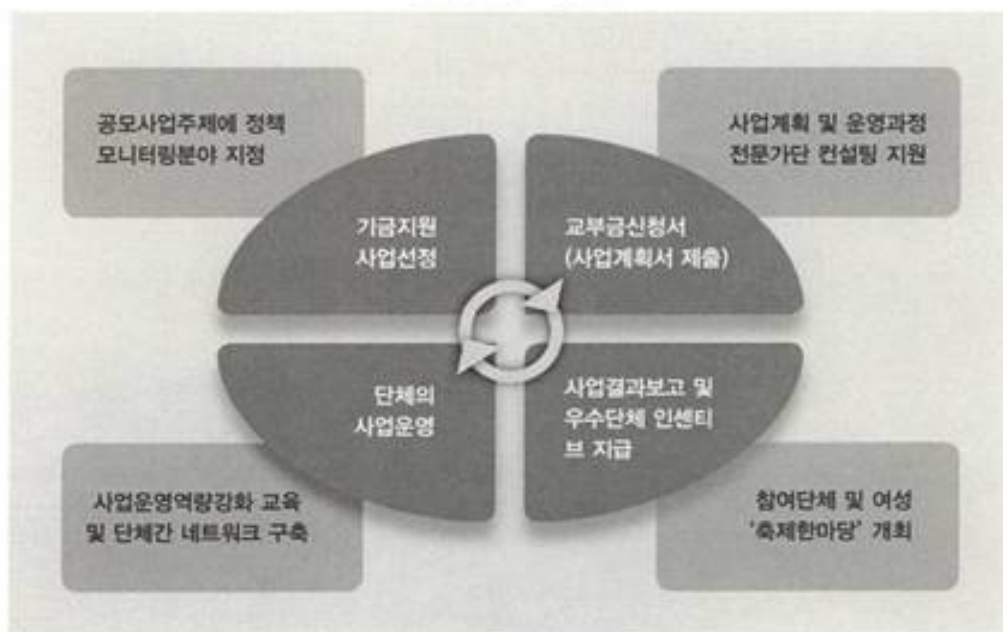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 운영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실태 파악 및 질적제고 도모
 - 지역아동센터 지원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마련
-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강화
 - 하위시설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 실시 및 교육 강화

〈여성 정책〉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평가모형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주제분야에 '정책모니터링' 분야 신설하여 단체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증대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전문가단의 사업운영과정 컨설팅 제공
- 단체의 사업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제공 및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결과보고를 위한 참여단체와 참여시민이 함께하는 축제 개최

[그림] 운영모형(안)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및 환류방안 마련

-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시행('04~)
 - 2개 분야 6개 영역 17개 항목, 33개 평가지표

〈표〉 평가지표체계(안)

평가분야(배점)	평가영역(배점)	평가항목수	평가지표수
여성권익향상 (80)	성주류화(30)	3	7
	추진역량강화(15)	2	3
	여성가족복지향상(25)	3	7
	여성경제활동능력향상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인권보호 중 택1(10)	2	2(2)
여행일반사업 (120)	기반조성(45)	4	7
	사업성과(75)	3	7

* 109년 15개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제공(80억)

- 기존지표의 세부측정지표 보완 및 개발
 - 여성정책 컨설팅 및 평가환류 강화를 통한 여성정책 이행의 효율화
 - 시책이 반영된 여성정책계획수립 및 성과도출을 위한 신규지표 개발
 - 평가 및 환류방안 모색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행실적 '2004~2009 자치구여성정책평가' 수행

● 여행시설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 여행시설 평가도구 (Safety Audits) 개발
 - 여행시설에 대한 기존 제시(여행시설 매뉴얼 개발)
 - 여행시설에 대한 주요지표 (명수, 선택, 권고 항목) 설정
 - 예시) 도서관, 쇼핑몰, 공연장 등
 - * 여행시설 가이드라인(Safety audit) 개발 ('09년 5월, 9월)
 - 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여행공원, 여행아파트, 여행기업
 - * 인증현황 (09, 12 현재)

영역	여행화장실	여행주차장	여행길	여행공원
투입	122	118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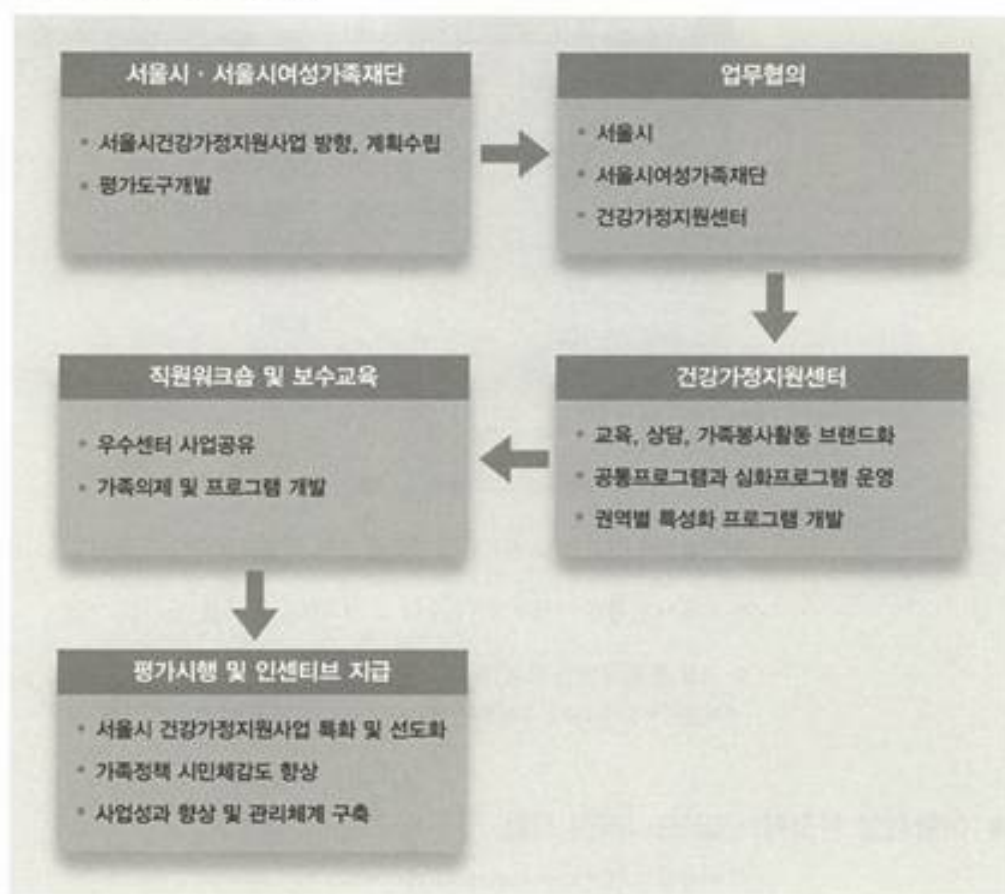
- 여행시설 현장평가
 - 평가단 구성 (전문가, 자치구 여행 포럼단, 프로슈머 등) ⇒ 현장평가 실시 ⇒ 인증
- 기평가 인증시설 모니터링 강화
 - 기 인증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미비시설에 대해 인증 취소 및 수정 보완 요청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행실적
 - '2009 여행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매뉴얼 개발 및 현장평가

〈가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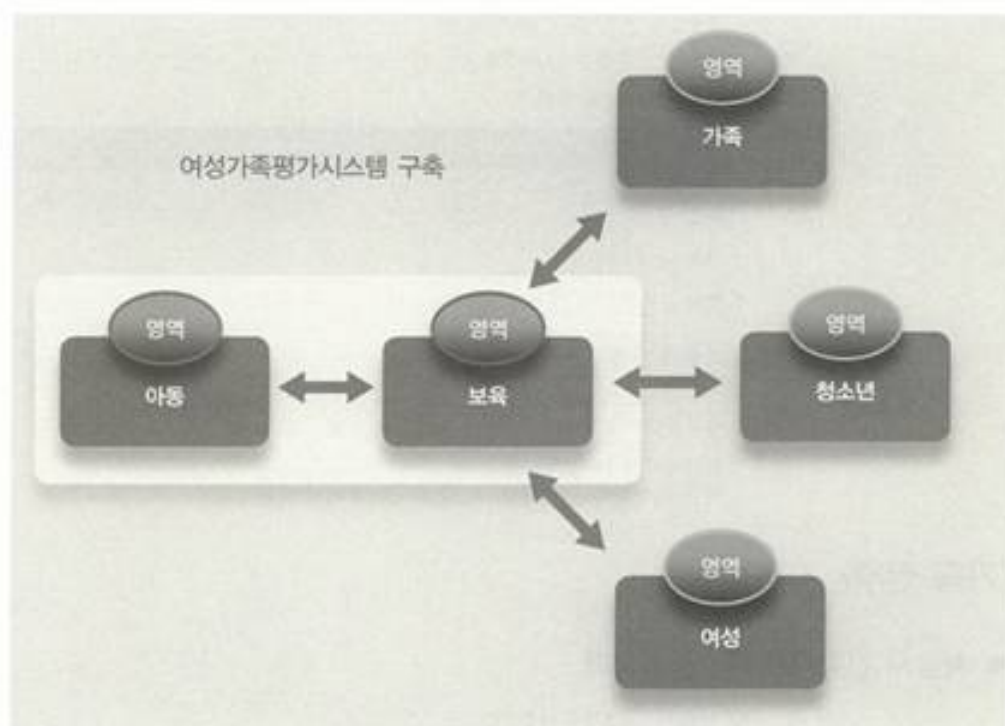
●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평가

-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평가 및 환류
 - 서울형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9개소 운영
 -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로서 센터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수행실적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표〉 서울시 평가체계 추진모형(안)



● 기대효과

- 서울형 여성가족서비스 표준모델 및 지표 수립
- 총체적인 품질관리 수행 및 지원기구 상설화
- 평가, 모니터링, 경영 및 서비스 컨설팅이 연계된 여성가족시설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여성가족 서비스 경쟁력 향상

5. 민선5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전략과제

5-3 Balance

● 6대 중점과제

전략	정책대상	영역	정책 과제	단위사업
Balance	여성	다양성의 공존	서울 젠(GEM)센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도구개발 및 컨설팅사업 성인지교육 전문가 양성 성주류화 우수사례집 개발
	여성	일-가정 양립	서울 워킹맘 지원 프로젝트	워킹맘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워킹맘지원센터 신설 일-가정양립지원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가족	역동적 거버넌스	가족 지역 해피투게더 프로젝트	「행복가족지원지역연대」 출범 「우리마을 행복지도 만들기 페스티벌」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환경지킴이」
	가족	일-가정 양립	대다앰홀퍼니 행복쑥쑥 프로젝트	「우리아빠최고!」(대디프렌디)」 자원사업 홀퍼니 행복지원 사업
	가족	다양성의 공존	모자이크 프로젝트	국제커뮤니케이션 교육센터 「모자이크센터」 설립 다국어 안내서비스 사업 공공도서관(시립/구립)내 다문화도서관 코너 설치운영
	여성	다양성의 공존	여성친화도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계의 여성친화도시 저널 발간 서울시, 유엔 해비탯 공동협력사업 실시 「여성친화도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단위사업

전략	영역	정책대상	단위사업
Balance	일-가정 양립	여성	워킹맘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워킹맘 지원센터 신설
			일-가정양립지원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가족	『우리아빠최고!! (대디프렌디)』 지원사업
			홈피니 행복지원 사업
			서울시 양성평등가족 보너스제도 운영 서울시 가족지원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맞벌이부부가 행복한 서울
	역동적 거버넌스	가족	『행복가족지원지역연대』 출범 『우리 마을 행복지도 만들기 페스티벌』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환경지킴이』
		여성	서울시여성정책 시민기획단, 시민정책 평가단 운영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양성의 공존	여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도구개발 및 컨설팅사업 성인지교육 전문가 양성 성 주류화 우수사례집 개발
		가족	국제커뮤니케이션 교육센터 『모자이크센터』 설립 다국어 안내 서비스사업 공공도서관(시립/구립)내 다문화도서관코너설치운영
		여성	세계의 여성친화도시 저널 발간 서울시, 유엔 해비랫 공동협력사업 실시 『여성친화도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외국인정책포럼 운영

서울 젠(GEM)센터

1) 현황 및 필요성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으로 하나임. 유엔과 유럽연합은 성 주류화를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성 주류화 관련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3대 성 주류화 도구(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발전 과정

- 1)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
- 2) 성인지예산은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에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 규정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3) 성별통계는 여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 2007년에 통계청이 통계법을 개정하면서 성별통계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성별통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확산되면서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관련 컨설팅이 활성화될 경우 성인지정책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져 성인지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2) 추진방향

○ 서울시 안전, 공공서비스, 주택 등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성평등 관점(젠더관점) 통합방안 마련

○ 효율적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증서 발급, 전문 강사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서울시 자치구 성 주류화 우수사례집 개발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발간

3) 사업내용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시행(분석)도구 개발 및 컨설팅 사업 (2011~)

● 사업개요

○ 서울시에 적합한 성별영향평가 방법론 및 성인지 예산 분석지표를 개발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과정에 자문 및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

● 사업내용

- ① 기본인프라로서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방법 개발 및 양식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②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관련 연구 및 컨설팅단 운영

2 성인지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2011~)

● 사업개요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또한 공무원이 스스로 성인지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사업을 실시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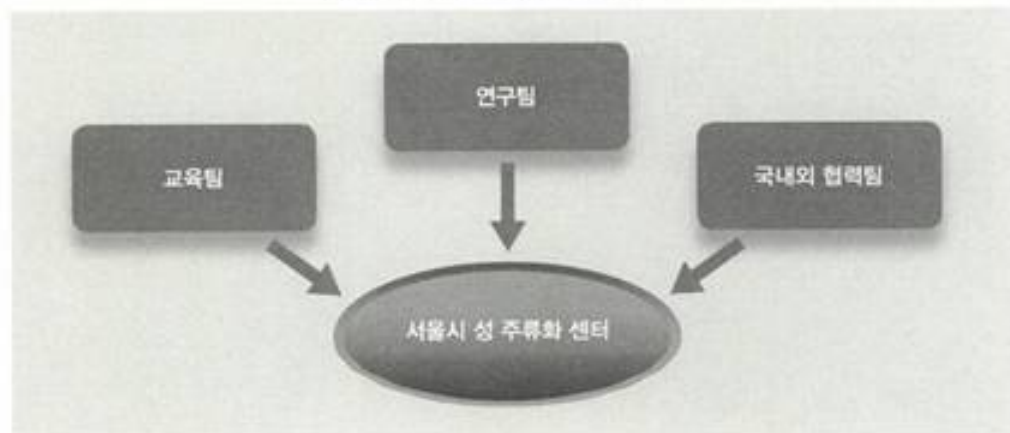
- 성인지 시범교육 운영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성 주류화와 연계성이 높은 기관(시의회, NGO 등)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함

3 서울시 자치구 성주류화 관련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물 제작·배포 (2011~)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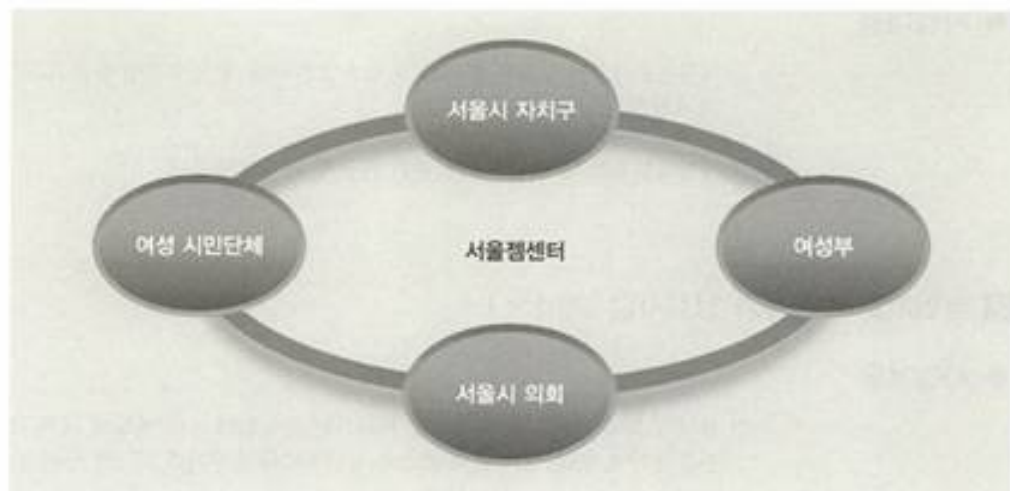
- 자치구민들에게 생활상의 실질적인 혜택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예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접한 정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녹색뉴딜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을 통해 성별격차를 해소한 경우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추후 인센티브 방안 강구

[그림] 서울시 젠센터 조직구성 모형



4) 추진체계

- 서울젠센터는 여성부의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시행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토대로 함
-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담당자 교육, 관련 연구조사 등을 수행함
- 이 과정에서 서울시 의회 및 여성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함



5) 기대효과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개선 추진
- 서울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평등한 삶의 조건 고려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전환

서울 워킹맘지원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더딘 편임
 -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가족친화기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요구가 강조됨
 - 그러나 공공기관 및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운영 미흡하며, 현재 중앙부처(복지부, 노동부) 중심의 일-가정 양립제도 정책만으로 정책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 * 기업의 가족친화성을 시범적으로 평가: 705개 대상 조사결과 37점으로 나타남(100점 만점)

2) 추진방향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컨설팅을 실시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받은 기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수여
- 일하는 엄마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및 보육지원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제공

3) 사업내용

1 워킹맘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 (2011~)

● 사업개요

- 지역별, 세대별, 직종별 다양한 워킹맘의 요구를 반영한 육아관련 정보를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공함

● 사업내용

-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서비스를 워킹맘의 이용 편의성 고려를 위해 온라인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모성보호 및 보육관련 정보를 제공함

2 「워킹맘 지원센터」 신설 (2012~)

● 사업개요

- 워킹맘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체의 컨설팅 및 우수 일-가정 양립지원기업 발굴 및 표창을 통한 홍보, 기업 및 담당자 등의 가족친화제 관련 교육 실시

워킹맘 지원센터의 기능

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컨설팅 기능

- 기업의 조직관리 상 일-가정 양립제도 구축 (탄력근무제, 수유 및 보육제도 신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여성인재 육성 등)
-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과 운영에 대한 기업 및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② 정보공유 및 홍보

- 「워킹맘 Working Mom」 잡지 발간 및 배포
- 우수 일-가정양립지원 기업 발굴 및 표창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 및 서울시에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 해당 기업의 제품 홍보기회 제공

③ 협조체계 구축

- 경제단체(전경련, 경총), 노동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4) 기대효과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인력활용

○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홍보로 인한 장기적으로 저출산정책에 긍정적 효과

가족 지역 해피투게더(Happy Together)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현대도시의 생활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유연성 증가에 따라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나 돌봄지원 체계의 기본설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음
- 이로부터 도시의 많은 가족들은 유급의 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만, 만족도는 낮고 가족지원 서비스의 체감도는 크게 미진한 상황임
- 돌봄의 걱정이 없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생활을 위해서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친화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다양한 욕구가 지역사회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구비와 함께 다양한 돌봄 자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 노인과 아동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욕구에 부합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돌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
- 과거 공동체 미풍양속을 계승한 가족품앗이 혹은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기업, 지자체,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제를 확보함

3) 사업내용

1 「행복가족 지원 지역연대」(이하 행복연대) 출범 (2011~)

● 추진방식

-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사업 주관으로 다음의 2단계 방식으로 추진

행복연대 발족에 있어 서울시 및 자치구의 역할모형

- 서울시 주요역할
 - ① '행복연대' 주요 사업아이템 개발이나 사업매뉴얼을 작성, 이를 자치구에 확산 및 실행하도록 독려함
 - ② 지자체 사업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공동의 로고 개발과 홍보를 통해 홍보 및 후원자 역할수행
- 각 자치구의 역할
 - ① '관내' 단체 혹은 개인성정 등을 모집·홍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더욱 가족친화적인 활동, 운영에 참여할 것을 권고함
 - ② 구체적인 권고안에 호주 베라라시의 경우 64개의 권고안에 부합되는 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의 병원, 상점,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함께 누리는 행복가족 연대" 로고나 현판 등을 제공하고 이들 참여기업이나 기관 등을 서울시민들에게 홍보함
- 행복연대에는 가족의 안전, 편의성 증진, 가족친화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

1단계

대대적으로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서울시" 혹은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합니다" 등의 슬로건을 제작하고 이를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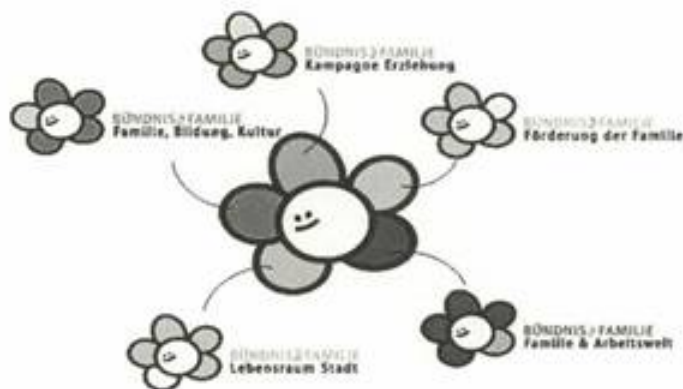


2단계

몇가지 행동강령, 혹은 권고안을 작성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선포

(예1) 각 자치구 소재 상점이나 병원 등에 “우리 ***가게는 지역의 행복한 아이키우기를 지원합니다” 등의 포스터나 로고, 현판 등을 제공

(예2) 뉘른베르크시 지역가족연대 로고의 예



출처: http://www.bff-nbg.de/index_1.html (김혜영 외, 2009)

2 『우리마을 행복지도 만들기 페스티벌』 사업 추진(2012~)

● 사업개요

- 마을지도에는 접근처 근거리(마을)의 가족편의를 위한 시설 및 가족지원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며, 주제 별로 매우 다양한 내용이 수록됨. 예로써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보 및 이용의 특성(편리성, 접근성, 안전성 등) 등을 일목요연하게 자료화함



● 추진방법

- ① 마을조사단 선발 및 지도만들기 교육 실시(대상: 각 자치구 아파트 동 단위 등에서 15세 이상 여성 선발)
- ② 마을탐사 및 지도제작 및 배포

『서울시 자치구 마을지도 경연대회』 행사 개최

- 독일의 가족친화지역사회 경연대회와 같이 가족행복지도 페스티벌 개최
- 참여방식은 다양한 지역사회구성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주체가 되어야 함
 - ① 자치구별로 지역사회의 NGO, 자조단체+자치구 행정팀의 결합
 - ② 각 자치구의 건강센터(복지관)+지역사회의 NGO, 자조모임이나 단체
 - ③ 각 자치구의 NGO와 자조모임(단체)의 결합
 - ④ 개별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조모임 등
- 선정된 팀에서는 소정의 상금과 더불어 관련 지역사회를 대표하여 관련 돌봄지도 제작비 지원

3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환경지킴이」 발족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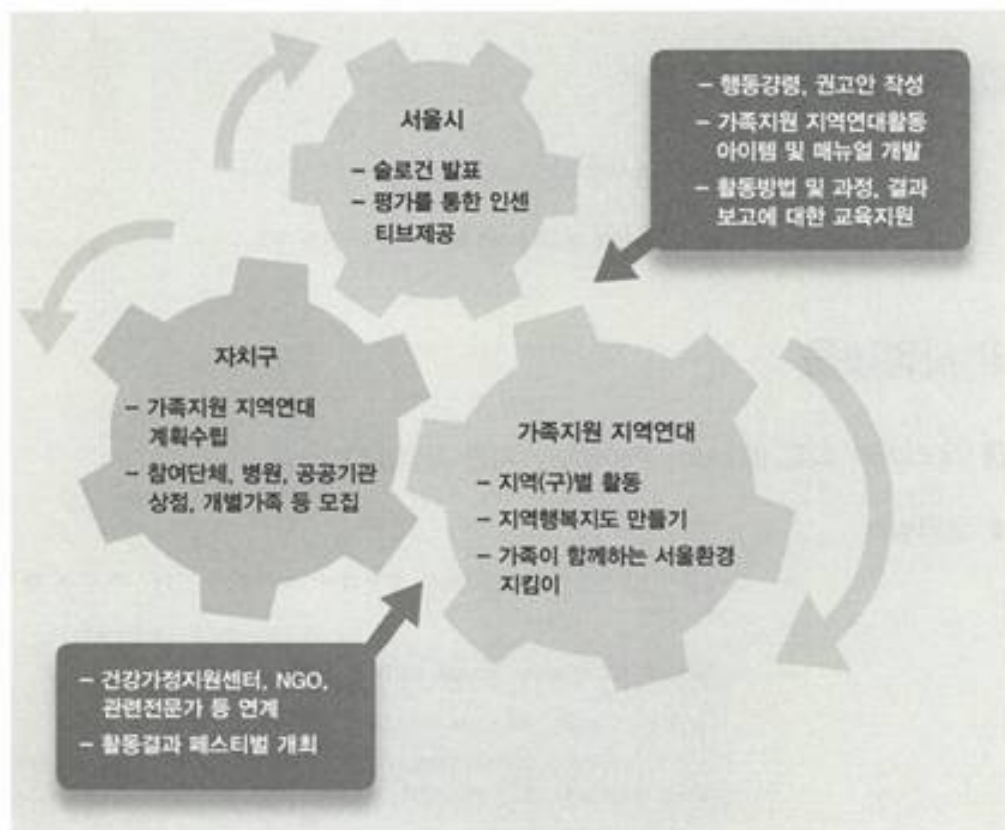
● 운영방식

-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 및 다양한 소모임과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한 “서울시 지역환경지킴이” 발족, 가족단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가족의 모듬활동방식으로 운영

「지역환경지킴이」 활동의 예시

- 지역사회의 생태계 보호와 연관된 활동 전개, 권역별로 활동의 목표와 내용은 다르게 할 수 있음.
- 「지역환경지킴이」의 활동아이템
 - ① 지역내의 작은 산, 하천이나 강 되살리기
 - ② 한평 밭밭 가꾸기
 - ③ 마을간 자원낭비 줄이기 콘테스트
 - ④ 마을놀이터를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 ⑤ 지역사회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운동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가족과 가족,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의 유대강화 및 지역정체성 확보
- 가족을 배려하는 서울시 문화화산 및 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대디 앤 홈퍼니(Daddy & Hompany) 행복쑥쑥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200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소년자녀가 고민이 있을 경우 '아버지와 상의한다'는 응답은 4%, 자녀가 아들인 경우조차 아버지가 주된 상담자라고 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은 청소년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장혜경·김혜영 외, 2005)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내나 자녀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서 가장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것은 "친구 같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의하면 10세 이상 서울시민 중 하루평균 가정관리에 참여한 남성은 32.0%, 가족보살피기에 참여한 남성은 12.3%에 불과, 여전히 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남성의 가사 및 육아활동 참여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정책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이제까지 주로 직장여성을 대상으로만 추진하여 왔으나 남성도 여성 못지않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남성영역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회 전반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며 출산율 회복 및 건전한 가족 문화 형성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추진방향

- 아버지의 부성역할 지원 및 새로운 아버지상 제시
- 성역할의식의 변화와 직장의 근로문화 변화 유도

3) 사업내용

1 『우리아빠 최고!!(Daddy Friendly)』 지원 사업 (2011~)

● 운영방식

- 서울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우리아빠 최고!!(Daddy Friendly) 사업의 프로그램 모형

① 자녀와 함께하는 '부-자녀 봉사단'

-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봉사단을 서울시의 대표하는 '가족봉사단'으로 홍보
- 서울시장의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시장도 함께 참여하여 '부-자녀봉사단'의 봉사활동 장려화

② 아버지와 함께하는 요리세상

-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월 2회 혹은 주 1회, 자녀 연령별 구분)
- 수업이후의 요리를 지역사회와 독거어르신에게 배달하거나 절우아동이나 어르신모시는 행사 주최
- '아버지와 자녀 요리경연대회' 서울시 혹은 자치구 수준에서 주관 개최

③ 아버지와 함께하는 '서울문화순례' (가정)

- 서울시 홈페이지 상시 프로그램 게시하고 홍보판 받아 운영
- 참여가족의 지원을 받아 정례적으로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의 고궁이나 명소를 순례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시간을 공유하도록 지원
- 참여가족의 친밀성과 서울에 대한 애착심 제고를 위해 참여후기 시상

2 Hompany 행복지원사업 (2011~)

● 운영방식

- ① 서울시에서 선정한 가족친화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 ② 서울시 기업체의 가족친화기업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Hompany 행복지원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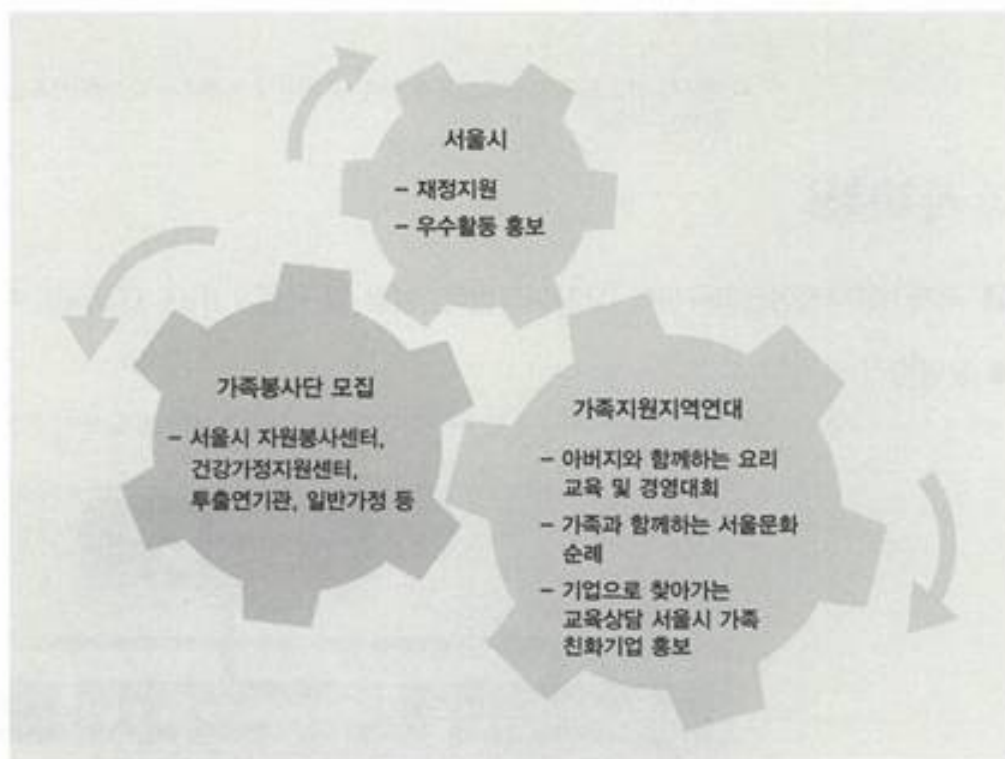
①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및 관련 기관들의 물품이나 서비스조달시 우선구매대상 업체로 지정
- 출산양육휴가시 여성보조인력 채용 보조금 지급

② 기업으로 찾아가는 무료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남성대상 육아·가사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예를 들어 추석이나 어린이날 등에 기업에서 자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무료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이벤트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
- 우수 가족친화기업의 프로그램이나 직원분위기 기업아이 등 관련 정보제공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남성의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 부-자녀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및 성평등 가족문화조성
- 일 중심 직장문화 개선 및 남성의 가족참여 지원

모자이크 프로젝트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의 결혼이민자로 채류중인 외국인은 2004년(14,710명)에 비해 2008년(29,560명)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서울시의 이주여성지원정책은 동화주의적 성격의 적응교육 및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음
- 현재 서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개 자치구에 설립·운영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에는 미설치되어 있는 등 다문화사회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 도래를 대비하여 일반주민과 다문화주민이 통합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다문화가족을 '포용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준비해야 함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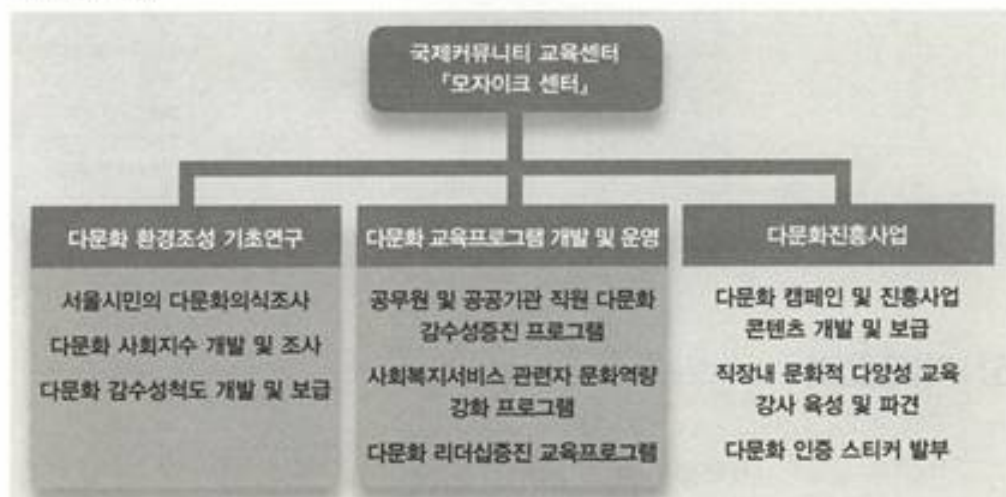
- '세계 속의 한국'에서 '한국속의 세계'에 초점을 둔 내향적 국제화와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 및 다문화사회의 타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서울시민들의 인식 확산
- 다문화 서울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서울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포털 사이트 구축

3) 사업내용

1 국제커뮤니케이션교육센터 「모자이크센터」 설립 및 운영 : Think Globally, Act Locally! (2011~)

● 운영방식

- 다문화사회 타문화 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문화 진흥사업의 3개 기능을 갖춘 센터 설립·운영



2 다국어 안내서비스 사업 실시 (2011~)

● 선정방식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서비스 조사실시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의 우선 적용기관 선정

● 추진방식

- 관공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다국어서비스 제공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플렛 배포를 통한 다국어서비스 제공

* 2008년 12월 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중 동대문구(일본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영등포구(중국어, 우즈베크어), 동작구(베트남어, 중국어)에서 제공되고 있음

3 공공도서관(시립/구립)내 다문화 도서코너 설치 운영(2011~)

● 추진방식

- 시립/구립도서관의 다문화 도서코너 설치를 통해 도서관 이용의 다국어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도서의 이용으로 인해 문화와 문화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도서관 발전시킴

● 운영방식

- 전략적으로 특정나라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도서관을 지역도서관에 설치·운영

* 2008년 9월에 개관한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네팔, 몽골, 이란 총 12개 언어로 된 도서 1000여권을 소장 운영하고 있음

4) 추진체계

- 국제커뮤니케이션교육센터 모자이크센터 신설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안내서비스 콘텐츠 생산후 구청, 여성인력개발기관, 보건소, 복지기관 등에 전달

5) 기대효과

- '행복한 소통을 생성하는 다문화 서울' 브랜드화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사회 기반조성

- 다문화가정 관련서비스 및 정보 등에 대한 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정보접근성, 서비스접근성 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수월한 사회작용 도모

- 해당 콘텐츠 번역작업 및 웹페이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도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추진한 '여행프로젝트'의 국제브랜드화를 위해 2009년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 네트워크포럼을 개최하여 전세계 60여개 도시 및 유엔 주요 여성관련 기구(UN DAW, UN HABITAT)와 함께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과제 공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도함
- 이에, 서울시는 유엔 해비탯과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진행하여 1차 협의안 마련에 성공하였고,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아시아지역 연대를 위한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아시아 대화(Asian Dialogue)'를 발족하여 '여성친화도시'정책의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함
-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코디네이터 기구로 유엔 해비탯, 메트로폴리스 여성 네트워크 등과 협력하여 '여성친화도시'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 정책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2) 추진방향

- 세계 '여성친화도시' 정책동향 분석 및 우수사례 연구
- 서울시와 유엔 해비탯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 프로젝트 개발
-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포럼 서울선언문 실행전략 구체화
- '여성친화도시' 관련 글로벌 캠페인 기획·실시

3) 사업내용

1 『세계의 여성친화도시』 저널 발간 (국영문, 연 2회, 온라인)

● 사업내용

- 국내외 연구진 논문 및 정책분야별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영문 저널 발간

『세계의 여성친화도시』 저널 내용

- 국내·외 연구진의 여성친화도시 개념 및 정책관련 논문
- 여성친화도시 정책 분야별 우수사례
- 세계도시의 여성정책 동향파악 및 분석

2 서울시, 유엔 해비탯 공동협력사업 실시 (2010 ~)

- 2010 UN CSW(여성지위위원회) 병행행사 공동 주최
- 서울시, 유엔 해비탯 '여성친화도시' 양해각서 체결
- '안전한 도시(Safer Cities)' 프로그램 협력
- '안전감시단(Safety Audit)' 활동 협력
⇒ 후아르위원회, WICI 등 국제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용
- '여성친화도시' 글로벌 캠페인 공동기획·추진

3 '여성친화도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2011~)

● 사업내용

①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지속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활동소식 및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아시아 대화' 활동소식 게시
-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포럼 서울선언문 후속활동 소식
-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및 유엔 해미넷 및 세계 각 도시 여성정책 담당자, 연구자, 단체활동가 핵심회원 확보 및 회원가입 유도

② 온라인 여성친화도시 정보 공유

- 3.8 세계여성의 날, 11월 여성폭력추방 주간 등 온라인 '여성친화도시' 글로벌 캠페인 실시
- 서울시 여성정책 현황 및 연구동향 등의 자료 게시

4) 기대효과

-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축적하여 서울시의 정보생산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여성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
- 글로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방향 모색 및 서울시 여성정책의 브랜드 가치 제고

서울시 여성정책 시민기획단, 시민정책평가단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여성정책은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며 도시생활의 다양한 주체의 요구 및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성정책에 참여하는 대상이 서울시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것임
- 또한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인 관점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단계 뿐 아니라 실행하고 평가하는 전단계에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함

2) 추진방향

- 여성정책 관련 핵심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여성정책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의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견수렴 정례화 및 여론조사결과를 서울시민에게 홍보, 의견수렴통로 개발

여성가족정책의 「분과위원회」란?

- 분과위원회 대상 : 서울시 여성정책, 성평등 관련 남녀 전문가
- 핵심분야 : 경력개발 및 일자리, 여성인권·안전, 평등문화·건강 등
- 역할 : NGO, GO, 의회,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참여하여 여성정책 이슈브리핑, 이슈페이퍼 등을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발간하여 여론을 확산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보

〈그림〉 서울시 여성정책기획단 시민평가단 구성(예시)



4) 기대효과

-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여성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 제고
- 남녀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정책뿐 아니라 일반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정책의 성형 평성 제고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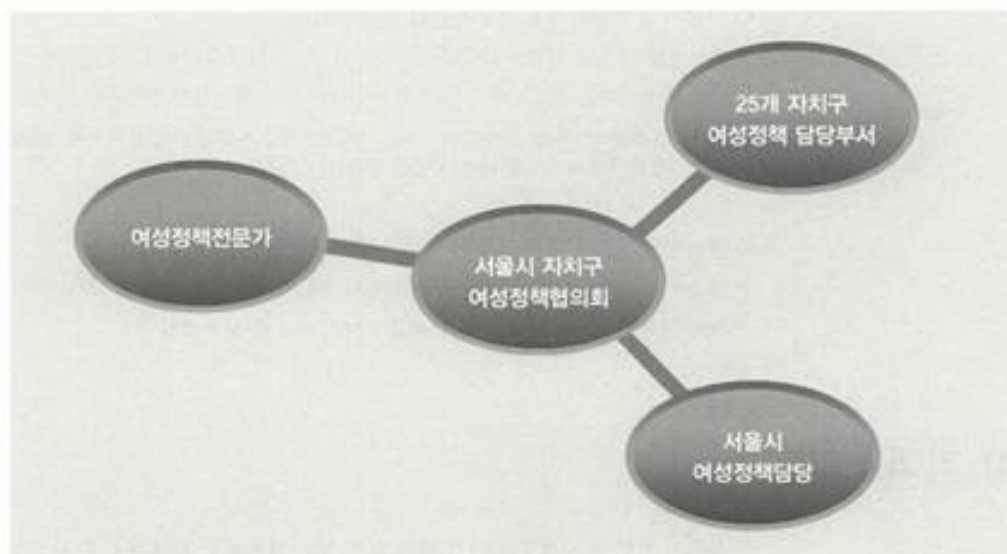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을 통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여성정책의 수준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정책개발이 더디거나 낙후된 지역구가 있는 반면, 여성정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음
- 이에 25개 자치구간의 여성정책 편차를 축소하고 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향상 및 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서울시 25개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별 여성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축적된 경험의 공유
-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실무단 구성 및 운영

3) 사업내용

-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협의회 실무단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별 여성정책 현장순방 및 순회회의 개최하고, 자치구별 우수 여성정책 사례소개 및 평가
- 여성정책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사업 개발



4)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협조네트워크 구축의 선도사례 제시
- 서울시 지자체 여성정책의 수준 제고 및 발전방향 제시

서울시 양성평등가족 보너스제도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가족학자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지속 및 일과 삶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변화에 따라 출산, 양육, 노인부양, 가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담당해온 책임을 새롭게 재편하는 가족을 “양성평등가족”으로 개념정의하고 있음
- 유사 사례로 54년 세계 가정의 해를 계기로 여성신문과 정부(제2)장관실 공동으로 ‘평등부부상’을 제정·운영한 바 있으며, 86년부터 평등부부상 시상식을 개최
- 특히 가내 의사결정권, 재산권에서의 평등을 이룬 “양성평등가족”을 선발하여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제고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함

2) 추진방향

-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양성평등하고 바람직한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최초 표명함으로써, 정부 정책 등에 파급 효과
- 여성의 커리어 개발 및 리더십 함양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가족상을 구현하고, ‘여성친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울시 여성친화경영’의 새로운 여건 마련

3) 사업내용

- 서울시 양성평등가족 선정위원회 발족(2011~)
- 의사결정, 재산권, 가사노동, 양육, 봉사 및 취미활동 영역에 있어서 가족원간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가족(상세한 분배 기준은 위원회에서 마련) 혹은 공정한 분배 재화 등에 참여기로 협약한 가족
- 예시: 가족원 2인 이상 가족으로서 서울시에 2년이상 거주한 가족(부부가족, 2세대 이상 가족 등을 모두 포함), 현재 0~6세 보육비를 내는 유아를 양육하는 가족
- 양성평등가족에 대한 보육비 보너스제도 도입안 마련(2011~)
- 선정된 ‘양성평등가족’은 해당 자녀(유아)가 이전 해에 지급한 총 보육비의 20%를 보너스로 환급받는 방안 등 검토
- 향후 보육비 보너스 제도 외에 주 세금 보너스 제도 등 신규 도입 검토

4) 기대효과

- 서울시 전반에 양성평등 여건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돌봄 지원의 새로운 모형 창출

서울시 가족지원서비스 평가체계 마련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은 사업팀별로 산재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고유한 가족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가시화, 체계화 작업이 필요함. 사업아이템의 종합으로서 가족정책을 나열하기보다는 비전과 사명,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전달체계의 효율화 작업을 통해 가족정책의 선명성이 부각되어야 함
- 서울시에 소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 센터를 포함 총 26개소로 전국 97개소의 26.8%에 달함. 1999년 4개의 지역센터가 개소한 이래 10년만에 무려 8.5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여줌. 하지만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지원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 서울시 역시 예외는 아님. 2005년 가족실태조사결과 전국 5,973명 가운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함(장혜경·김혜영 외, 2005)
- 따라서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가족정책전달체계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특화 및 선도화가 요구됨. 몇몇 센터의 공통사업과 함께 지역 특성화된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특성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성과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관리가 요망됨

2) 추진방향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 가족생활과의 밀착도가 높은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책수요자 대상별 차별화된 사업수행 평가체계 구비

3) 사업내용

1 「서울형 건강가정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 사업내용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차별화된 평가도구 개발 및 서울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서울시만 특화된 건강가정지원사업 개발·보급

① 서울형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도구 개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차별화된 평가도구 필요, 평가계획 및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서울시 소재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계획 수립
- 평가항목에 서울시만의 고유한 사업아이템개발과 이에 대한 실효를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만의 특화된 가족지원사업 활성화 모색

② 서울시 중 단기 가족정책계획 수립 및 특화된 건강가정지원사업 개발

- 서울시의 중 단기 가족정책계획의 수립과 서울시만의 특화된 가족생활과 밀착도가 높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개발·보급

③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와 차별화

- 서울시의 고유사업 브랜드화 추진

①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도구 개발

- 추진방향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는 차별화된 평가도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계획 수립
- 평가도구의 개발에 있어 주안점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차별화인, 이를 위해 평가항목에 서울시만의 고유한 사업아이템개발과 이에 대한 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서울시만의 특화된 가족지원사업 활성화 모색

② 서울시 중·단기 가족정책계획의 수립과 특화된 건강가정지원사업 개발

- 평가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서울시 중·단기 가족정책계획의 수립과 서울시만의 특화된 그리고 가족생활과의 밀착도가 높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개발·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방향과 평가의 내용이 상호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함

③ 지역센터의 유기적 연계와 차별화

- 현재 다양한 주기별 가족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가족봉사단 활동내용들을 패키지로 하여 서울시만의 고유 사업으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권역별로 가족봉사단의 활동영역을 특성화하여, 권역마다 고유한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고 봉사단의 고유한 이름을 부여함(가족봉사단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동안부 가족수호단(가침)”)
- 서울시센터들 헤드쿼터로 묶여진 권역별 그물망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다층화된 지역센터 운영모델 개발, 즉 공통프로그램은 25개 지역센터 모두에서 운영하지만 심화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권역별 대표기관이 선도하여 전지화산하는 방식, 또는 권역별로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가족지원사업을 개발·실행하여 익년도나 다음 분기에 관련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권역내 지역프로그램이 각 지역센터에 적용하는 방식

④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사업팀장의 업무협의 정례화

- 서울시 가족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이행을 위한 TPT 구성화와 이를 통한 건강가정지원사업 체계 점검
- 서울시 가족정책의 프레임속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아이템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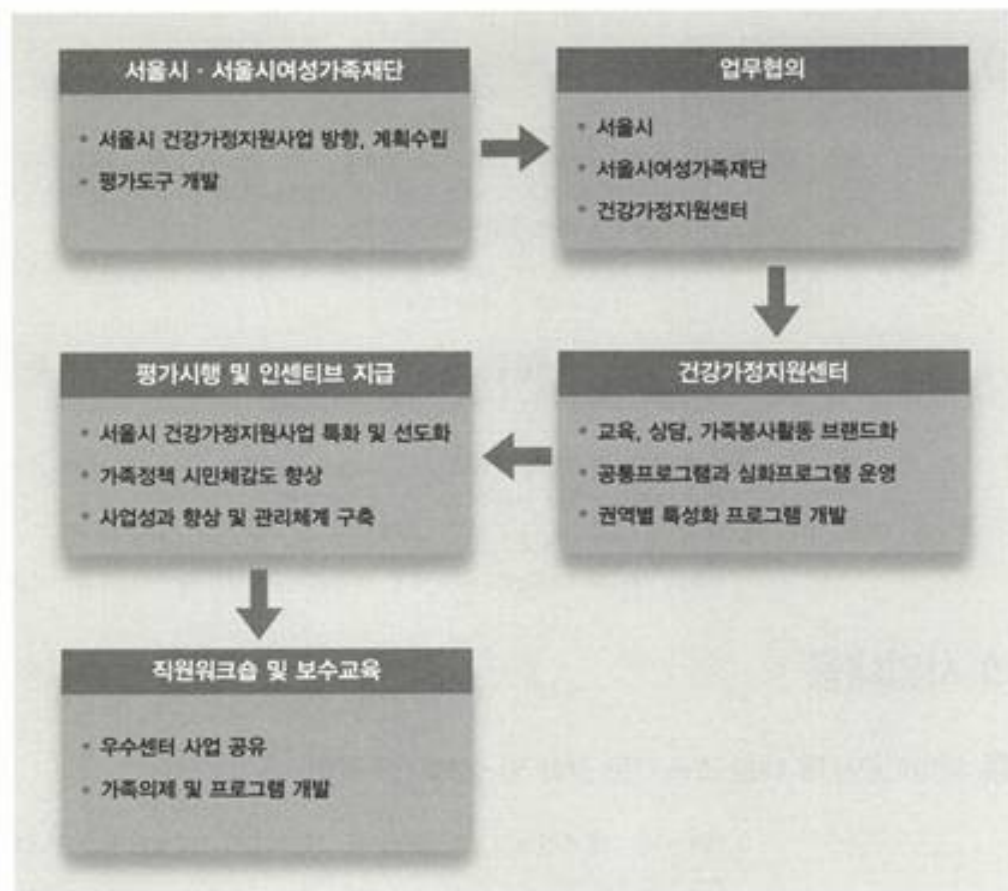
⑤ 다양한 워크숍 및 보수교육 실시

- 우수센터의 사업진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직원워크숍 정례적인 실시
- 25개 센터직원들을 직급별, 직무별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의제 및 프로그램 개발

⑥ 서울시의 인센티브 지급

- 권역별 특성과 점수와 함께 센터의 실적은 자치구별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4) 추진체계



5) 기대효과

- 중앙건강센터의 운영매뉴얼을 넘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 개발 활성화

맞벌이부부가 행복한 서울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거주 25~44세 기혼자 중 맞벌이 가구는 약 40%를 차지. 결혼초기에 맞벌이를 했다가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을 계기로 남성 홀벌이로 전환한 뒤 35세 이후에 맞벌이가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기혼부부의 경제활동 유형 패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25~29세: 맞벌이(46.7%), 남성 홀벌이(50.0%), 30~34세: 맞벌이(33.7%), 남성 홀벌이(61.0%), 35~44세: 맞벌이와 남성 홀벌이의 비율이 6:4 정도
- 이상적인 부부 경제활동 유형으로 부부 전일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0.3%로 특히 25~29세 청년층에게서 높아 68.2%가 맞벌이를 선호하고 있음
- 맞벌이부부 경제활동 패턴이 M-curve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맞벌이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벌이부부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
 - 실제로 저출산의 발생요인으로서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 부족(8.1%)"을 지적하고 있음

2) 사업내용

1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및 정책대상 확대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

구체적인 사업(예시)

- 보육교육료 지원 소득기준
 - [현행] 2010년부터 맞벌이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개선] 맞벌이부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차감 고려(예를 들면 소득의 50%까지 차감)
- 재가아동 양육비 지원
 - [현행]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0~1세
 - [개선] 맞벌이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상향조정(예: 중위소득 50%) 및 아동연령 상향조정(예: 0~3세아)
- 아이돌보미 사업
 - [현행] 5천원/시간당, 소득 50%이하 1천원, 소득 100%이하 4천원
 - [개선] 시간당 비용 감액(예: 시간당 3,000원)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다둥이 행복카드) 대상 확대
 - 현행 현재 2자녀(막내자녀 13세 이하)이상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 참여기업 확대로 개선

2 맞벌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 서울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맞벌이 맞춤형 자녀 보육 도우미 지원
 -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포한
 - 야간 및 공휴일 보육도우미 서비스 지원
 -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 * 은퇴한 교사, 간호사, 보육사 등 과거 경력자를 도우미로 활용
 - 보육도우미의 확실한 신원 및 양질의 서비스 보장

- 맞벌이 맞춤형 방과후보육서비스 지원
 - 간식 생거주기, 귀가지도 등 기본적인 보육 제공
 - 학교숙제, 알림장 확인 등 가정학습 도움 제공
 - 아플시 병원방문 서비스 제공 및 간호서비스 제공
- 맞벌이부부 자녀에게 지역사회 방과후 보육서비스 이용 우선권 부여
 -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입소 우선순위 부여

3) 추진체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정책의 기본방향, 예산지원 및 사업총괄
- 서울시 소관 정책 연구기관 (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정책 수립 및 평가 환류
- 서울시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아이낳기좋은세상 만들기 운동 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지원
-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추진 관련 자문 제공

4) 기대효과

- 맞벌이부부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 맞벌이가정 자녀의 보육의 질 향상
- 일-가정 양립 제고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서울시 외국인정책포럼 운영

1) 현황 및 필요성

-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2006년 이후 각종 다문화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지역사회 참여자라기보다는 정책수혜자, 복지대상자로서만 다루어지고 있음
 - 정책형성과 수립에 있어서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거의 없고, 있어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1,158,866명으로 10년전인 1998년의 30만명에 비해 약 274%로 증가하여 전체 국민 인구의 2.3%에 이르렀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 이주민의 체류기간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어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체류)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2000년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낳았음
 - 장기체류자의 비율 : 65.4%('04) → 77.3%('08)
 - 지역별로 보면, 결혼이민자들의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서울특별시에는 전체 결혼자의 24.1%가 살고 있어 경기도(25.9%)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과 다문화가족지원법('08)제정,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 범부처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관련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가 있음
-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쌍방향적인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의 거주민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보다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음

외국사례

- 일본의 가와사키시 : 1996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외국인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법적근거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함
-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 : '외국인대표자회의'를 구성 운영함

2)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전문기술직, 유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서울 거주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함

외국인 정책포럼 운영(안)

- 운영원칙
 - ① 법적근거마련 : 관련조례(서울특별시외국인정책포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필요
 - ②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가 50%가 되도록 함
- 주요역할
 - ①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개발 및 서울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 ② 영역에 따른 분과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 외국인이 정책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 생산

2009-정책개발-04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서영주, 김애령, 조연숙, 손문금, 김유나, 조은영, 정인선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2009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이 기록하는 여성을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이 기록하는 여성을 기억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성이 기억하고 여성이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
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솔빌 22번지 Tel. 02-810-5000 Fax. 02-810-5100 www.seoulwomen.or.kr